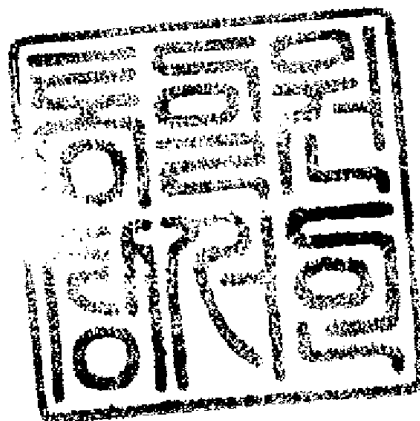


미·일 행정부·언론·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본

# 「미·일의 대한반도정책」 자료집

1997.12



통 일 원

# 차 례

제1장 미국 .....	3
1. 정책 보고서 .....	5
가. 백악관, 새로운 세기를 위한 안보전략('97.5.19) .....	7
나.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 미-일방위협력지침('97.9.23) .....	17
다. 아시아 태평양국, 한·미관계 보고서('97.2.10) .....	50
2. 행정부인사 청문회 증언 .....	61
가. S. Roth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상원 인준청문회('97.7.22) ·	63
나. C. Kartman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하원 동아태소위원회('97.2.26) .....	75
다. C. Kartman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상원 동아태소위원회('97.7.8) .....	97
라. K. Campbell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상원 동아태소위원회('97.7.8) .....	111
3. 행정부인사 연설문 .....	121
가. M. Albright 국무부 장관, 해군사관학교('97.4.15) .....	123
나. B. Atwood, Korea society hunger center 포럼('97.9.19) ...	144
다. H. Shelton 합참의장, 한미안보연구회('97.10.24) .....	157
라. S. Roth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홍콩세계경제포럼('97.10.15) ...	169
4. 전문가 학술지 기고문 .....	179
가. M. Noland(진보정책연구소), Foreign Affairs('97.7·8) .....	181

나. N. Eberstadt(하버드대), Foreign Affairs('97.3·4) ..... 200

5. 기타 언론 기고문 ..... 231

가. J. Hoagland, 워싱턴 포스트('97.4.10) ..... 233

나. S. Harrison(우두르웁슨연구소), 헤럴드 트리뷴('97.5.14) ..... 240

다. M. O'hlanon(브루킹스연구소), 워싱턴 타임즈('97.9.26) ..... 247

라. K. Quinones(평화문제연구소), 문화일보('97.12.8) ..... 251

제2장 일본 ..... 255

1. 정책 보고서 ..... 257

가. 일미안전보장공동선언 ..... 259

나. '97년도 외교청서(관련부분) ..... 269

다. '97년도 국방백서(관련부분) ..... 275

2. 행정부인사 연설문 ..... 283

가. 橋本 총리대신, 국회 소신표명연설('97.9.29) ..... 285

나. 橋本 총리대신, 미국 콜럼비아대학 강연('97.6.23) ..... 291

다. 池田 외무장관, 국회 외교연설('97.1.20) ..... 299

라. 池田 외무장관, 국회 외교연설('96.1.22) ..... 310

마. 橋本 총리대신, 국회 소신표명연설('96.11.29) ..... 321

3. 언론 기고문 ..... 327

가. 伊豆見元 시즈오카 현립대학교수, 세계주보('97신춘 특대호) ..... 329

나. 加藤清隆 세계주보 특파원, 세계주보('97.6.17) ..... 339

다. 内田明憲 요미우리 특파원, 요미우리신문('97.12.10) ..... 346

# 제1장 미 국

# 1. 정책 보고서

## 가. White House,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백악관, '97.5.19)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중요 임무이며 헌법적 임무이다. 21세기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는 더 할 수 없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역동적인 지구경제는 미국인의 직장과 투자에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 사회는 정치적 안정과 평화로운 분쟁해결, 세계인민에 대한 더 많은 희망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복잡성에 있어 전례없는 것이다. 인종분쟁과 불법국가는 지역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테러, 약물, 조직범죄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은 국경을 넘는 세계적 관심사이다. 환경파괴 및 급속한 인구증가는 많은 나라에 있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86년의 Goldwater-Nichols 국방부재편법의 603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기회와 위협의 시대에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안보 전략을 규정했다.

그것은 대내적 부강과 해외에서의 지도력이 보다 안정되고 부유한 미국을 만든다는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을 무적의 나라로 만드는데 있어 세가지 전략적 목표는,

- ① 싸워 이길 준비가 된 군사력과 효과적 외교로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것
- ②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것
- ③ 민주주의 확산을 증진시키는 것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외문제에 개입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구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지구적 힘의 통합을 이룩하고 현존하는 안전, 경제, 정치적 구조를

세편하고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확대시키기에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며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금세기의 끝을 맞이하면서 거의 50년간 세계를 분할시켰던 장벽이 무너졌다. 우리의 책임은 미국적 가치와 이익을 지속하면서도 현실에 기초를 둔 건설의 시기로 시작함으로써 다가올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음세기로 나아가는데 있어 미국과 세계를 인도할 도구와 이해라는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데 있어, 다음의 전략 우선순위는 우리의 중심적인 국가안보목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평화롭고 통합되고 민주적인 유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유럽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때, 미국은 좀더 안전하다. 유럽이 변형하면 미국도 그러하다.

둘째, 미국은 대서양 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도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4년간 안정되고, 변형된 아태지역을 창조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세안 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변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동결하고 해체시킨다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은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진전시켜야 한다.

모든지역의 경제가 APEC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 통합과 시장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눈부신 성장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중국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한다. 고립되고 내부지향적인 중국은 미국을 위해서건, 세계를 위해서건 좋은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활동적인 성원으로서는 바른 역할을 하는 중국이어야 한다.

나는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중국주석을 초청코자 하는데 이것은 미·중이 모

든 일에 합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중국에 개입하는 것이 핵실험중지와 같은 일반적 도전을 이겨내고 인권과 같은 기초적 차이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이다.

셋째, 미국사람들은 세계경제의 번영을 이룩해야만 한다. 우리는 국내에서 직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의 무역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우리의 임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지난 4년간 우리는 200개가 넘는 무역합의를 이루어냈으며, 그들 각각은 미국 생산물에 대해 좀더 광범하게 시장을 개방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다시 세계 제일의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는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러한 계기를 살려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데 실패한다면, 새로이 나타나는 경제는 그들의 경제적 미래를 다른 나라와 함께 찾을 것이며, 우리는 뒤에 처지게 될 것이다. 내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로 올해에 여행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May 1997

Protecting the security of our nation - our people, our territory and our way of life - is my foremost mission and constitutional duty. As we enter the twenty-first century, we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make our nation safer and more prosperous. Our military might is unparalleled; a dynamic global economy offers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American jobs and American investment; and the community of democratic nations is growing, enhancing the prospects for political stability,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nd greater hope for the people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 dangers we face are unprecedented in their complexity. Ethnic conflict and outlaw states threaten regional stability; terrorism, drugs, organized crime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global concern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and environmental damage and rapid population growth undermine economic prosperity and political stability in many countries.

This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603 of the 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ation Act of 1986, sets forth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 advance our national interests in this era of unique opportunities and dangers. It is premised on the belief that both our domestic strength and our leadership abroad are essential to advancing our goal of a safer, more prosperous America. Building upon America's unmatched strengths, the strategy's three core objectives are:

- \* To enhance our security with effective diplomacy and with military
- \* To bolster America's economic prosperity.
- \* To promote democracy abroad.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will remain engaged abroad and work with partners, new and old,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We can - and we must - use America's leadership to harness global forces of integration, reshape existing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and build new ones that help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our interests and values to thrive.

As we approach this century's end, the blocs and barriers that divided the world for fifty years largely have fallen away. Our responsibility is to build the world of tomorrow by embarking on a period of construction - one based on current realities but enduring American values and interests. In constructing international frameworks, institutions and understandings to guide America and the world far into the next century, the following strategic priorities advance our core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First, we must help foster a peaceful, undivided, democratic Europe. When Europe is stable and at peace, America is more secure. When Europe prospers, so does America.

NATO was created to strengthen Europe's west. Now, it can do the same for Europe's east. This summer, we will hold a special summit to continue the process of adapting our alliance to new demands while enlarging it to take in new members from among Europe's new democracies. Countries that were once our

everything, but because engaging China is the best way to work on common challenges such as ending nuclear testing - and to deal frankly with fundamental differences such as human rights.

Third, the American people must prosper in the global economy. We have made it our mission to tear down trade barriers abroad in order to create jobs at home. Over the last four years we have concluded more than 200 trade agreements, each one of which opened a foreign market more widely to American products. Today, America is again the world's number one exporter - leading in agriculture and aviation, automobiles and entertainment, semiconductors and software.

Now, we must build on that momentum, especially in Asia and Latin America. If we fail to act now, these emerging economies will find their economic future with other nations - and we will be left behind. That is why I am traveling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is year - to continue the work we began at the Summit of the Americas in Miami in building a community of democracies linked by shared values and expanding trade. We must continue to help nations embrace open markets,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advance the rule of law and we must support the World Bank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multiply our contributions to progress many times over.

Fourth, America must continue to be an unrelenting force for peace - from the Middle East to Haiti, from Northern Ireland to Central Africa. Taking reasonable risks for peace keeps us from being drawn into far more costly conflicts. It encourages other nations to focus on future hopes, not past hatreds. It creates

partners willing to seize the opportunities of a new century. The habits of peace crafted in Bosnia must take hold, helped by the NATO-led Stabilization Force that is allowing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to accelerate.

Fifth, we must continue to move strongly to counter growing dangers to our securit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international crime, drugs, illegal arms trafficking, and environmental damage. We are acting to prevent nuclear materials from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and to rid the world of antipersonnel landmines and chemical weapons. The American people are more secure because we won historic accords to end nuclear testing and to ban chemical weapons. Together with Russia, we are working to cut our nuclear arsenals by 80 percent from their Cold War height within a decade. We are working with others, with renewed intensity, to improve civil aviation security, to defeat drug traffickers and to stop terrorists before they act - and to hold them accountable if they do. We are prot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 managing our forests, stopping the spread of toxic chemicals, working to close the hole in the ozone layer, reducing the greenhouse gasses that challenge our health as they change our climate.

Finally, we must have the diplomatic and military tools to meet all these challenges. We must maintain a strong and ready military. We will achieve this by selectively increasing funding for weapons modernization and taking care of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They are doing a remarkable job for America - America must do right by them.

We must also renew our commitment to America's diplomacy - to ensure that we have the superb diplomatic representation that our people deserve and our interests demand. Every dollar we devote to preventing conflicts, promoting democracy, and stopping the spread of disease and starvation brings a sure return in security and savings. Yet international affairs spending today totals just one percent of the federal budget - a small fraction of what America invested at the start of the Cold War when we chose engagement over isolation. If America is to continue to lead the world by its own example, we must demonstrate our own commitment to these priority tasks. This is also why we must pay our debts and dues to a reforming United Nations.

Inherent in this final priority is the need to examine our overall national security posture, programs, structure and budget.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such a review is currently underway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international affairs agencies are reorganizing to confront the pressing challenges of tomorrow. We need to continue looking across our government to see if during this time of transition we are adequately preparing to meet the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of the next century.

Each of these six priorities is essential to keeping America strong, secure and prosperous and to advancing our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Our strategy requires the patient application of American will and resources. We can sustain that necessary investment only with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bipartisan support of their representatives in Congress - a bipartisanship that was clearly displayed in the recent ratification

However, in the short term, we face a major humanitarian crisis. Clearly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in severe distress. There have been numerous reports of widespread malnutrition, especially among children and the elderly. There have also been credible reports of deaths. The Government, essentially the party, runs the country's "Public Distribution System," or food dispensary. Floods, and now drought, caused the government to reduce its cereal rationing, which they announce regularly : from 350 grams to 300; from 300 to 250. Now, the average official ration is 100 grams of grains per day, less than a cupful. The average North Korean must augment this ration as best they can.

Ye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akes a reasoned response difficult. We know that there is a sever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We know that a portion of the population suffers from malnutrition. We know that livestock has been depleted in order to conserve grains. But aside from anecdotal reports, we do not know the magnitude of this man-made humanitarian crisis which could help us better ease their pain and suffering. North Korea restricts movement of foreigners. A nutritional assessment, under negotiation since early 1996 between the UN and North Korea, was finally begun a month ago. Even then, the terms and scope were unilaterally modified to preclude statistically valid sampling in the northern sections of the country. Results are just becoming available.

North Korea has been flexible enough to encourage a wide range of "coping mechanisms." They have concentrated on feeding all of their people at least a little, refusing to write off any group. They

## 나.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97.9.23)

###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평소와 같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및 주변사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일협력을 행하기 위해 견고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지침은 평소 혹은 긴급사태에 있어서 미·일 양국의 역할과 함께 협력 및 조정의 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골격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기본 전제 및 취지

지침 및 그에 따른 대치는 이하의 기본적인 전제 및 취지에 따른다.

- (1) 미·일안전보장 조약 및 관련 협력에 기초한 권리·의무는 물론 미·일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경되지 않는다.
- (2) 일본의 모든 행위는 일본의 헌법상 제약의 범위내에서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의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행해진다.
- (3) 미·일양국의 모든 행위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평등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연합헌장을 비롯한 국제적 약속에 합치될 것이다.
- (4) 지침 및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대치는 어떤 정부에도 입법상, 예산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일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태세의 구축이 지침 및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대치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일양국정부가 각각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에 적절한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기대된다. 일본의 모든 행위는 그때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내법령에 따른다.

### 3. 평시 협력

미·일양국정부는 현재의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고, 또한 각각의 방위태세 유지에 노력한다. 일본은 「방위계획 대강」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

위내에서 방위력을 유지한다. 미국은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보 유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의 전방전개 병력을 유지하고, 또한 예비병력을 보 유한다.

미·일양국정부는 각각의 정책을 기초로 하면서, 일본의 방위 및 안정된 국제 안보 환경의 구축을 위해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미·일양국정부는 평시부터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에 충실해야 한다. 이 협력에 는 미·일물품역부상호제공협정 및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등 관련 제도에 기 초한 상호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 (1)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미·일양국정부는 정확한 정보 및 분석이 안전보장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 고, 아태지역의 정세를 중심으로 쌍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방위정책 및 군사태세에 대해서 의 긴밀한 협의를 유지한다.

이러한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미·일안보협의회 및 미·일안보 고위급 협의 (SSC)를 포함한 모든 기회를 활용, 가능한한 광범위한 차원 및 분야에서 행한다.

#### (2) 안보면에서의 각종 협력

안보면에서의 지역적·지구적 규모의 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일협력은 보다 안정된 국제적 안보환경의 구축에 기여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이 지역에 있어서 안보대화·방위교류 및 국제적인 군비관 리·군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을 촉진함과 함께 필요에 따 라 협력한다.

미·일 어느쪽이든 정부 또는 양국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또는 인도적 인 국제구원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필요에 따라 상호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수송, 위생, 정보교환,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수단을 준비한다.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 양국 중 어느 정부 또는 양국정부가 관계 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요청에 응해 긴급구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필요에 따라 긴밀히 협력한다.

### (3) 미·일 공동대처

미·일양국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작전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주변사태시 상호협력 계획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공동작전을 행한다.

이러한 노력은 쌍방 관계기관의 합의하에서 행하며, 미·일협력의 기초를 구축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검토함과 동시에, 자위대 및 미군을 시작으로 하는 미·일양국의 공적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공동연습·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긴급사태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운용되는 미·일간 조정메커니즘을 평시에 구축해 둔다.

## 4.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대처행동 등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의 공동대처 행동 등은 계속해서 미·일방위협력의 중핵적 요소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할 경우 미·일양국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일본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공동대처하고 이를 조기에 배제한다.

### (1)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한 경우

미·일양국정부는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강화하며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

준 운용을 빠른 시일내에 개시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적절히 협력을 하고 합의에 의한 준비단계에 따라, 조정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한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주변사태의 추이에 의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방위를 위한 준비와 주변사태에의 대응 또는 그것을 위한 준비에 유의한다.

## (2)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 (a) 일관성을 가진 공동대처 행동을 위한 기본방침

- 1) 일본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조기에 이것을 배제한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히 협력한다. 이러한 미·일협력은 무력공격의 규모, 양태, 사태추이 등의 요소에 의해 다르게 되지만, 이것에는 일관성을 가진 공동의 작전실시 및 이를 위한 준비,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경계감시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 2) 자위대 및 미군이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쌍방은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각각의 방위력을 운용한다. 그때 쌍방은 각각의 육·해·공군의 효과적인 통합운용을 이룬다. 자위대는 주로 일본의 영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방위태세 작전을 행하고 미군은 자위대가 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미군은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작전을 실

시한다.

- 3) 미국은 병력을 적시에 지원하고, 일본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유지한다.

(b) 작전구상

- 1) 일본에 대한 항공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미군은, 자위대 및 일본에 대한 항공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방공을 위한 작전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자위대가 하는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타격력의 사용을 동반하는 등의 작전을 포함,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 2) 일본 주변지역의 방위 및 해상교통 보호를 위한 작전 미군 및 자위대는 일본 주변지역의 방위를 위한 작전 및 해상교통 보호를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일본의 중요한 항만 및 해협의 방비,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 선박의 보호 등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의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동타격력의 사용을 동반하는 등의 작전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 3) 일본에 대한 상륙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자위대 및 미군은 일본에 대한 상륙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일본에 대한 상륙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주로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그때 미군은 침공의 규모, 양태, 기타요소에 따라 조기에 병력을 원조하고 자위대가 행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 4) 그외의 위협에 대한 대응

- ① 자위대는 게릴라 공격 등 일본영역에 군사력을 잠입시켜 행하는 비정규적 공격을 조기에 저지·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그러한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조정함과 동시에 사태에 따라 미

군의 적절한 지원을 얻는다.

- ② 자위대 및 미군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조정한다. 미군은 일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타격력을 가진 부대의 사용을 고려한다.

(c) 작전관련 제반활동 및 필요사항

1) 지휘 및 조정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하에 각자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한다. 자위대 및 미군은 효과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분담의 결정, 작전수행의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절차를 미리 정해둔다.

2) 미·일간 조정 메커니즘

미·일양국 관계기관간의 조정은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한다. 자위대 및 미군은 효과적인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작전·정보 활동 및 후방지원에 대해 미·일공동 조정소의 활용 등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긴밀히 조정한다.

3) 전신전자 활동

미·일양국정부는 전신전자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지원한다.

4) 정보 활동

미·일양국정부는 효과적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활동에 대해서 협력한다. 여기에서 정보요구, 수집·처리 및 배포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미·일양국정부는 공유한 정보보존에 관해 각각 책임을 진다.

5) 후방지원 활동

자위대 및 미군은 미·일간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후방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각각의 능력 부족을 징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및 능력과 민간이 가진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호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배려한다.

① 보급

미국은 미국제 장비품 등 보급품의 취득을 지원하고 일본은 일본국내에 서의 있어서 보급품 획득을 지원한다.

② 수송

미·일양국정부는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보급품의 항공수송 및 해상수송 을 포함한 수송활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③ 정비

일본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미군의 장비품 및 정비를 지원하고, 미국은 미국제 물품의 정비로 일본의 정비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 원을 한다.

정비지원에는 필요에 따라 정비요원의 기술지도를 포함한다. 또한 일본 은 인양 및 회수에 관한 미군의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

④ 시설

일본은 필요에 따라 미·일안전보장조약 및 관련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시설·구역을 제공한다. 또한 작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위대 및 미군은 동조약 및 관련 결정에 따라 자위 대의 시설 및 미군의 시설·구역의 공동사용을 실시한다.

⑤ 위생

미·일양국정부는 위생분야에 있어서 부상자의 치료 및 후송 등의 상호 지원을 한다.

**5.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 향을 줄 경우(주변사태)의 협력**

주변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이다. 주변사태 의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것이다. 미·일양국정

부는 주변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미·일양국정부는 개개사태의 상황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에 도달한 경우에 각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주변사태에 대응할 때 취하는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1) 주변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그 사태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강화한다.

동시에 미·일양국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교상의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미·일공동조정소의 활용을 포함해 미·일간의 조정메커니즘 운용을 조기에 개시한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적절한 협력을 계속하고 합의에 의해 선택된 준비단계에 따라 일관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즉응태세를 강화한다.

### (2) 주변사태에의 대응

주변사태시, 미·일양국정부는 사태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상기2에 기재된 기본적 전제 및 취지에 따라 또한 각각의 판단에 기초하여 취한다. 미·일양국정부는 적절한 결정에 따라서 필요에 응해 상호지원을 행한다. 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능 및 분야 그리고 협력항목은 이하에 정리하고 별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 (a) 미·일양국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협력

미·일양국정부는 이하의 활동을 각각의 판단하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일간의 협력은 그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1) 구원활동 및 피난민에의 대응 대한 위한 조치

미·일양국정부는 피해자의 현지당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으면서 구원활동을 한다. 미·일양국정부는 각각의 능력을 감안,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

미·일양국정부는 피난민의 취급에 대해,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 피난민이 일본의 영역에 유입해 올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대응의 방침을 결정하는 등 주로 일본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미국은 적절한 지원을 한다.

### (2) 수색·구난

미·일양국정부는 수색·구난활동에 대해서 협력한다. 일본은 일본 영역 및 전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는 구분되는 일본의 주위 해역에 있어서 수색·구난활동을 실시한다. 미국은 미국이 활동하고 있을 때 활동구역내 또는 그 부근에서의 수색·구난활동을 실시한다.

### (3) 비전투원을 피난시키기 위한 활동

일본국민 또는 미국국민인 비전투원을 제3국의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시킬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자국국민의 피난 및 현지당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미·일양국정부는 각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자 지닌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서, 운송수단의 확보, 운송 및 시설의 사용에 관계된 것을 포함, 비전투원의 피난에 관해, 계획 조정 및 협력한다.

일본국민 또는 미국국민 이외의 비전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일양국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 대해 피난과 관계된 원조를 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4) 국제평화와 안정유지를 목적으로하는 경제제재의 실효성 확보 활동

미·일양국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정유지를 목적으로하는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활동한다. 또한 미·일양국정부는 각자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정보교환 및 국제연합 안보리결의에 기초하여 선박의 검사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 (b)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 (1) 시설의 사용

미·일안보조약 및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일본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시설·구역을 적시에 설치하고 미군에 의한 자위대시설 및 민간항공·항만의 일시적 사용을 확보한다.

### (2) 후방지원지역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지원을 한다. 후방지역지원은 미군이 시설의 사용 및 여러 종류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그러한 성질에서부터 후방지역지원은 주로 일본의 영역에서 하지만, 전투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 (c) 운용면에서의 미·일협력

주변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대는 생명·재산의 보호 및 항행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정보수집·경계감시·기뢰제거 등 활동을 한다. 미군은 주변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은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활동을 한다.

자위대 및 미군 쌍방활동의 실효성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은 협력 및 조정에 의해 크게 높아질 것이다.

## 6. 지침하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방위협력을 위한 미·일공동 대처

지침하에서 미·일방위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평시 일본에 대한 무



력공격 및 주변사태라고 하는 안보상의 각종 상황을 통해 미·일양국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일방위협력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쌍방이 여러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으며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미·일양국정부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 및 미·일안보고위급협의를 포함한 모든 기회를 통하여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충실히 해가는 한편, 협의의 촉진, 정책조정 및 작전·활동분야의 조정을 위해 다음의 2가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우선 미·일양국정부는 계획검토와 아울러 공통기준 및 실시요령 등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자위대 및 미군 뿐만 아니라 각국의 관련기관도 관계한다. 미·일양국정부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의 방향을 필요에 따라 개선한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하는 작업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는 방침을 제시하고 작업의 진척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책임을 가린다. 방위협력소위원회는 공동작업에 있어 미·일안보협의 위원회를 보좌한다.

둘째로 미·일양국정부는 긴급사태 발생시 각각의 활동에 관한 조정을 행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을 포함한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평시에 구축해둔다.

#### (1)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공통기준, 실시요령 확립을 위한 공동작업

쌍방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구축된 포괄적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아래에 열거하는 공동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의 추진 및 결과는 각 항목마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 및 방위협력 소위원회에 대해 보고된다.

공동작전계획에 대해 검토 및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는 그 결과가 미·일양국정부의 각각의 계획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전제하에서 각종 상황을 상정해서 행해진다.

미·일양국정부는 실제상황에 비추어 미·일양국의 계획을 조정한다. 미·일양국정부는 공동작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상호협력계획에 대한 검토에 대한 조정을 위해 유의하는 것에 의해 주변사태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파급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양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a) 준비를 위한 공통기준의 확립

미·일양국정부는 일본의 방위를 위한 준비에 관해 공통기준을 평시부터 확립한다. 이 기준은 각각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정보활동, 부대활동, 이동, 후방지원 등의 사항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 충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공통의 준비단계가 선택되고, 이것이 자위대, 미군 그외의 관계기관에 의한 일본의 방위를 위한 준비단계에 반영된다.

이와 동시에 미·일양국정부는 주변사태에 있어서의 협력조치의 준비에 관해서도 합의에 의해 공통의 준비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통의 기준을 확립한다.

#### (b) 공통의 실시요령 등의 확립

미·일양국정부는 자위대 및 미군이 일본의 방위를 위한 일관성 있는 작전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통의 실시요령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여기에는 통신, 목표위치의 전달, 정보활동 및 후방지원 등 각각의 부대활동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자위대 및 미군은 통신·전자활동 등에 관한 상호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둔다.

### (2) 미·일간의 조정 메커니즘

미·일양국정부는 미·일양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미·일간 조정메커니즘을 평시에 구축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및 주변사태시 각각의 행동간의 조정을 한다. 조정요령은 조정해야 할 사항 및 협조기관에 따라 다르다. 조정요령

에는 조정회의의 개최, 연락원의 상호파견 및 연락창구의 지정이 포함된다. 자위대 및 미군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의 일환으로서, 쌍방활동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공동조정소를 평시에 준비해 둔다.

## 7. 지침의 적시적이고 적절한 개정

미·일안보관계에 관련한 제사정에 변화가 발생하고 그때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일양국정부는 적시적이고 적절한 형태로 지침을 개정한다.

##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 I. THE AIM OF THE GUIDELINES

The aim of these Guidelines is to create a solid basis for more effective and credible U.S.-Japan cooperation under normal circumstances, in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nd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e Guidelines also provide a general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roles and miss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ways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oth under normal circumstances and during contingencies.

### II. BASIC PREMISES AND PRINCIPLES

The Guidelines and programs under the Guidelines ar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basic premises and principles.

1.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its related arrangements, as well as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U.S.-Japan alliance, will remain unchanged.

2. Japan will conduct all its actions within the limitations of its Constitution and in accordance with such basic positions as the maintenance of its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and its three non-nuclear principles.

3. All actions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be consistent with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sovereign equality, and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The Guidelines and programs under the Guidelines will not obligate either Government to take legislative, budgetary or administrative measures. However, since the objective of the Guidelines and programs under the Guidelines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framework for bilateral cooperation, the two Governments are expected to reflect in an appropriate way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based on their own judgments, in their specific policies and measures. All actions taken by Japan will be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then in effect.

### **III. COOPERATION UNDER NORMAL CIRCUMSTANCES**

Both Governments will firmly maintain existing U.S.-Japan security arrangements. Each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to maintain required defense postures. Japan will possess defense capabil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self-defense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In order to meet its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its nuclear deterrent capability, its forward deployed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other forces capable of reinforcing those forward deployed forces.

Both Governments, based on their respective policies, under normal circumstances will maintain close cooperation for the defense of Japan as well as for the creation of a more stabl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Both Governments will under normal circumstances enhance

cooperation in a variety of areas. Examples include mutual support activities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Reciprocal Provision of Logistic Support, Supplies and Services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and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nd their related arrangements.

## 1.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Consultations

Recognizing that accurate information and sound analysis are at the foundation of security, the two Governments will increas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the exchange of views on international situations of mutual interest,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y will also continue close consultations on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postures.

Such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consultations will be conducted at as many levels as possible and on the broadest range of subjects.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taking advantage of all available opportunities, such as SCC and Security Sub-Committee (SSC) meetings.

## 2. Various Types of Security Cooperation

Bilateral cooperation to promote regional and global activities in the field of security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a more stabl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security dialogues

and defense exchanges in the region, as well as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the two Governments will promote such activities and cooperate as necessary.

When either or both Governments participate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the two sides will cooperate closely for mutual support as necessary. They will prepare procedures for cooperation in such areas as transportation, medic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education and training.

When either or both Governments conduct emergency relief operations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governments concerned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wake of large-scale disasters, they will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as necessary.

### 3. Bilateral Programs

Both Governments will conduct bilateral work, including bilateral defense planning in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nd mutual cooperation planning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uch efforts will be made in a comprehensive mechanism involving relevant agencies of the respective Governments, and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b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exercises and training will be enhanced in order not only to validate such bilateral work but also to enable smooth and effective responses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 of both countries, starting with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The two Governments will under normal circumstances establish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involving relevant agencies to be operated

during contingencies.

#### **IV. ACTIONS IN RESPONSE 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Bilateral actions in response 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remain a core aspect of U.S.-Japan defense cooperation.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is imminent, the two Governments will take step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and make preparations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Japan.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takes place, the two Governments will conduct appropriate bilateral actions to repel it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 **1.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is Imminent**

The two Governments will intensify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policy consultations, and initiate at an early stage the operation of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Cooperation as appropriate, they will make preparations necessary for ensuring coordinated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adiness stage selected by mutual agreement. Japan will establish and maintain the basis for U.S. reinforcements. As circumstances change, the two Governments will also increase intelligence gathering and surveillance, and will prepare to respond to activities which could develop in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The two Governments will make every effort, including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Recognizing that a situation in areas surrounding Japan may



develop in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the two Governments will be mindful of the close interrelationship of the two requirements: preparations for the defense of Japan and responses to or preparations for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 2.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Takes Place

### (1) Principles for Coordinated Bilateral Actions

(a) Japan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immediately to take action and to repel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s soon as possible.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appropriate support to Japan. Such bilateral coopera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scale, type, phase, and other factors of the armed attack. This cooperation may include preparations for and execution of coordinated bilateral operations, step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sharing.

(b) In conducting bilateral operations,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employ their respective defense capabilities in a coordinated, timely, and effective manner. In doing this, they will conduct effective joint operations of their respective ForcesAE ground, maritime and air services. The Self-Defense Forces will primarily conduct defensive operations in Japanese territory and its surrounding waters and airspace, while U.S. Forces support Self-Defense ForcesAE operations. U.S. Forces will also conduct operations to supplement the capabil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c) The United States will introduce reinforcements in a timely

manner, and Japan will establish and maintain the basis to facilitate these deployments.

## (2) Concept of Operations

### (a) Operations to Counter Air Attack against Japan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ilaterally conduct operations to counter air attack against Japan.

The Self-Defense Forces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operations for air defense.

U.S. forces will support Self-Defense ForcesAE operations and conduct operations, including those which may involve the use of strike power, to supplement the capabil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 (b) Operations to Defend Surrounding Waters and to Protect Sea Lines of Communication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ilaterally conduct operations for the defense of surrounding waters and for the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The Self-Defense Forces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major ports and straits in Japan, for the protection of ships in surrounding waters, and for other operations.

U.S. Forces will support Self-Defense ForcesAE operations and conduct operations, including those which may provide additional mobility and strike power, to supplement the capabil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c) Operations to counter Airborne and Seaborne Invasions of Japan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ilaterally conduct operations to counter airborne and seaborne invasions of Japan.

The Self-Defense Forces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operations to check and repel such invasions.

U.S. Forces will primarily conduct operations to supplement the capabil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The United States will introduce reinforcements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according to the scale, type, and other factors of the invasion, and will support Self-Defense Forces operations.

(d) Responses to Other Threats

(i) The Self-Defense Forces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check and repel guerrilla-commando type attacks or any other unconventional attacks involving military infiltration in Japanese territory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They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closely with relevant agencies, and will be supported in appropriate ways by U.S. Forc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i)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closely to respond to a ballistic missile attack. U.S. Forces will provide Japan with necessary intelligence, and consider, as necessary, the use of forces providing additional strike power.

(3) Activities and Requirements for Operations

(a) Command and Coordination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in close cooperation, will take action through their respective command-and-control channels. To conduct effective bilateral operations, the two Forces will establish, in advance, procedures which include those to determine the division of roles and missions and to synchronize their operations.

(b)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Necessary coordination among the relevant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conducted through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In order to conduct effective bilateral operations,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closely coordinate operations, intelligence activities, and logistics support through this coordination mechanism including use of a 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c)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The two Governments will provide mutual support to ensure effective use of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capabilities.

(d) Intelligence Activities

The two Governments will cooperate in intelligence activitie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bilateral operations. This will include coordination of requirements, collec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intelligence products. Each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shared intelligence.

(e) Logistics Support Activities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conduct logistics support activities efficiently an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bilateral arrangemen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gistics and to alleviate functional shortfalls, the two Governments will undertake mutual support activities, making appropriate use of authorities and asse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private sector assets.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following points in conducting such activities:

(i) Supply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the acquisition of supplies for systems of U.S. origin while Japan will support the acquisition of supplies in Japan.

(ii) Transportation

The two Governments will closely cooperate in transportation operations, including airlift and sealift of supplies from the United States to Japan.

(iii) Maintenance

Japan will support the maintenance of U.S. ForcesAE equipment in Japan;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the maintenance of items of U.S. origin which are beyond Japanese maintenance capabilities. Maintenance support will include the technical training of maintenance personnel as required. Japan will also support U.S.

Forces' requirement for salvage and recovery.

(iv) Facilities

Japan will, in case of need, provide additional facilities an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its related arrangements. If necessary for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s,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make joint use of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facilities an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and its related arrangements.

(v) Medical Services

The two Governments will support each other in the area of medical services such as medical treatment and transportation of casualties.

**V. COOPERATION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AT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JAPAN'S PEACE AND SECURITY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Japan's peace and security. The concept,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is not geographic but situational. The two Governments will make every effort, including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such situations from occurring. When the two Governments reach a common assessment of the state of each situation, they will effectively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responding to such situations, measures taken may differ depending on circumstances.

## 1. When a Situation in Areas Surrounding Japan is Anticipated

When a situation in areas surrounding Japan is anticipated, the two Governments will intensify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policy consultations, including efforts to reach a common assessment of the situation.

At the same time, they will make every effort, including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while initiating at an early stage the operation of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including use of a 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Cooperation as appropriate, they will make preparations necessary for ensuring coordinated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adiness stage selected by mutual agreement. As circumstances change, they will also increase intelligence gathering and surveillance, and enhance their readiness to respond to the circumstance.

## 2. Responses to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e two Governments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include preventing further deterioration of situations, in response to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is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emises and principles listed in Section II above and based on their respective decisions. They will support each other a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arrangements.

Functions and fields of cooperation and examples of items of cooperation are outlined below, and listed in the Annex.

## (1) Cooperation in Activities Initiated by Either Government

Although either Government may conduct the following activities at its own discretion, bilateral cooperation will enhance their effectiveness.

### (a) Relief Activities and Measures to Deal with Refugees

Each Government will conduct relief activities with the consent and cooperation of the authorities in the affected area. The two Governments will cooperate as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capabilities.

The two Governments will cooperate in dealing with refugees as necessary. When there is a flow of refugees into Japanese territory, Japan will decide how to respond and wi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the flow;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appropriate support.

### (b) Search and Rescue

The two Governments will cooperate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Japan will conduc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Japanese territory; and at sea around Japan, as distinguished from areas where combat operations are being conducted. When U.S. Forces are conducting oper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duc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and near the operational areas.

### (c)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When the need arises for U.S. and Japanese noncombatants to be



evacuated from a third country to a safe haven, each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evacuating its own nationals as well as for dealing with the authorities of the affected area. In instances in which each decides it is appropriate, the two Governments will coordinate in planning and cooperate in carrying out their evacuations, including for the securing of transportation means, transportation and the use of facilities, using their respective capabilities in a mutually supplementary manner. If similar need arises for noncombatants other than of U.S. or Japanese nationality, the respective countries may consider extending, on their respective terms, evacuation assistance to third country nationals.

(d) Activitie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Each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activitie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Such contributions wi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each Government's own criteria.

Additionally, the two Government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their respective capabilities. Such cooperation includes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in inspection of ships based o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 Japan's Support for U.S. Forces Activities

(a) Use of Facilities

Based on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its related arrangements Japan will, in case of need, provide additional facilities and areas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and ensure the temporary use by U.S. Forces of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civilian airports and ports.

(b) Rear Area Support

Japan will provide rear area support to those U.S. Forces that are conducting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The primary aim of this rear area support is to enable U.S. Forces to use facilities and conduct operations in an effective manner. By its very nature, Japan's rear area support will be provided primarily in Japanese territory. It may also be provided on the high seas and international airspace around Japan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reas where combat operations are being conducted.

In providing rear area support, Japan will make appropriate use of authorities and asse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private sector assets. The Self-Defense Forces, as appropriate, will provide such support consistent with their mission for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3) U.S.-Japan Operational Cooperation

As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Japan's peace and security, the Self-Defense Forces will conduct such activities as intelligence gathering, surveillance

and minesweeping,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and to ensure navigational safety. U.S. Forces will conduct operations to restore the peace and security affected by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With the involvement of relevant agenci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ll significant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oth ForcesAE activities.

## **VI. BILATERAL PROGRAMS FOR EFFECTIVE DEFENSE COOPERATION UNDER THE GUIDELINES**

Effective b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Guidelines will requi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conduct consultative dialogue throughout the spectrum of security conditions: normal circumstances,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nd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Both sides must be well informed and coordinate at multiple levels to ensure successful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To accomplish this, the two Governments will strengthen their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policy consultations by taking advantage of all available opportunities, including SCC and SSC meetings, and they will establish the following two mechanisms to facilitate consultations, coordinate policies, and coordinate operational functions.

First, the two Governments will develop a comprehensive mechanism for bilateral plan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involving not only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but also other relevant agencie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he two Governments will, as necessary, improve this comprehensive mechanism. The SCC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presenting policy direction to the work to be conducted by this mechanism. The SCC will be responsible for presenting directions, validating the progress of work, and issuing directives as necessary. The SDC will assist the SCC in bilateral work.

Second, the two Governments will also establish, under normal circumstances,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that will include relevant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for coordinating respective activities during contingencies.

#### 1. Bilateral Work for Plan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Bilateral work listed below will be conducted in a comprehensive mechanism involving relevant agencies of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 a deliberate and efficient manner. Progress and results of such work will be reported at significant milestones to the SCC and the SDC.

##### (1) Bilateral Defense Planning and Mutual Cooperation Planning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conduct bilateral defense planning under normal circumstances to take coordinated actions smoothly and effectively in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The two Governments will conduct mutual cooperation planning under normal circumstances to be able to respond smoothly and effectively to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Bilateral defense planning and mutual cooperation planning will assume various possible situations, with the expectation that results of these efforts will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plans of the two Governments. The two Governments will coordinate and adjust their plans in light of actual circumstances. The two Governments will be mindful that bilateral defense planning and mutual cooperation planning must be consistent so that appropriate responses will be ensured when a situation in areas surrounding Japan threatens to develop in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or when such a situation and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occur simultaneously.

## (2)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s for Preparations

The two Governments will establish under normal circumstances common standards for preparations for the defense of Japan. These standards will address such matters as intelligence activities, unit activities, movements and logistics support in each readiness stage.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is imminent, both Governments will agree to select a common readiness stage that will be reflected in the level of preparations for the defense of Japan by U.S. Forces, the Self-Defense Force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The two Governments will similarly establish common standards for preparations of cooperative measures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o that may select a common readiness stage by mutual agreement.

## (3) Establishment of Common Procedures

The two Governments will prepare in advance common procedures to ensure smooth and effective execution of coordinated U.S. Forces and Self-Defense Forces operations for the defense of Japan. These will include procedures for communications, transmission of target information, intelligence activities and logistics support, and prevention of fratricide. Common procedures will also include criteria for properly controlling respective unit operations. The two Forces will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interoperability, and will determine in advance their mutual requirements.

## 2.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The two Governments will establish under normal circumstances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involving relevant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to coordinate respective activities in case of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nd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Procedures for coordination will vary depending upon items to be coordinated and agencies to be involved. They may include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s, mutual dispatch of liaison officers, and designation of points of contacts. As part of such a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will prepare under normal circumstances a 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with the necessary hardware and software in order to coordinate their respective activities.

## VII. TIMELY AND APPROPRIATE REVIEW OF THE GUIDELINES

The two Governments will review the Guidelines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when changes in situations relevant to the U.S.-Japan security relationship occur and if deemed necessary in view of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 다. 한·미관계 보고서(아시아 태평양국, '97.2.10)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할 당시 한국주둔 일본군은 남쪽에서는 미군에, 북쪽에서는 소련군에 항복하게 되었다. 이후 이미 마련된 신탁통치 제안을 많은 한국인들은 반대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유엔 감시하선거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북한정권은 UN의 38도선 이북에서 선거 실시를 거부하였으며, 1948.9.9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1950.6.25 북한은 한국을 침략했다.

북한군 사령관, 중국지원군, 그리고 16개 연합군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1953.7.27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다. 비록 양국은 UNC를 통해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어떠한 포괄적 평화협정도 맺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전상태는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기술적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1954년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약 37,000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병지원군 및 여러 공군기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군과 650,000의 강력한 한국군과의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1978년 CFC가 설립되었다. CFC는 UNC와 주한미군사령관인 John Tilelli가 지휘하고 있다.

양국의 안보관계는 한국이 주둔비용에서 더 많은 분담금을 제공하고, CFC명령체계의 변화에 동의하는 등 몇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보조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 1994.1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있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전되었다.

비록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남북대화와 관계진전을 위한 약간의 노력이 보여지긴 했지만 한반도 양측간 긴장은 계속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



보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한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믿는다. 만약 양측이 바라다면 미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남북간 상호 핵사찰과 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가을까지 남북간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1992년 IAEA조항에 동의했으나 그후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인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북은 1993년 봄 양자대화를 시작했고 그결과 1994.10.21 제네바에서 양국대표사이에 서명한 기본합의가 채택되었다. 이 기본합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흑연감속으로 계획을 동결하도록 하였다. 이의 댓가로 북한은 초기에는 중유의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2기의 경수로라는 대체에너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합의는 또한 미북간의 점진적인 관계개선조항과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합의에 서명한 이후 수주일후 김대통령은 북한과 사업기회를 바라는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비록 북한은 한국의 공식적 제의는 계속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 접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과 김 대통령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4자회담(한국, 미국, 북한, 중국) 제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그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역과 투자

지난 30년간, 한국은 거대한 군사비를 유지할 필요성(1995년 정부예산의 15%에 달하는 방위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단지 한세대전만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미국의 7번째 무역파트너이고 세계에서 11번째 경제규모이다. 21세기가 다가오는 현재 한국의 계속된 경제성장 전망은 아직도 밝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역은 한미관계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수지 균형은 최근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섬으로써 한국에서는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또한 1994년이래로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원화 가치의 변동, 주요생산물의 국제적 수요 둔화, 누적된 임금인상 그리고 특히 자본설비 강한 내수시장 등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확대된 시장에 더욱 접근하려고 하며 미국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려 한다. 비록 그들은 한국의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긴 하지만, 김대통령의 경제 개혁계획은 좀더 많은 자유시장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더많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장기적 성장 전망이 밝은 반면,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풍요에 대한 내외의 많은 도전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의 많은 부분은 수출지향적 시장모델에 대한 강한 집착을 통해 이룩되었다. 오늘날 국가는 반드시 GATT와 WTO에 의해 이룩된 증가된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역할을 재규정해야만 한다. 비록 관세율이 인하되었지만 외국상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개방의 중요한 진전에 장애가 되는 무역장벽들은 남아있다.

내부적으로 한국은 저임금-저기술 생산에서 고임금-고기술 산업화로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공은 김 대통령의 민주화·개혁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오랜 정부주도 성장에서 탈피를 통해, 김대통령은 장래에도 성장과 번영의 지속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철폐와 시장기능의 중대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의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복잡한 경제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세계 경제기구들에서 무역대국의 지위에 알맞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계속 추구하고 절심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2월, 한국은 OECD의 회원이 되었다. 한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정치·경제적 활동에서의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등 경제적 성과에 맞는(한국은 APEC의 창립멤버임) 그 지역과 세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Fact sheet released by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February 10, 1997.

When Japan surrendered at the end of World War II, it was agreed that Japanese troops in Korea would surrender to U.S. forces in the south and to Soviet forces in the north. Subsequent proposals to implement a previously planned trusteeship for Korea were resisted by many Koreans.

On August 15, 1948,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established in the south following UN-observed elections. Northern Korean authorities refused to allow the UN to carry out elections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on September 9, 194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On June 25, 1950, North Korea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Hostilities continued until July 27, 1953, when the military commanders of the North Korean Army,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the 16-member-nation UN Command (UNC) signed an armistice agreemen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South Korea is a signatory of the armistice, though both adhere to it through the UNC. No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has replaced the 1953 armistice pact; thus, a condition of belligerency still technically exists on the divided peninsula.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in the 1954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o help the Republic of Korea defend itself from external aggression. In support of this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currently maintains about 37,000 service personnel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Army's Second Infantry Division and several Air Force tactical squadrons. To coordinate operations between these units and the 650,000-strong South Korean armed forces, a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as established in 1978. The CFC is headed by Gen. John Tilelli, who also serves as commander in chief of the UNC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Several aspects of the security relationship are changing as the U.S. moves from a leading to a supporting role in the defense of the R.O.K.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a larger portion of USFK's stationing costs and to promote changes in the CFC command structure. On December 1, 1994,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over all South Korean military units then still under U.S. operational control was transferred to the R.O.K. Armed Forces.

Throughout the postwar period, tensions have continued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s, although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saw some efforts to promote North-South dialogue and better relations.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the question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for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 decide. The U.S. is prepared to assist in this process if the two sides desire.

A 1991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lled for a North Korean-South Korean bilateral nuclear inspection and verification regime. Little progress, however, was made between North and South by fall 1992. Meanwhile, the North

agreed in 1992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but then refused certain inspections and threatened to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is brought North-South progress to an abrupt halt.

The U.S. and D.P.R.K. began bilateral talks in spring 1993, which resulted in a framework agreement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both nations in Geneva on October 21, 1994. This Agreed Framework commits North Korea to freeze its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hich could be used to produce plutonium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return, the D.P.R.K. will receive alternative energy, initially in the form of heavy fuel oil, and eventually two proliferation-resistant lightwater reactors (LWR).

The agreement also includes provisions for gradual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commits North Korea to engage in South-North dialogue. A few weeks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President Kim Young Sam loosened restrictions on South Korean firms desiring to pursue business opportunities with the North. Although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refuse official overtures by the South, economic contacts appear to be expanding gradually.

In April 1996, President Clinton and R.O.K. President Kim announced a proposal for four-party talks (the U.S., R.O.K., D.P.R.K., and China)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mechanism to replace the 1953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 has said that it is considering the proposal.

## Trade and Investment

Over the past 30 years,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spectacular, despite the need to maintain a large military (defense expenditures for 1995 accounted for 15% of the government's budget).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only a generation ago, is now the United States' seventh-largest trading partner and has the 11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s South Korea approaches the 21st century, its prospects for continued economic success remain strong.

As South Korea's economy has developed, trade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the U.S.-South Korean relationship.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at a rapid pace, but South Korea's balance of trade and current account have recently switched from surplus to deficit, giving rise to some concern in Korea about its fa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uth Korea has also run a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1994. Fluctuations in the value of the South Korean won, slowing worldwide demand for key products, cumulative wage increases, and strong domestic demand, especially for capital equipment, have all contributed to this phenomenon.

The U.S. seeks to improve access to South Korea's expanding market and increas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American business. Although they have met with resistance from within the South Korean bureaucracy, President Kim's economic reform plans mark a dramatic endorsement of a more liberal, market-based economic system.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a high priority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While prospects for long-term growth remain bright, there are several challenges-external and internal-to South Korea's continued economic ascendancy and prosperity. Historically, much of South Korea's prosperity was achieved through strict adherence to an export-driven market model. Today, the country must redefine its role in an environment of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lthough tariff rates have been reduced, other trade barriers continue to impede significant progress in opening the South Korean market to foreign products.

Internally, the country is seeking to transform itself from a low wage/low technology producer to a high wage/high technology industrialized nation. The success of this transformation hinges to a great degree on the political success of President Kim's programs of democratization and reform. Departing from a long history of government-led growth, President Kim favors a policy of deregulation and greater reliance on market mechanisms in order to ensure continued growth and prosperity in the future.

South Korean leaders appear determined to manage successfully the complex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continue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fora as befits Korea's status as a major trading nation. In December 1996, South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outh Korea seeks to build on its economic accomplishments to increase its regional and



global role, including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in politic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Pacific Rim; the country is a founding member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Principal U.S. Officials

Charge d'Affaires-Richard A. Christenson

Counselor for Political Affairs-James Whitlock

Counselor for Economic Affairs-Kevin Honan (Acting)

Consul General-Kathryn Dee Robinson

Counselor for Commercial Affairs-Jerry Mitchell

Commander in Chief, UNC-Gen. John Tilelli

## 2. 행정부인사의 청문회증언

## 가. S. Roth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상원 인준청문회 (’97.7.22)

우선 여러분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기탄없고, 협조적이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태 안보담당 차관보로 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993-1995년간 동아태 안보담당 부차관보로서 그리고 대통령 특별보좌관, NSC의 아시아문제 국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맡아야 했던 중책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올브라이트장관이 나에게 준 신임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힘을 다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만약 내가 인준이 된다면, 의회와 긴밀히 논의 하려고 하는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잘 알다시피, 나는 14년간 솔라즈의원의 참모로서, 그리고 아태소위원회 보좌관 등 의회 보좌관으로 일해왔다. 또한 하원 외교문제위원회 의장이던 Lee Hamilton의원과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본인의 직업인생에 있어서 분에 넘치는 기간이었으며, 거기에서 얻은 여러 기관의 호의에 감사드리고 있다. 본인은 우리 정부의 행정적 분야와 입법적 분야와 같이 특히 눈에 띄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진실된 조언을 할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회생활을 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이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등과 긴밀히 일할 것이라는 나의 선언을 단지 방만한 약속으로서가 아니고 명백한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 태평양 지역

이 자리에서 왜 아시아 태평양이 미국의 복지에 중요한가 하는데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강하고 풍요한 나라로 남아 21세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면, 이 지역의 확대되는 경제력, 증대되는 외교적 지위, 싹트는 군사력으로 인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긴박하게 되었다.

아태지역에 있어 미국 정책의 기본은 "힘의 분배, 부의 분배, 가치의 분배"에 기초한 태평양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에서 끌어낼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이 지역에 있어 비정부정책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아태평화와 안보유지, ②자유무역, 투자와 경제분야에서의 기초적 역할 창조를 통한 경제적 성장 달성, ③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신장의 발전을 고무하는 것.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는 광범한 지역에 우리의 군사적 전진배치를 유지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그리고 타이 등의 주요 안보동맹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하였다. 기본합의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계획을 동결시켰고, 위협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우리는 ARF나 NACD와 같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 안보태세를 다졌다. 또한 확산, 테러, 범죄, 불법적인 마약, 이민, 안구과잉 그리고 환경악화 등 안보관련사태 발생에 대해 집단적 제안을 지지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POW/MIA를 찾는 쌍부적 문제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노력하였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정책의 기초로 APEC을 구성하여 선진국가에 대하여는 2010년, 발전도상국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자유무역과 투자라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APEC의 사업은 WTO체제하에서 믿을 수 있고 공정한 세계 무역체제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 시장을 열기 위하여 아시아무역상대국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설득했을 뿐 아니라 공평한 기초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으며 모두를 위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도 의욕적으로 노력하였다. 사적영역이 이 지역에서 미래통합을 위한 추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가 사업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훌륭한 정부, 열린사회, 그리고 법치주의 발전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지역안정의 기초이다. 또한 인권의 최선의 방호자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출발한 인간존엄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한다.

요약컨대 올브라이트장관은 지난 4월 Annapolis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했다.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존재를 안정시키는 것에서 상업적 연계를 자극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 이상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등 우리의 역할을 극히 중요하다. ... 우리의 임무는 미국이익에 확실히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의 전반적 정책들과 관련하여 영원한 의미의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다음 5곳에서 가지는 핵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조건이다.

## 일본

현재 미·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밀접하며 광범하다.

주도적인 민주국가로서 또한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의 세계적, 지역적 전략,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이익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더 이상 소련의 위협은 없지만, 미국의 아시아 개입정책의 기초로서 미·일안보동맹은 탈냉전시대에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 미·일은 경제면에서 간헐적으로 알력을 일으켰고 또한 계속될 것이지만, 나는 미·일의 건전하고 협조적인 상호관계는 일본에서의 시장접근과 규제완화와 같은 긴급한 무역과 투자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23개 시장협정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기업의 이러한 성공을 볼 때 우리가 단합되어 있으면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일본과의 관계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 중국

국가안보 보좌관 Sandy Berger는 최근 연설에서 미중관계에 걸려있는 전략적 도전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음 세기가 분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협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이 앞으로 취할 정책방향에 달려 있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비공격적인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국제적 행동양식을 포용하는, 또한 국제질서 형성에 우리와 협력하는 중국의 출현은 미국의 이익이다.”

사실이건 아니건, 중국은 긍정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정책의 목표는 중국을 지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인권, 비확산, 무역에 한정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적 문제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인준된다면, 이러한 전략적 목적이 미국의 대중정책의 핵심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생산적인 미·중관계를 위해 빈약한 국내자원을 재건하는 것이다. 1997년 MFN논쟁은 낡은 양당적 합의를 백일하에 드러냈으며, 공유한 관점과 기회를 노출시켰다. 지속적이고 신중한 중국 정책을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일반적 접근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방을 이용하기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한다.

## 한국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의 수십년 된 동맹국인 한국을 기본으로 한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국전쟁 후, 매우 지속적이면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한국민들 스스로 통일을 향해 대화와 진전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적 개입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확고한 한미안보 관계는 거의 5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다. 군사적 억제력은 그러한 평화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개입, 특히 북한은 4자회담에 참석함으로써, 실익없는 대립보다는 생산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될 것이다.(중략)

Mr. Chairman, Members of the Committee :

I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testify before you today and to begin what I hope will be a candid, cooperative and continuous dialogue between us to advanc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world's most dynamic and vital region, the Asia Pacific.

I am honored by President Clinton's nomination to be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as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Senior Director for Asian Affairs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etween 1993 and 1995, I had a role - one that I am proud to have played - in implementing this Administration's overall approach toward the Asia Pacific. I therefore am keenly aware of the heavy responsibilities that I have been asked to accept, and I am grateful to the President and Secretary of State Albright for the faith they have bestowed upon me. I will do all in my power to justify their trust.

Mr. Chairman, I also come to this hearing today to pledge my intent to fully consult with the Congress, if confirmed. As many of you know, I spent fourteen years as a congressional aide - albeit on the other side of the Capitol - as a legislative staff assistant to Representative Stephen Solarz and then as a staff consultant and staff director to the Hous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I also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six months for Representative Lee Hamilton who was then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This was an extraordinary period of my professional life, and I owe a debt of gratitude to the institution for the training received and experience gained. I carry away from my House days an unwavering conviction about the need for genuine consult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our government, particularly in areas where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I hope you will consider my vow to closely work with this committee and the rest of the Congress not as an idle promise, but rather as a clear priority.

## **THE PACIFIC COMMUNITY**

I need not go into detail before this committee about why the Asia Pacific is essential to the well-being of the United States. The region's expanding economic vitality, increasing diplomatic stature and burgeoning military strength make active American engagement imperative if the U.S. is to remain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well into the 21st century.

The U.S. policy framework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derived from President Clinton's vision of a Pacific community, an ideal based on "shared strength, shared prosperity and shared values." These oft-quoted words have been the touchstone for this Administration's policy in the region and translate into actions that : 1)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f the Asia Pacific; 2) foster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creation of a level playing field for business; and 3)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promote human rights.

We have sought to fulfill these commitments in a variety of ways. In terms of security, we have reaffirmed and solidified our core security alliances with Australia, Japan,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iland, while maintaining our forward military presence region-wide. Through the Agreed Framework we have froze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et the stage for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is menacing threat.

We have strengthened our overall security posture by aggressively supporting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and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We have also backed collective proposals on emerging security concerns such as proliferation, terrorism, crime and illegal narcotics, migration, overpopul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for me personally, the search for POW/MIA's continues to be a top bilateral priority, both in South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Turning to economics, we have made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PEC) the cornerstone of our economic policy in the region and have embraced APEC's goal of free trade and investment by the year 2010 for developed countries and by 2020 for developing countries. APEC's undertakings reinforce our efforts to create a reliable and fair global trading system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e must not only continue to persistently and patiently prod our Asian trading partners to open markets for U.S.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but also work intensively with them to build markets for all on the basis of level playing fields. Since the private sector will be a driving force for future integration in the region, our focus is to concentrate on initiatives that make it easier for business to do business.

Finally, with respect to basic values, the United States remains an untiring advocate for the development of good government, open societies and the rule of law in Asia. Democracy is the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stability. It also is the best guarantor of human rights. We cannot - and will not - overlook the obligations of government to observe the core values of human dignity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ithout conceit or excuse, the United States must do what it can to help others carry on the task of promoting freedom throughout the Asia Pacific region.

To sum up, Secretary Albright succinctly characterized the nature of the U.S. purpose in Asia and the Pacific when she declared last April at the Naval Academy in Annapolis the following: "Our role there (in the Asia Pacific) is vital, from the stabilizing effects of our diplomatic and military presence, to the galvanizing impact of our commercial ties, to the transforming influence of our ideals. ... [O]ur commitment is solid because it is solidly based on American interests."

In the context of our overall policy framework, success in forging an enduring sense of community will hinge on nurturing key relationships the U.S. has in five areas of the region.

## **JAPAN**

At present, the U.S.-Japan alliance is stronger, deeper and broader than it has ever been.

As a leading democratic nation and an economic superpower, Japan continues to be central to America's global and regional strategic,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lthough there is no longer an overarching Soviet threat, I view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s the foundation of U.S. engagement in Asia, one that serves to promote stability in the region during the uncertain times of the post-Cold War world. Though we have had - and will likely continue to have - intermittent frictions on the economic front, I believe healthy and cooperati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the best way to achieve our aims on urgent trade and investment issues such as market access and deregulation in Japan. There is still much to do, but the success of U.S. business in taking advantage of our 23 market agreements with Japan shows that progress can be made if we are firm and determined.

In short, our relationship with Japan remains our most important in the Asia Pacific.

## **CHINA**

In a recent speech National Security Advisor Sandy Berger captured the essence of the strategic challenge at stake in managing U.S.-PRC relations :

"(T)he direction China takes in the years ahead will be one of

the most decisive factors that will determine whether the next century is one of conflict or cooperation.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reat power that is stable, open and nonaggressive; that embraces political pluralism and international rules of conduct; that works with us to build a secure international order - the emergence of that kind of China profoundly is in America's interest."

Whether in fact, China chooses this positive route remains to be seen. The purpose of U.S. policy is to seek to facilitate this outcome - the integration of China into reg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 even as we continue to press hard for sustained progress on policy issues where we have serious concerns, including but by no means limited to human rights, nonproliferation and trade.

If confirmed, I will endeavor to keep this strategic objective the focus of our policy toward China. A critical component will be for us to rebuild weak domestic support for productive U.S. relations with China. The 1997 MFN debate laid bare a fraying bipartisan consensus, but also revealed shared views and opportunities. A lasting and prudent China policy demands tha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jointly work to take advantage of these openings to hammer out a common approach.

## **KOREA**

The bedrock of ou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our decades old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 economic powerhouse and vibrant democracy. U.S. strategic objectives in this part of

Asia have been remarkably consistent - and successful - since the Korean War. We seek to build a durable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progress among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 U.S. efforts to realize these goals are based on strong military deterrence and diplomatic engagement. The solid U.S.-ROK security relationship has maintained the peace for nearly 50 years; military deterrence remains crucial to keeping that peace intact. Engagement, especially DPRK participation in the Four Party peace talks proposed by Presidents Clinton and Kim, offers the North its best chance to move away from fruitless confrontation to a more constructive posture.

## 나. C. Kartman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하원 동아태소위원회('97.2.26)

오늘 이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목표는 이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기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한국민 스스로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징후를 보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은 월요일 저녁 올브라이트장관을 수행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서울과 동경에서 만나고 월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미국의 대북전략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우방과 정기적이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와 한국이 긴밀히 협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러한 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한 올브라이트의 성공적 서울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김영삼대통령, 유종하 외무장관 회합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3월5일 합동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한데 대한 진전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었다. 잠시후 좀더 자세히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만, 북한문제에 개입하고 남북대화를 유도하려는 우리의 최근 성공에 대해 실감나는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994년 10월의 기본합의 협상에서 시작하여 지난 4월 「4자회담」으로 지속되었으며, 이번 봄으로 예정된 경수로의 기공식으로 이어지는 등 최근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년에 걸친 한·미간의 협조적 외교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좀더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주도권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 한·미공조에 기초한 것이다.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안보동맹은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의 중심이 된다. 북한공격을 방어하는 한·미 연합 능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위원 여

러분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거의 50년간 도전과 변화를 극복하여 왔다. 한국전의 폐허속에서 일어난 한국은 강인한 경제력으로 활기에 넘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건설하여 왔다.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국과 함께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억지에서 개입으로

한국전쟁후 수십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을 저지한다는 한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냉전의 종말은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변화시켰고 우리와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여 왔다. 우리는 우리의 억지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이 더이상 고립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을 팽팽한 대치상태에서 대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는 거의 9년간에 걸친 초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1988년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미국은 평양과 더 많은 접촉 창구를 개방하기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해왔다.

다음 단계는 남북대화가 활발했던 시기인 1992년 1월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계획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초기단계 노력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 미·북간 준고위급 접촉이 이루어 졌다.

외교면에서는 나의 좋은 친구이기도한 갈루치 대사가 1993년에 핵문제로 북한에 재개입하였을 때 더욱 가속되었다.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1994년 10월 기본합의로 북한 핵계획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북한과의 다른 외교현안도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에 개입하려는 우리의 다음 노력은 1996.4 클린턴과 김대통령이 함께 제안한 4자회담에 집중되어졌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 진전으로는 다음주 3월5일 한국 외무부와 함께 북한 대표단에게 설명하기위해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동설명회가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위한 미·중,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기본합의서 : 핵측면**

우선 기본합의와 관련해 핵문제에 관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만약 기본합의가 완전히 충족된다면 북한은 NPT체제하에 핵비확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게 될 것이며, 북한은 그러한 의무를 넘어서 현존하고 있는 핵시설 또한 제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중유형태의 대체에너지는 물론 2기의 경수로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계획의 영구적 철폐를 향한 첫 단계는 주요 현존 핵시설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동결은 1994.11월 이후 실시되고 있으며, IAEA와 우리의 기술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IAEA는 최근 핵계획에서 최종적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과 교섭에 들어갔다.

기본합의하에서 북한은 사용핵연료의 재생권리를 보류할 것이며, 대신 안전하게 저장하여 결국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료를 다른나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있는 연료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에너지부 주관하의 전문가 팀이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물질을 IAEA감시하에 저장하는 작업이 절반이상 완성되었다. 사용연료의 실질적인 봉인은 1996.4.27일 시작되어, 올해 내에 끝나기로 되어 있다. 봉인작업 완료시 사용연료는 영변에 있는 저장고에 남게 될 것이나,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나갈때까지는 IAEA의 감시하에 놓여 지게 될 것이다.

기본합의는 북한의 현재 핵계획의 철폐 및 동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며, 미국은 미국 주도하에 북한에 중유제공 및 2기의 경수로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적 콘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미국과 한국, 일본 주도로 설치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들 국가간 조정역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KEDO는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대륙, 21개국이 상으로부터 국제적 기부를 제공받고 있다.

본인은 KEDO에 4번째 집행이사국으로서 가입하기로 한 EU의 결정에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 EU의 가입으로 인해 KEDO는 명실공히 전세계적 기구로 지위가 향상되었다. EU가 5년에 걸쳐서 KEDO에 20억불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KEDO의 재정기반은 좀더 확고하게 되었다. 새로운 EU의 자금지원은, 특히 KEDO의 대북 중유지원을 보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KEDO는 중유제공에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본합의의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DO는 1995년과 1996년의 초기부족분 때문에 여전히 중유기금에 있어 부족을 겪고 있다. 우리는 다른 KEDO회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전에 건설되었던 핵시설로 생산하던 에너지 생산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유 등의 제공이 완전한 핵동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KEDO는 북한이 이 연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KEDO는 경수로의 실제적 건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또한 경수로건설을 위한 기간과 조건을 규정한 경수로제공 합의와 관련한 5개의 의정서를 협의했다. 그리고 북한의 지정된 부지에 관한 지리적, 환경적 그리고 구조적 정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북한에 6개팀의 기술진을 보냈다. 기술팀들은 미국, 일본, 한국의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7번째 팀은 3월1일 북한에 보내질 것이다. 건설을 위한 최종 준비인 착공식은 수개월 내에 이루어 질 것이

다.

경수로 계획의 진전으로 북한은 급속히 세계, 특히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경수로 계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국민이며 주계약자는 한국의 한전이다. 뉴욕에 있는 KEDO본부에서의 KEDO-북한간 계속적인 접촉과 경수로계획 준비를 위해 KEDO지원하에 한국민의 정기적인 북한 방문을 통해 이미 남북접촉은 용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경수로계획을 위한 수억달러의 건설비를 떠맡게 될것이지만, 주로 중유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계속적인 KEDO 활동지원은 이 계획의 실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 **기본합의 : 남북관계 강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하고 이를 영구히 철폐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에 있어 중요한 문제해결과 연계하여 미·북 양자관계를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변화의 속도는 북한이 기본합의에 서명한 대로 긍정적으로 더 나아갈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주장으로 기본합의에 삽입된 주요한 문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접촉에서 남북간의 접촉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강조해왔다.

이것은 [남북간의 대화] 사업의 전과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목표이긴 하지만, 약간의 진전은 달성했다. 여기에서 나는 KEDO의 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이고 실무적인 남북간 접촉에 대해 상기시키고자한다. 이러한 접촉은 경수로사업이 시작되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4자회담 합동설명회에 참석하기로 동의한 것도 이러한 목표달성의 또하나의 의미있는 진전이다.(중략)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은 최근의 흉수와 식량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정감시키기 위해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여 왔다.

최근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우리는 현금 및 의약품, 식량 등의 긴급구호지원 형태로 18,425,000달러어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부는 정치문제와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미국적 전통정신에 의거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 유엔 WFP의 2월13일 긴급 지원호소에 호응하여 1,0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쌀과 옥수수 등은 물론 고아와 산모를 위한 기초식량인 분유 지원은 북한에 있는 UN기구를 통해 배분될 것이다. 분배를 감시하는 WFP는 지정 수혜자(대부분 어린이)에게 구호물자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최근의 UN의 WFP 호소는, 비록 완전히 기부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북한의 예상 부족치의 2백만분의 5%에 간신히 미치지 된다고 한다. WFP 호소는 기금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물자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반연된 기금으로 인해 식량문제 혹은 다른 문제로 북한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한국은 6백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주축이 되는 기부를 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2월21일 호소에 2백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발표하였다. 많은 나라가 이러한 국제적 지원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 다음단계

정형적으로 볼때,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진전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한반도에서 사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가을 잠수함 침투와 북한군인의 한국영내 침범으로, 기본합의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다. 한국군 수사당국의

대규모 수색은 침입자를 추적하였지만, 잠수함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기본합의에서의 이탈을 위협하였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는 미국의 지속적 외교정책으로 인해 지난 12월 북한이 전례없이 '유감의 표현'을 함에 따라,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만약 북한이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더 많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분명히 도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 중 어떤것은 예측가능하나 어떤것은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오히려 외교적 기회를 만들어 내었고 동시에 곤란도 겪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몰락이 임박했다고는 믿지 않지만,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 상황은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 - 내부 개혁과 이웃나라와의 좀더 적극적인 접촉 - 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이 올해 후반기에 그의 부친의 직함인 주석직과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정식화 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 전망으로 북한 지도층이 그들의 전통적 고립정책과 우리와 한국 등이 원하고 있는 발전문제에 대해 검토압력을 받게 될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못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체제의 영원한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변화와 변화를 거부했을 때 기다릴 운명 사이에서 북한이 선택을 해야만할 경우, 우리는 굳이 비용과 위험을 감내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전 북한 이론가 황장엽의 망명이 미칠 영향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록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일본, 그리고 우리의 다른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고 있다. 이 바탕에는 한미안보협력과 북한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

우리는 긴장완화를 추구한다. 기본합의에 갇혀 있는 상호주의 원칙은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적 전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북한이 현재의 역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출로를 제공하고 있다.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책임있고 적절한 코스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C. Kartman :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97.2.26)

Mr. Chairman,

It is my pleasure to represent the Department of State before this Committee today. I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o discuss our policy towar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ur overall goals in this policy are to build a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key contribution to regional stability, and to facilitate progress by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Even in the past week, we have seen signs that our efforts are bearing fruit. As you may know, I returned Monday evening from Seoul and Tokyo, where I accompanied Secretary Albright in her meetings with Korean and Japanese leaders. Central to our strategy for managing North Korea is our commitment to consult regularly and closely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to ensure that our North Korea policy remains tightly coordinated. I am very pleased to note the success of the Secretary's visit to Seoul in promoting that objective.

At the top of the agenda in the Secretary's meetings with President Kim Young-Sam and Foreign Minister Yoo Jong-Ha was a discussion of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Pyongyang's agreement to sit down with the U.S. and R.O.K. on March 5 to hear our joint briefing on President Clinton and President Kim's proposal for Four Party peace talks. I

will discuss this proposal at greater length in a moment, but I wanted to cite this tangible evidence of recent success of our policies in engaging the D.P.R.K. and encouraging inter-Korean dialogue.

This latest development builds on several years of U.S.-R.O.K. cooperative diplomatic efforts, beginning with negotiation of the October 1994 Agreed Framework, continuing with the Four Party peace proposal of last April and extending forward to the groundbreaking for the light-water reactor (LWR) project in North Korea scheduled for this spring. In a broader sense, of course, these initiatives are rooted in the U.S.-R.O.K. alliance, which has ensure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Korean war.

In this longer term perspective, our security alliance with South Korea remains at the heart of our policy on the Peninsula. Our joint ability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is stronger than ever. As members of this Committee know well, the U.S.-R.O.K. alliance has weathered nearly five decades of challenges and change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merged from the Korean war in ruins, has built itself into a vibrant democracy with a robust economy.

The U.S. is rightly proud of the role we have played in this process by ensuring the security of our ally. We are also convinced that our efforts with South Korea to promote a lasting peace will contribute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 **From Deterrence to Engagement**

For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our North Korea policy



consisted of a critical but still one-dimensional task - to deter renewed North Korean aggression.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and our allies in South Korea have adapted to the new realities. Working together, we have supplemented our deterrent capability with diplomatic initiatives designed to draw the North out of its increasing isolation and encourage it to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useful to note that the process of moving from stark confrontation to dialogue with the D.P.R.K. has a bipartisan history of some nine years. In 1988, under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U.S. undertook what was termed a Modest Initiative; to open the window for greater contact with Pyongyang.

The next phase came in January 1992, when, during a period of improved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hosted the first-ever meeting between senior U.S. and D.P.R.K. officials in an early effort to address our concerns with the North's nuclear program.

That phase of diplomacy, hit high gear when my good friend Ambassador Bob Gallucci reengaged the D.P.R.K. on the nuclear issue in 1993. Negotiat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South Korean and Japanese allies, the October 1994 Agreed Framework not only provided a means to address our concerns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also laid out a structure to pursue our other diplomatic objectives with the D.P.R.K.

The next phase of our efforts to engage the North is centered on

the proposal made jointly by President Clinton and R.O.K. President Kim in April 1996 for Four Party peace talks. In a major step forward in this process, next week, on March 5, I will sit down with a South Korean Deputy Foreign Minister to brief a delegation from the D.P.R.K. on this proposal. This joint briefing will, we hope, lead to discussions involving the North and South,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cerning a reduction of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 **The Agreed Framework : Nuclear Aspects**

Allow me first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nuclear aspects of the Agreed Framework. Most significantly, this agreement, if fully implemented, will both bring the D.P.R.K.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require the North to go beyond those obligations by dismantling its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 return the North will be provided with interim energy, in the form of heavy fuel oil, as well as two proliferation-resistant, light-water nuclear reactors.

The first step in moving towards eventual dismantlement of the North's existing nuclear program is a freeze on its key existing facilities. That freeze has been in place since November 1994 and is being continuously monitor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by our own national technical means. In addition, the IAEA is currently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the North to prepare the ground for eventually instituting safeguards on its nuclear program.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North will forego the right to reprocess spent fuel and will, instead, safely store and eventually transfer existing fuel to another country. I would note that existing fuel contains material which could be used to build nuclear weapons.

Thanks to the hard work of a team of experts led by the Department of Energy, which is in North Korea working 12 hours a day, six days a week, the task of putting this material into storage under IAEA safeguards is more than half done. Actual canning of the spent fuel began on April 27, 1996, and is planned to be completed this year. Upon completion of canning activities, the spent fuel will remain at the spent fuel storage basin at Nyongbyon where it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monitoring by the IAEA until it is shipped out of the D.P.R.K.

The Agreed Framework also provides that in return for the freeze and dismantlement of the D.P.R.K.'s present nuclear program,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wo light-water reactors (LWR), as well as the heavy fuel oil shipments, to the D.P.R.K. Under American, South Korean and Japanese leadership,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has grown into an important arm of our countries' coordinated diplomacy. KEDO currently has eleven members, spread over five continents and has received international contributions from over twenty-one countries.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European Union's (EU) recent

decision to join KEDO as the fourth member of its Executive Board. This has increased KEDO's standing as a truly global organization.

The EU's commitment to contribute \$20 million annually to KEDO over five years has also helped put KEDO finances on a more solid basis. The combination of new EU funding, our regular contribution to KEDO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is critical, particularly in insuring KEDO's heavy fuel oil deliveries to the D.P.R.K. KEDO has made steady progress in financing those deliveries and has met the obligations of the Agreed Framework.

Nevertheless, KEDO is still running a deficit in its oil funding account, largely because of the initial shortage of funding in 1995 and 1996.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KEDO membe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is problem. I would note that these deliveries are essential to the integrity of the nuclear freeze since they help compensate the D.P.R.K. for the loss of energy production from nuclear reactors which were under construction before the Agreed Framework. I would also note that KEDO is taking steps to ensure the proper use of this fuel by the North and that we are following this situation closely.

KEDO has accomplished much in preparing for actual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It has negotiated five protocols to the LWR Supply Agreement which define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reactor construction. It has sent six teams of technical experts to the D.P.R.K. to gather necessary geological, environmental, and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LWR site in the D.P.R.K. These teams have consisted of U.S., Japanese, and South

Korean experts. A seventh team will travel to North Korea on March 1. Final preparations for construction should be made in the next few months with groundbreaking on the project to begin this spring.

I would add that, as the LWR project progresses, North Korea's contact with the world and with the R.O.K. will rapidly increase. Most specialists working on the project will be R.O.K. citizens and South Korea's national power company - KEPCO - is the prime contractor. Already, it has facilitated North-South contact through almost constant KEDO-D.P.R.K. negotiations at KEDO headquarters in New York and through the regular visits of South Koreans, under KEDO sponsorship, to the North to prepare for the reactor project.

Although the R.O.K. and Japan will shoulder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multi-billion dollar construction costs for the LWR project, continued U.S. funding for KEDO activities, primarily heavy fuel oil deliveries, remain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 **The Agreed Framework : Enhancing North-South Contact**

In addition to providing a means of freezing, and eventually eliminating, North Korea's indigenous nuclear program, the Agreed Framework called on the U.S. and D.P.R.K.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andem with resolution of issues of importance to the U.S. The pace of change will depend, of course, on the degree to which the D.P.R.K. is prepared to move further along the positive path on which it embarked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A key element, which at our insistence was written into the Agreed Framework, is the expectation of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In our subsequent diplomatic contacts with the D.P.R.K., we have stressed consistently and frequently the necessity of such contact.

This is both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difficult goal in the entire enterprise, but even here some progress has been achieved. Here I would again call your attention to the sustained and business-like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ithin the framework of KEDO. This contact will increase markedly as the LWR project begins on the ground later this year. As I mentioned earlier, the North's agreement to attend the joint briefing on the Four Party peace talks is another significant step in achieving this goal.

### **U.S.-D.P.R.K. Bilateral Business**

Two days after the joint briefing on the Four Party talks, accompanied by officials from the Defense Depart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 will meet with the same D.P.R.K. delegation to discuss the range of bilateral issu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mong the issues I will raise in that meeting are our efforts to recover the remains of Korean war-era MIAs, our proposals to end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export of missiles and missile technology, and implementation of our commitment to exchange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I will leave to Dr. Campbell to describe our efforts to recover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who died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ut I would emphasize that we consider this an extremely high priority issue. I would only add that the expansion of contacts into the military area is a positive development that can only help the process of opening North Korea. In April 1996, U.S. negotiators met with D.P.R.K. officials to discuss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s development, deployment, and proliferation of missiles and missile technology.

As the Agreed Framework is allowing us to resolve our concerns about proliferation of nuclear materials, we hope that these talks will ultimately resolve our concerns about these dangerous and destabilizing weapons. Putting an end to these threats is a top U.S. priority. When I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 New York next week, I will propose dates for the next round of talks on this important issue. When we signed the Agreed Framework, we agreed to exchange liaison offices - the lowest level of diplomatic representation between countries - as soon as technical issues could be resolved. Although some of these matters remain unresolved, including arrangements for supplying and supporting our office in Pyongyang and the North's ability to find suitable offices in Washington, conditions appear to be improving for the realization of this commitment. The establishment of these small-scale offices would be of practical benefit to both sides.

We are very grateful to Sweden for its willingness to act as our protecting power in the D.P.R.K., but as American citizens increasingly visit the D.P.R.K. - as journalists, academics, humanitarian relief workers or specialists in the canning, remains, or fuel monitoring projects - we feel the need to be able to provide

them directly with consular protection and support. A full-time diplomatic presence in Pyongyang will give us a first-hand perspective on the situation and provide us with improved access to North Korean officials. And it will facilitate the kind of diplomacy we have had to undertake through cumbersome methods until now, such as our efforts in December to resolve the submarine incident.

In recognition of the progres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us, we have taken a number of modest steps to eas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In January 1995, as Pyongyang began to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 Agreed Framework, we took steps to permit U.S. companies to provide direc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o allow the import of magnesite from the D.P.R.K., to reduce the restri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not involving the D.P.R.K. government or its entities, and to authorize the licensing of U.S. business transactions that further KEDO's construction of light-water reactors in the D.P.R.K.

On December 30, 1996, we approved the license of a U.S. firm to pursue a commercial deal to sell North Korea up to 500,000 tons of grain, consistent with our policy of sympathetic consideration of all applications for provision of foodstuffs on commercial terms. However, negotiations to conclude this deal on a commercial basis have not yet been successful. We will consider further sanctions-easing measures as North Korea makes progress on issues of concern to us.

## **Humanitarian Aid**



On a strictly humanitarian level, the U.S.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fforts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civilians affected by recent flooding and food shortages there.

Including our most recent don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we have provided \$18,425,000 in cash and in-kind support for emergency relief assistance - basically, medical supplies and food - for the North. These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in the spirit of the American tradition of providing assistance to people in need, without regard to politics.

Our most recent donation was a \$10 million in-kind contribution to the UN World Food Program's February 13 emergency appeal. The delivery of our contribution - a corn-soy blend used as a basic food for infants and nursing mothers, as well as rice and corn- will be administered through UN agencies with staff in North Korea. The WFP, which will monitor the distribution of our contribution, has demonstrated its ability to ensure that assistance reaches the intended civilian beneficiaries, many of whom are children.

The latest UN World Food Program appeal, even if fully subscribed, will only meet 5% of the North's estimated 2 million ton shortfall of grain this year. However, the appeal is designed to get food in the pipeline now for delivery to those most vulnerable to the threat of famine. The prospect of widespread hunger or even famine this spring creates the possibility of unrest, dislocation of North Korean civilians in search of food, and other difficulties.

The U.S has not acted alon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Republic of Korea has announced that it will

make a \$6 million dollar contribution. Japan has made major contributions in the past few years, and is considering doing so again. Australia announced on February 21 a donation of over \$2 million to the latest appeal. Many other countries have also contributed to this international relief effort.

### **Next Steps**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ace of progress i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and events can move quickly on the Korean Peninsula. Steady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and halting steps toward D.P.R.K. acceptance of the Four Party talks suffered a setback last autumn with the incursion into South Korean waters of a D.P.R.K. submarine and the infiltration into R.O.K. territory of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A massive manhunt by R.O.K. security forces eventually tracked down the infiltrators, but the submarine incident left many dead, threatened to derail the Agreed Framework, and dimmed prospects for the reduction of tensions on the Peninsula.

As I mentioned, persistent diplomacy by the U.S.,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 resulted in the unprecedented statement of regret made by the D.P.R.K. last December and laid the groundwork for a resumption of our efforts to improve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If North Korea clearly calculates its own interests and opts for greater cooperation, including with the R.O.K., we can make significant progress. Inevitably, challenges will continue to crop up.

Some of these obstacles are foreseeable - others will arise without warning.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diplomacy, but they also pose dangers. Although we do not believe that the collapse of the D.P.R.K. is imminent, its desperate economic situation cries out for immediate action by the North - both for internal reform and greater positive contact with its neighbors.

There are indications that Kim Jong-il will assume his father's titles of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sometim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hile this will formalize his assumption of power, we do not expect North Korean policy or decision making to change significantly.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these dire prospects are press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review its traditional isolation, a development we, the R.O.K. and others want to encourage. We do not seek to perpetuate the system there, as some suggest. But as the North chooses between the kinds of changes that serve our interests and a fate that awaits it if it refuses to change, we also are not anxious to face these costs and risks if we can avoid them. We are assessing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defection of Hwang Jang-yop, the senior North Korean ideologist, whose case, we trust will be resolved peacefully by China and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n summary, although there is clearly a long way to go, I am cautiously optimistic about our effort to promot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effort has been closely coordinated with the R.O.K., Japan, and our other friends and allies in the region

수밖에 없다.(중략)

초기에는 빈곤한 상대와의 통일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하급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임금 및 다른 생산비용에 대한 압박을 경감시키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노동력이 융화됨으로써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양측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력이 혁신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경이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들은 금방이라도 해체해버려야 할만큼 낙후된 것이다. 이처럼 쓸모없는 북한의 기간 시설들은 최신의 장비들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후에 일본과 서독이 산업 기반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재건설함으로써 놀라운 만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었다. 이들 국가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노동력의 숙련도를 높이며, 경이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익은 일본과 서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새롭게 통합되는 경제체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유추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의 경제를 현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은 틀림없다.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모험적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 전체의 발전 구조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국제적인 경제발전을 가속시키고, 국내시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수출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개선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발간된 몇편의 논문에서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분석일 뿐이다. 세계 자본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

## 다. Kartman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상원 동아태소위원회('97.7.8)

·먼저 우리의 대한반도정책의 전반적 목표는 한국민 스스로가 통일을 향해 대화와 진전을 이루어가도록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한·미간의 안보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동참하도록 하기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약 50년간 북한의 침략을 저지해 왔으며,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클린턴대통령은 뉴욕에서 UN환경정상회담 기간(7.26) 동안 김대통령과 만나 한·미의 대북정책이 견고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4자회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과정에서 북한에 개입하려는 노력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에 대해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선, 의미있는 단계로서 지난주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클린턴과 김대통령1996. 4.16제안)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했다.

8월 5일 뉴욕에서 4자회담 예비회담이 열릴 것이며, 거기에서는 개최지, 의제 등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4자회담에 참가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했으며, 또한 4자회담 관련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했다.

중국은 4자회담 지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적극적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EU를 비롯,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비록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지 길고 험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북한과의 의도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의 적극적 활로를 개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은 보다 중요하고 유용한 대화를 위한 몇차례 회담을 가졌다. 한국 당국자들과 다시금 직접접촉을 가지고자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성과이며, 이것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미국정책목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접촉-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4자회담에서의 진전은 수년에 걸친 한미간의(1994. 10월의 미·북간 제네바 합의를 포함한) 협조적 외교노력에 의해 성립된 것이다. 제네바합의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핵계획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제네바합의의 핵측면에서의 경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미·북간 현안문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계획 동결은 1994.11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국가적·기술적 수단에 의해, 북한은 핵반응장치로부터 핵연료 사용권리를 포기했으며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된 핵 연료를 나라 밖으로 옮기기로 했다.

에너지부에 의해 추진된 전문가팀의 노력덕분에 북한의 사용핵연료봉의 85% 이상이 IAEA의 감시하에 보관되어졌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만 없다면 계획이 올해말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KEDO는 첫 경수로가 완성될때까지 제정면, 그리고 2개의 경수로와 중유 제공입무를 완수하고 있다. 그것은 경수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KEDO는 북한과 경수로사업의 기간, 조건을 규정하는 많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KEDO는 7번의 부지조사단(주로 한국의)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러한

진전은 다음달초에 KEDO가 북한에서의 첫 경수로의 착공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KEDO는 한·일과의 외교상 협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국제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EU는 이번달 하순 KEDO에 참여할 계획으로, KEDO 집행부의 네 번째 일원이 될 것이다. 매년 약 2,000만달러를 향후 5년간 KEDO에 제공하게 될 EU의 참가에 의해 KEDO는 좀더 확고한 기반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DO는 중유제공에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경수로 사업에 드는 수 억달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중유제공을 주도하는 미국의 KEDO활동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8년 예산에 KEDO를 위한 정부 지원안에 대한 상원의 승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US - 북한 양자간 현안문제

우리는 또한 북한과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두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4자회담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진전이 4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반대로 4자회담의 진전이 이러한 문제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노력의 최우선 순위는 전쟁기간중 북한에서 죽은 미군병사의 유해를 송환받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관리들은 최근 뉴욕에서 만나 세가지 추가 발굴 작업을 위한 날자와 장소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첫회는 7.12 시작되며, 이미 첫 번째 합동 송환식을 1996. 7월에 실시, 유해를 송환받은 바 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및 미사일기술의 개발과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북 제2차 미사일 협상은 뉴욕에서 6.11-13 열렸으며, 그것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만남이었다. 1996. 4월에 열린 첫 번째 협상외에 세번째 협상은 이번 여름말로 계획되어 있다.

## 북한 실태

이번에는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는 매우 얻기어려우나,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생산은 마르샤바기구 붕괴이후 매우 제약을 받아왔으며 식량사정은 가장 긴급한 상황이다. 비효율적인 관리, 비료와 농약의 부족 그리고 1995-96의 심각한 흉수로 인해 북한인민은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WFP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식량문제 및 그 외의 경제문제로 인해 북한은 사회·정치적 압박을 받아 왔으나, 매우 낮은 수준의 방명자 증가이외에는 북한정부가 위협받고 있다는 외부적 징표는 없다.

비록 평양 정권의 직접적 공개는 거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치적·사회적 통제가 여전히 잔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올해 안에 그의 부친의 주식지와 당 총비서의 직책을 승계할 것이라는 징후는 있으나, 그는 이미 이러한 직책에 상응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현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 미래 발전을 점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우리는 북한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는 믿지는 않는다. 비참한 경제현실과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의해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을 위한 기회외 불안정의 위험을 동시에 만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치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북한



에 개입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 인도적 지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식량문제이다. 지난 2년간, 미국은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인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위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 의료원조와 식량 - 으로 3천3백만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우리의 원조는 WF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WFP는 지정기탁자에게 제대로 배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배를 감시할 능력을 보여주어 왔다. 이러한 기여는 정치적 고려없이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 단독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올해 WFP의 호소에 대해 1천6백만달러를 제공하였고 다른 많은 나라도 국제적 구호노력에 동참했다. 한국정부와 시민단체는 1995년 가을이래 북한에 대해 식량과 인도적 물품으로 약 2억5천만달러를 제공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구호를 위해 국제적호소에 계속 응할 것이다.

## 결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진전의 속도를 예측하는 것, 혹은 진전이 계속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조차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4자회담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가까운 장래에 달성되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북한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북한에 개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우리는 앞으로 갈길이 멀지만 의지를 유지하고 외교적개입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은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알려주게 될 것이다.

C. Kartman : Testimony befor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97.7.8)

It is a pleasure to represent the Department of State before this Committee today.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discuss our policy towar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well as our views on North Korea'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First, I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our overall policy goal is to build a durable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key contribution to regional stability, with an emphasis on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progress by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Our efforts to achieve this goal are rooted in the U.S.-Republic of Korea (ROK) security alliance, which has deterred aggression for nearly five decades and is stronger than ever, and are supplemented by diplomatic initiatives designed to encourage the DPRK to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our diplomatic efforts are conducted in clos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Most recently, President Clinton met with President Kim on June 26 in New York during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Summit to ensure that our joint North Korean policy remains tightly coordinated. This was President Clinton's only separate meeting with a foreign leader during the UN conference.

In addition, Vice President Gore, Secretary Albright, Secretary Cohen and General Shalikashvili have all visited Seoul this year.

### **Four Party Talks**

I am pleased to report recent progress in our efforts to engage the DPRK in a diplomatic process to reduce tension on the Peninsula. In a significant step, last week the DPRK agreed to participate in Four Party peac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s proposed by President Clinton and President Kim in April 1996. The four parties will convene August 5 in New York for a preparatory meeting to decide procedural matters for the peace talks, including an early date, the venue, and the agenda.

We and our South Korean allies worked hand in hand to convince North Korea to agree to Four Party talks. We have also consulted regularly with other interested countries on the Four Party proposal. China has publicly stated its support for the Four Party talks and confirmed that it will be an active participant. Japan and Russia are supportive, as is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lthough the DPRK's agreement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is likely to be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we are encouraged that we have established a positive track record of business-like and productive meetings with the DPRK. More importantly, senior official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now met several times for a series of equally useful discussions. The DPRK's willingness to reengage and to talk directly with ROK official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itself. This has been a major, longstanding U.S. policy goal - to promote substantive, direct conta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officials aimed at reduc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 **Agreed Framework : Progress Continues**

The progress on Four Party talks builds on several years of US-ROK cooperative diplomatic efforts, including the negotiation of the October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The Agreed Framework is the cornerstone of our diplomatic initiatives with the DPRK and addresses our concerns about the DPRK's nuclear program. I would like to briefly update you firs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aspect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then on bilateral U.S.-DPRK issues.

The freez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been in place since November 1994 and has been continuously monitor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by our own national technical means. In addition, the North has foregone the right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from its nuclear reactor and will instead safely store and eventually transfer the spent fuel out of the country.

Thanks to the hard work of a team of experts led by the Department of Energy, over 85 percent of North Korea's spent nuclear fuel rods have been placed into storage, under IAEA safeguards. Barring unforeseen delays, we anticipate that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later this year.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is fulfilling its commitment to finance and supply to the DPRK two light-water reactors (LWR) and heavy fuel oil, until the first reactor is completed. It continues to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LWR project. KEDO has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DPRK numerous agreements and protocols which gover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reactor project. KEDO has also sent seven site-survey teams of technical experts (primarily from South Korea) to the DPRK. This progress sets the stage for KEDO to break ground on the first reactor in North Korea, likely early next month.

KEDO has grown into an important arm of our coordinated diplomacy with the ROK and Japan, and is developing into a tru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European Union (EU) is scheduled to join KEDO later this month, and will become the fourth member of KEDO's Executive Board. The EU's commitment to contribute approximately \$20 million annually to KEDO for the next five years will help put KEDO finances on a more solid foundation.

Nonetheless, KEDO continues to run a serious deficit in its oil funding account. Although the ROK and Japan will shoulder the bulk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multi-billion dollar LWR project, continued U.S. funding for KEDO activities, primarily heavy fuel oil deliveries, remains indispensable to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fulfill its commitments and keep the Agreed Framework on track.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note the Administration's support for the Senate's appropriations for KEDO for FY 1998.

## **U.S.-DPRK Bilateral Issues**

We also are discussing bilateral issues of concern to us with the DPRK, and have made some progress recently on two important issues. I would note that while we are pursuing these matters apart from the Four Party process, we hope that progress on these issues will reinforce progress related to the Four Party talks - and vice-versa.

Our effort to recover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who died in North Korea during the war is a top priority. U.S. and DPRK officials recently met in New York and reached agreement on dates and sites for three additional joint recovery operations. The first of these will begin July 12. We conducted the first joint U.S.-DPRK recovery operation in July 1996, recovering one set of remains, which was subsequently identified and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for burial.

We are also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specifically its development and export of missiles and missile technology. The second round of U.S.-DPRK missile talks, held June 11-13 in New York, was useful and businesslike, building on the first round of talks, which was held in April 1996. A third round is planned for later this summer during which we hope to make continued incremental progress.

###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Now I would like to turn to the internal situation in North Korea. Accurat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is very difficult to come by, but nearly everyone acknowledges that the DPRK is beset by many

very serious problems. Economic production has contracted dramatically since the collapse of the Warsaw Pact, but the food situation is the most urgent problem. A mix of mismanagement, shortages of fertilizer and pesticide, and severe flooding in 1995 and 1996, has brought much of North Korea's population to the brink of starvation. The severity of this problem has been documented by many international agencies,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

The DPRK's food and other economic problems have strained North Korea's social and political fabric, but other than an increased flow of defectors - from a very low base - there are no outward signs that the government is threatened. Although we have had little direct exposure to the regime in Pyongyang, others have reported that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remain firmly in effect. While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Kim Jong-Il may assume his father's titles of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Workers' Party this year, he already wields the power associated with these positions.

If it is very difficult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s there. We do not believe that instability is imminent in the North; in spite of the dire economic situation and food crisis, the regime appears able to maintain control. We do believe, however, that this desperate situation cries out for action by the North, and that this creates both opportunities for progress and the danger of greater instability. The DPRK needs to reform its economy and political system to address this situation. While we are not trying to br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 it is obviously not working well - we are also not seeking to perpetuate the system there. Our goal is to make every effort to engage the DPRK so that tensions will be reduced and dangerous scenarios are avoided.

## **Humanitarian Aid**

As I mentioned, North Korea's most urgent need is food. Over the past two years,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33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 medical supplies and food - to the DPRK to help alleviate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civilians affected by food shortages there. Our donations have been channeled through the UN World Food Program (WFP), which has demonstrated its ability to monitor deliveries to ensure that the aid reaches the intended civilian beneficiaries. These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in the spirit of the American tradition of providing assistance to people in need, without regard to politics.

The U.S. has not acted alon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ributed \$16 million this year to WFP appeals,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joined the international relief effort. Bilaterally, the ROK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provided almost a quarter billion dollars in food and other humanitarian goods to the DPRK since September 1995. We will continue to address international appeals for relief for the DPRK, consistent with our humanitarian policy.

## **Conclusion**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ace of

progress i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or, for that matter, whether progress will continue. Advances cannot be plotted by a linear equation. The DPRK ha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Four Party peace process. This is significant, but it does not mean that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Similarly,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serious troubl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PRK regime is destined to collapse.

I remain cautiously optimistic that we are making headway in our efforts to engage North Korea in work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the joint US-ROK effort to sustain deterrence and to promote diplomatic engagement should make it clear to the DPRK that it really has only one way to deal with its current situation - through responsible, sustained contact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라. K. Campbell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상원 동아태 소위원회('97.7.8)

오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청문회에서 국방부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선 한반도 긴장의 궁극적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지금, 현존하는 평화를 어지럽히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방패로 작용하여온 43년간의 한·미 동맹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밀접한 안보동맹에 의해 지탱된 안정성은 한·미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이들 노력이 무질서 또는 전쟁에 의해 중단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 많은 아·태지역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종종 예측할 수 없고 고도로 무장된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의 가치와 신념에 맞는 발전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의 경우 사실이다. 그 결과 한·미 안보동맹은 통상적인 의무조약(treaty commitment)이상의 - 밀접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공동이해에서 형성된 상호이익의 동반자관계 -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동맹은 우리의 장기적 안보목표 -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통일 - 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필수적 요소이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미국은 지역안보 이익에 따라 강력한 쌍무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충분히 보조를 맞추어갈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위한 한·미 연합군사지휘와 전력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현재 한·미는 한반도에서 - 무력충돌의 억지와 전쟁위기 감소를 위한 준비 - 라는 두가지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 위기와 관련, 북한의 광범한 재래식 군사력은 계속 한국의 안보를 위

협해 왔다. 백십만 병력의 2/3가 전진포고도 없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포병과 함께 DMZ 100km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과 다른 무기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미는 전면전이든 또는 국지전이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의 행사를 막기 위한 안보협약에 초점을 맞춰 왔다. 북한 고위층이었던 황장엽이 언론에 기고한 보도에 의하면, 어떤 서점에서 전쟁에 의존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정확할 수도,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북측에 의한 군사적 동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첫째 목표가 억지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일 억지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활용할 것이다.

동시에 쇠퇴하는 북한의 경제여건과 북한식 농업관리방식의 구조적 실패로 인한 심각한 식량부족문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것은 부책임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안보기관들은 아직도 자국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시험하고 있으며, 그들의 통제를 완화시키려는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이 내부적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잠재적인 조건악화로 기아, 대량난민 또는 다른 형태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미는 지역안정을 위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긴장가능성을 가장 낮게 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만일 한·미간의 긴밀한 방위동맹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이익에 대한 이러한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의 한·미안보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안보문제에 대해 한·미 사이를 방해해 보려는 평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연합전력은 동맹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현대화되어 있고 더 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능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약 3만7천의 병력을 AH-64헬기, 브레들리 전차, Global 배치체제, 극초단파 무전기, 선배치 중무장여단을 포함한 최신군사장비로 현대화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중이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 최신탱크, 개인휴대장비, 자주곡사포, 전투기를 군에 공급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방재원부담은 최근 정부예산의 21%이상을 국방에 충당할 정도로 커졌다. 한국은 67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6-98년간 1억불 이상의 주한미군 비용분담을 약속했다.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안보목표는 지난 수년간 외교적 노력에 의해 달성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고 개발 가능성을 차단한 미·북기본합의에 의해 시작된 개입과정은 긴장의 직접적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했다.

기본합의와 우리의 기본적 안보태세로 인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존했고, 4자 평화제외와 기타 관련문제, 미사일 비확산, 한국전쟁 유해송환 등의 해결에 기초를 만들었다. 기본합의는 또한 북한에 대한 접근과 어느정도 남북접촉도 확대시켰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외교·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합의와 4자평화회담 제의는 남·북간의 자발적인 화해를 위한 기초를 놓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단지 길고 어려운 과정의 시작단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인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현재의 여러 노력들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북한과 직접적 충돌도 대안이 될 수있지만 그것은 생명과 자원을 파괴하는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기본합의를 지지하고 기본합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국제 콘소시엄을 유지하

는 것은 중요하다.

국방부는 한국전쟁의 실종자 발굴을 위해 세갈래의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한국전쟁 유해송환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1996. 7월 한 번의 공동작업이 이루어 졌고, 거기에서 우리는 미군유해를 인도받아 이를 가족들이 확인하고 매장하게 되었다. 우리는 1997년에 북한과 세차례의 합동발굴에 합의했다. 둘째, 우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군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북한의 기록에 대한 문서조사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생존 미국인에 대한 자료도 계속 찾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과 함께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해 주길 바란다.

남북한이 그들 사이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43년간의 오랜 정전협정을 계속유지할 것이다. 정전협정과 정전협정기구는 그들을 대체할 적절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한 만이 분단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에 의한 정전의 대체는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단기적인 안보에 관심을 두면서도 그러한 대화를 진전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Kurt Campbell : Testimony befor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97.7.8)

Mr. Chairman, Members of the Subcommittee, I welcome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this hearing o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begin my statement by emphasizing that in a time of uncertainty about the ultimate outcome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rty-three year old U.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serves as a bulwark against any forces that would seek to disturb the existing peace. The stability fostered by this close security relationship has benefited not only the U.S. and ROK, but has also permitted much of the Asia-Pacific region to pursue economic prosperity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belief that these efforts would not be undercut by disorder or war.

In deterring aggression from an often unpredictable and highly-militarized North Korea, the U.S. has helpe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sian states could pursue a development course compatible with American values and beliefs.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South Korea. As a result,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more than a treaty commitment - it is a close, mutually-beneficial partnership built on a shared stake in democracy and free markets. Our alliance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trategy for achieving our long-standing security goal - a non-nuclear, peacefully reunified Korean Peninsula. Even after the North Korean threat passes, the U.S. will coordinate fully with the ROK

to maintain a strong bilateral alliance in the interest of regional security.

The need for a combined US-ROK military command and force structure to protect our common values is more compelling than ever. Toda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nfront twin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 deterrence of armed conflict and preparation for crises short of war.

On the first challenge, North Korea's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continue to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wo-thirds of its 1.1 million military personnel are positioned within 100 kilometers of the Demilitarized Zone, with a substantial artillery force capable of striking Seoul with little advance notice. In addition, North Korea possesses missile and other weapons programs that heighten concern over its intentions. The U.S. and ROK continue to focus their security cooperation on deterring the use of this military capability, whether in an all-out attack on South Korea or in a more limited military provocation. Comments attributed in the press to the high-level North Korean defector, Hwang Chang-Yop, on the North Korean willingness to resort to war at an opportune moment may or may not be accurate, but they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our unflagging vigilance against military moves by the North. Let there be no doubt that deterrence is our first priority. Should deterrence fail, we will prevail militarily on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within North Korea and a serious food shortage rooted in the structural failure of the North's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raise questions



about future developments in the North. In this setting, it would be irresponsible for the U.S. and ROK not to consult closely and be prepared for a range of contingencies that could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state and its security apparatus still exercise absolute control over their country and show no sign of loosening their grip. But the U.S. and ROK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given the trajectory of North Korean domestic developments, that potentially destabilizing conditions could arise in the North in the form of famine, massive refugee flows, or other disturbing scenarios. The U.S. and ROK would seek to address such situations in a way that was least disruptive to regional stability and to resolve them at the lowest level of tension possible.

Without a close defens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e would not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se challenges to our security interests. It is also important in a time of transition and uncertainty that we give no signals to North Korea that the calculus of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which has served us so well, is changing. We will continue to strongly counter any perception in Pyongyang that it can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on security issues.

US-ROK combined forces are better-equipped and more ready now than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But maintaining capable and ready forces is a constant process. The U.S. is engaged in ongoing efforts to modernize its Peninsular force of about 37,000 military personnel with the latest military equipment, including AH-64 helicopters, Bradley Fighting vehicles, 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s, frequency hopping radios, and a prepositioned heavy brigade set. These measures have been complemented by ROK efforts to outfit its military with the most modern tanks, armored personnel carriers, self-propelled howitzers, and fighter aircraft. The ROK commitment of resources to defense has been impressive, with over 21 percent of the most recent government budget devoted to the military. The ROK maintains 670,000 personnel in uniform and has pledged more than \$1 billion in cost-sharing support for U.S. military forces on the Peninsula from 1996-1998.

Our security objectives in Korea have been greatly aided by diplomatic breakthroughs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In particular, the engagement process begun by the US-DPRK Agreed Framework, which froze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its destabilizing potential, has defused the most immediate source of tension and deflected what could have been a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With the agreement and our underlying security commitment, we have preserve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created an opening to pursue the Four Party peace proposal and other issues of concern, such as missile proliferation and the recovery of Korean War remains. The Agreed Framework has also provided greater access to North Korea and some North-South contacts.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will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diplomatic/political means, and the Agreed Framework and Four Party peace proposal begin that process by laying a groundwork for uncoerce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must recognize, however, that these are only initial steps in a long and difficult course. Our desire for a long-term, stable peace on the Peninsula will not be realized overnight, but that reality does not diminish the value of current initiatives toward North Korea. The alternative could very well be direct conflict with the North, which would take a devastating toll in lives and resources.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for the U.S. to back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that implements its provisions, with the resources that will permit it to succeed.

The Defense Department is making a three-pronged approach to North Korea to account for those missing from the Korean War. First, we have made progress in recovering remains from the Korean War, completing one joint operation in July 1996 that yielded the remains of a U.S. serviceman who was positively identified and buried by his family. We have recently made arrangements with the North Koreans to conduct three more joint recoveries during 1997. Second, we hope to carry out archival research of North Korean records to help focus our efforts to account for those American servicemen who have not yet been recovered. Third, we continue to seek answers from North Korea and other sources on any reports of live Americans detained in North Korea. Please be assured that the Defense Department is committed to pursuing this issue vigorously with the North.

Until North and South Korea find a peaceful solution to their differences, we remain committed to the terms of the forty-three year old Armistice Agreemen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echanisms must remain until an appropriate arrangement supersedes them. Only South and North Korea can resolve the division of Korea; therefor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by an appropriate agreement can come about only through direct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U.S., while addressing near-term security concerns, has worked hard to promote such a dialogue.

### 3. 행정부인사 연설문

## 가. M. Albright 국무장관, 미해군사관학교 연설('97.4.15)

오늘 논의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냉전체제가 끝나고 몇몇 아시아지도자들은 우리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러한 인식이 지속된다면 지금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고자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반복해서 밝혔으며 미해군이 보증하는 것처럼 미국은 아태지역의 힘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안전판이라는 역할에서 상업적 효과를 자극하고 우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확실히 미국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확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 계속되는 안보이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3차례의 전쟁을 치른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국제적 폭력은 우리의 복지 혹은 우리 우방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계속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핵확산, 테러리즘, 불법적 마약거래 그리고 환경파괴 등 새로운 전지구적 위협에 대해 우리는 협력자를 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인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이곳에서 인권존중과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이익을 갖는다.

이러한 이익들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 경제체제의 활력은 국제정치질서에 달려 있다. 정치질서는 커다란 부분이 군사적 안보에 달려 있다. 그리고 경제안정은 위협한 분쟁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러한 각각의 기둥이 강할 때, 모든면에서의 진보는 가능하다. 만약 한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기둥에 압력이 배증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경제성장, 법치주의, 평화에 대한 공동의부 등 모든 분야의 이익에 기초한 아태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맹국 및 기타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제안한 것 중 많은 부분은 본질에 있어 지역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은 주요 양자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관계이다.

50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2차대전의 폐허에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민주주의적이며 거대한 경제체제를 가진 양국은 결과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특정 적대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미·일동맹은 세계의 평화, 번영, 민주, 정치·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군사적으로 우리는 주일미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좋은 손님이 되고 주인과 함께 이미 고도의 협력관계를 더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좀더 균형적 관계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93년 이래 우리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더 나은 진전단계 마련을 위해 23개의 시장접근협상을 벌여왔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거의 세계전역에서 즉, 보스니아 평화에서 아프리카 발전, UN개혁, 세계적 문제에 대한 일상사를 개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 윌슨간 하시모토 총리는 워싱턴에 머무를 것이며,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일관계는 아태지역에서의 우리의 개입정책의 초석이며 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심적 우호관계는 한국이다. 40년전 휴전협정이래 한국은 빈곤과 폐허속에서 현대적 경제와 함께 활기넘치는 민주주의를 이루

어냈다.

현재, 우리는 연간대한무역은 50억불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정치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본합의」 덕분에 북한의 위험스러운 핵물질 생산을 동결시키고 북한이 NPT 준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완전한 화해로 가기 위한 협상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한·미외교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년전 클린턴대통령과 김대통령은 남·북과 중국, 미국이 참가하는 회담을 제의했다. 우리는 최근 북한에 대한 4자회담 설명회를 한국과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이번주 뉴욕에서 열리게 될 회의에서 우리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UN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최근 방문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심각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비록 기아문제가 북한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로 보고 있다. 올초 미국은 WFP 호소에 1,000만불을 지원했다. 오늘 나는 추가적으로 1,500만불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2월, 나는 DMZ의 미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가시적이며, 인적인 증거이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한국의 긴박한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과의 동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중요할 뿐아니라 안정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외부세계와 더 많은 접촉과 개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협력의 이익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지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평화를 지키



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후략)

1997 Forrestal Lecture: "American Principle and Purpose in East Asia"

Good evening. Admiral Larson,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Captain Bogle, Deam Shapiro, Captain Evans, midshipmen, I am delighted to have a chance to address the Naval Academy community and the participants in your annual Foreign Affairs Conference.

I am also pleased that the Conference organizers chose as your topic this year the great unfinished cause of our times - the struggle for democracy.

This Academy has been the training ground for many of the heroes of that struggle.

Their memory is strong within us and cherished by us. For within the past few years, we have celebrated what sometimes seems the fiftieth anniversary of everything. And as we have recalled the bravery of sailors, aviators, soldiers and Marines from Normandy to Leyte Gulf to Tarawa to Iwo Jima, we have been in awe of their sacrifice and inspired by their example.

The lessons they bequeathed to us are many:

- We must maintain strong alliances, for there is no better way to prevent war.
- We must be prepared to defend our interests whether in air, on land or at sea.

- We must never take freedom for granted.
- And as Americans, we must continue to carry aloft the banner of leadership.

Today, we are approaching the threshold of a new century in a new era of possibility and risk. The class that entered this Academy last fall will graduate in the year 2000. You will embark upon your careers of service at a time when America is strong, prosperous, respected and at peace.

You will look across the Caribbean and see a nearly-complete hemisphere of democracies, and a group of forward-looking leaders with whom we are striving to consolidate the sway of freedom, defeat the plague of drugs and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You will look across the Atlantic and see a NATO strengthened by new members and trained for new missions in a Europe in which every democracy - including Russia - is our partner and every partner is a builder of peace.

And you will look across the Pacific, where you will see a region of dynamic economic growth, thriving new democracies, and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challenges.

It is American policy toward this region-East Asia-that I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tonight.

When the Cold War ended, some Asian leaders feared that we Americans would retreat from our historic presence in the region. If any remnants of that perception persist, let me dispel them now.

As President Clinton has repeatedly made clear, and as the U.S. Navy helps ensure, America is and will remain an Asia-Pacific power.

Our role there is vital, from the stabilizing effects of our diplomatic and military presence, to the galvanizing impact of our commercial ties, to the transforming influence of our ideals. And our commitment is solid because it is solidly based on American interests.

We have an abiding security interest in a region where we have fought three wars in the last half-century, and where almost any significant outbreak of international violence would threaten our well-being or that of our friends.

We have an abiding economic interest in a region that is characterized by explosive growth, and with which we already conduct more than 40% of our trade.

We have an abiding political interest in a region whose cooperation we seek in responding to the new global threats of proliferation, terrorism, illegal narcotics and the degradation of our environment.

And we have an abiding interest as Americans in supporting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is, the most populous region of the world.

These interests cannot be separated into discrete boxes. They are reinforcing. The vitalit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rests upon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Political order depends, in great

measure, on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reduces the likelihood of dangerous conflict. When each of these pillars is strong, progress on all fronts is possible. If one pillar collapses, stress on the others is multiplied.

For this reason, we ar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thers in the region to build an Asia-Pacific community based on a full range of interests, including economic growth, the rule of law and a shared commitment to peace.

To this end, we are fortifying our core alliances, maintaining our forward deployment of troops, and supporting new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We are negotiating agreements to open markets for American goods, services, and capital. And we are actively promoting the trend within the region towards greater political openness.

Although many of our initiatives in East Asia are regional in nature, most are grounded in key bilateral relationships. Of these, especially prominent are those with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Five decades ago, our predecessor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help Japan rebuild from the destruction of World War Two. The resulting alliance of two great peoples, two great democracies and the two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is not directed against any particular adversary. Rather, U.S.-Japanese cooperation is for peace, for prosperity, for democracy and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around the globe.

Militarily,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presence in

Japan, to being good guests there, and to working with our hosts to expand the already high degree of cooperation among our armed forces.

Economically,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a more balanced relationship. Since 1993, we have negotiated 23 market-access agreements that have narrowed our trade deficit and set the stage for further progress.

And politically, we are working with Japan almost everywhere, from peace in Bosnia to development in Africa to reform at the UN to our pathbreaking Common Agenda on global issues.

In ten days, Prime Minister Hashimoto will be in Washington, and I know that President Clinton is looking forward to reviewing with him ways to further strengthen our alliance.

The U.S.-Japan partnership is a cornerstone of our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 vital contributor to Asian security. Central, as well is our friend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Armistice four decades ago, South Korea has climbed the ladder from poverty and destruction to become an active democracy with a modern economy.

Today, our annual trade with Korea tops \$50 billion, and we work with the Government in Seoul on a range of political matters. But most critical is our shared effort, as allies, to preserv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e Agreed Framework we have negotiated has frozen North Korea's dangerous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required it to take the steps necessary to comply fully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U.S. and South Korean diplomacy has thereby preserved the Peninsula's stability in the short term, while preparing the way for discussions that may lead to full reconciliation in the long term.

A year ago, Presidents Clinton and Kim proposed talks involving the two Kore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e have recently joined with South Korea in briefing the North on the details of these proposed Four Party talks. And we look forward to what we hope will be a positive response at meetings scheduled this week in New York.

We are also continuing to respond to North Korea's food shortage, the tragedy of which has been documented not only by UN officials but by recent visitors from Congress. Although the threat of famine results largely from the failed policies of the North, we view the suffering as an humanitarian, not a political issue. Earlier this year, the United States contributed \$10 million in response to a World Food Program appeal. Today, I have announced that we will commit an additional \$15 million.

In February, I visited U.S. troops in the DMZ. These men and women are the visible, human evidence of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s security. As I talked with these young Americans, shook their hands and thanked them, I felt again the urgency of the challenge that Korea presents to us all.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a source of stability and vital for the defense of freedom. North Korea has begun to

move, ever so slowly, in the direction of greater contact and openness with the outside world. While maintaining our firm policy of deterrence, we will also continue to make clear the benefits of cooperation.

The future of the Peninsula is for Koreans to decide. Our role is to support the South in its efforts to assure peace. We are doing that, and we will maintain that commitment for as long as our help is required.

No nation will play a larger role in shaping the course of 21st century Asia than China. With its huge population and vast territory, China's emergence as a modern,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s a major historical even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ome, alarmed by China's rise, who suggest that our policy should be to contain China. Such a policy assumes and would, in fact, guarantee an outcome contrary to American interests.

A policy of containment would divide our Asian allies and encourage China to withdraw into narrow nationalism and militarism. Our interests are served by an Asia that is coming together, not splitting apart - and by a China that is neither threatening nor threatened.

What we see in Asia today is not a clash of civilizations, but a test of civilization. And that test is whether we can seize the opportunity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that now exists, for we are privileged to live in an era when the protectio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s not a zero sum game.



Much is made in the foreign policy journals of the dialogue that is underway between our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China. What those journals sometimes ignore is that - in addition to what is occurring at the official level - ties between the American and Chinese people are deepening at every level.

From the Bay area to Beijing, from New York to Shanghai, we are visiting each other, studying with each other, doing business with each other, philosophizing with each other and learning from each other. It is our peoples, even more than our governments, that are bringing the old era of mutual isolation and miscommunication to a decisive and irreversible end.

But for America, the strategic benefits of our official dialogue with China are also tangible, clear and growing. We are not yet where we want to be, nor has China evolved as rapidly or thoroughly as some have hoped, but the direction we must go is clear: greater interaction based on China'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orm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China'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trading system. Accordingly, we support it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commercially acceptable terms. And we have worked with China to develop a list of concrete steps that would broaden access to its markets and bring its trade practices into line with WTO rules.

In the security arena, when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1993, the U.S. and China generally did not see eye on nuclear issues, and the Chinese were selling dangerous weapons

and technologies with impunity. Through our dialogue, we have built a record of cooperation on agreements to enhance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ban nuclear tests and make illegal the possession and production of chemical arms.

We also welcome China's commitment not to assist unsafeguarded nuclear activities and its agreement to abide by the guideline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We remain concerned, however, about the adequacy of China's export of arms as well as sensitive goods and technologies to Iran and Pakistan. Through our dialogue, we are working with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and exp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 and other areas.

More broadly, we have maintained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at the UN Security Council; we consult regularly on Korea; we are exploring steps to avoid military incidents at sea; we have a shared interest in fighting international terrorism and crime; and we have joined forces on specific problems such as halting the inhumane and criminal practice of smuggling illegal aliens.

Finally, as the world's top producers of greenhouse gases, the U.S. and China must cooperate in responding to the strategic danger posed by threats to the global environment. Those of you who have traveled in East Asia know that the "Asia miracle" has been accompanied in some places by undrivable streets, unbreathable air, undrinkable water and unbearable living conditions. We all should care whether the globe's strongest power, and its largest, are able to work together to ensure a future that

is not only wealthier – but healthier.

The U.S.-China relationship is guided by principles set out in the 1972 Shanghai and two later Communiqués. Pursuant to these documents, we recognized the Government of the PRC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of China. At the same time,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of 1979, we have maintained strong unofficial ties with the people of Taiwan, thereby helping to propel Taiwan's flourishing democracy.

Although leaders in both the PRC and Taiwan recognize the need to resolve differences peacefully, those differences remain a potential source of instability. That is why we have stressed to both Beijing and Taipei that our "one China" policy is firm, and that they should do all they can to build mutual confidence and avoid provocative actions and words.

In this regard, our naval presence in the Pacific plays a stabilizing role. When China's military exercises caused tensions in the Strait early last year, our deployment of two aircraft carriers helped lower the risk of miscalculation.

Another important element in the U.S.-China dialogue is our interest in the future of Hong Kong.

Two centuries ago, Hong Kong was a treeless granite island populated by leopards, tigers, mongooses, butterflies and what has been described as "an unusual variety of newt." Today, it is a vital and astonishing center of global commerce. I am a skeptic about the human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but I pay homage to the 12th century Chinese poet who imagined a Hong Kong ablaze "with

a host of stars in the deep night and a multitude of ships passing to and fro within the harbor."

On July 1, less than ninety days from now, the world will watch with a mixture of hope and concern as Hong Kong reverts to Chinese sovereignty.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is reversion under the terms of the 1984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which calls for the preservation of Hong Kong's high degree of autonomy and its way of life and basic freedoms.

As I assured Martin Lee, the leader of Hong Kong's largest democratic party, in a meeting I help with him yesterday,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mmitted to freedom and democracy in Hong Kong, as elsewhere.

In addition, 40,000 Americans live in Hong Kong; our citizens have \$13 billion in investments there; and we have an interest i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nd in port access for Navy ships. Advancing these interests depends on the rule of law and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in Hong Kong.

Accordingly, I have decided to accept the invitation of the British and Chinese Governments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at the reversion ceremony in July. By so doing, I will underline American support for the continuation of Hong Kong's current way of life and freedoms. And I will emphasize America's continued involvement in protecting our interests and supporting Hong Kong's people as they enter the Chinese nation.

A major area of dis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human rights. We recognize that the Chinese people today possess far more options in their daily lives than did their parents. Progress has also been made in revising civil and criminal law and in permitting a degree of choice in village elections.

China is changing, but the Chinese government's repression of political dissent has no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hine the spotlight on egreg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human rights in China, as elsewhere. The world cannot and should not be allowed to forget dissidents such as Wei Jingsheng and Wang Dan, both of whom have been sentenced to long terms in jail for their non-violent support of democracy.

We have expressed to China particular interest in seeing the release of those imprisoned for the peaceful expression of political, religious, or social views and, as a first step, the release on medical parole of those who are eligible. We have urge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be given access to prisoners. And we have stressed the value of resuming negotiations between Beijing and the Dalai Lama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ibet's unique cultural, linguistic, and religious heritage within China.

Earlier toda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decided not to consider a resolution we had cosponsored that would have urged Chin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practices. We regret that decision. We congratulate the Government of Denmark for

sponsoring the Resolution and the others who cosponsored it.

The Clinton Administration views human rights as an essential part of what our country is all about. We recognize that no nation is perfect, and that none has all the answers. But we also believe that human rights are a legitimate subject for discussion among nations. On this, we differ with China. But we also differ with those who believe that the way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China would be to deny to that country the trading status we accord to most others.

For years, the debate in Washington linking to human rights in China has raged. And for years, it has failed to advance American interests or to produce progress in China.

Instead, this debate has divided us, and blurred the focus we should be putting on Chinese practices. The debate has also created the perception that our economic ties to the PRC and our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re in opposition when, in fact, the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conomic openness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are not identical, but they do reinforce each other. Both add to China's integration within the world community.

As Americans, we all enjoy a good debate, but we should also realize that - in this debate - we all have the same goal. And that goal is a China that is a responsible and deeply engaged participan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at is meeting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ose that concern the treatment of its own people.

The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based on any particular presumptions about the future. On the contrary, it is designed to influence the future in manner that serves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he region and the world.

Later this month, we will welcome Vice Premier Qian Qichen to Washington. And later this year, we look forward to a meeting between President Clinton and China's President Jiang Zemin. Throughout, we will continue efforts to narrow differences, expand cooperation and build understanding. And we anticipate that the larger process of increased ties between the American and Chinese peoples will accelerate with profoundly positive results.

The unifying trends of economic and political modernization that are sweeping East Asia have not erased the region's kaleidoscopic diversity. Nations are adapting to growth and change each in their own distinctive ways. But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wo countries, in particular, deserves mention now and here.

In Cambodia, the terror of Khmer past - Pol Pot's genocidal Khmer Rouge - has faded in relevance and power. But the transition to a democratic future has been slowed by corruption, infringement of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violence.

As Cambodians prepare for elections next year, we call upon all factions to honor the past sacrifices of the Cambodian people and to agree to debate their differences openly and to settle them peacefully, in accordance with the popular will.

In Burman, a military dictatorship continues to repress a democratic movement that enjoys wide and proven popular support. The outcome of this struggle matters to us because Burma's

potential can only be realized by a government accountable to its people. And it matters because Burma is the largest source of heroin in the world.

Our policy is to oppose repression and support a dialogu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opposition, led by the Nobel-prizewinning Aung San Suu Kyi, and including the leaders of Burma's many ethnic groups.

U.S. officials, myself included, have stressed to Burma's military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a democratic opening.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by placing even greater limits on the right of political expression and by throwing peaceful demonstrators in jail. These decisions continue to have corrosive effect on the Burmese government's standing at home and abroad; and Burmese leaders are on notice that, unless the clouds of repression are lifted, they will face investment sanctions under U.S. law.

There are some scholars who suggest that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re not well-suited to Asia, and that our focus on them is an attempt to impose alien values. But to me, that argument is more rationalization than rational.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flects aspirations that are common to all cultures on all continents. Those who stood up to tanks in Tiananmen Square, transformed the Philippines from kleptocracy to democracy, and who are now raising their voices for freedom in Burma are both true democrats and true Asians. They deserve our respect and the world's



Before I close, I would like to stress again one central point. American policy in Asia has many facets, but those facets are inter-related, not separate and distinct. If you are an American interested in investing in Asia, you will care whether the legal structure in that country respects individual rights, and whether the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s stable.

If you are a military planner, you will want to see nations moving ahead with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because you know that democracy is a parent to peace.

If you are a human rights activist, you will want to encourage outside investment, expanded trade, and a broad dialogue between nations that are democratic and those that are just beginning to experiment with democratic institutions.

And if you are Secretary of State, you will be determined to move ahead on all fronts, encouraging the full integration of every country in the region into an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the rule of law.

Fifty years ago this month, President Harry Truman addressed an American people still weary from war and wary of the commitments that loomed in the dawn of the postwar world. He said that "the process of adapting ourselves to the new concept of world responsibility is naturally a difficult and painful one. But it is not in our nature to shirk our obligations."

Truman continued by saying that "we have a heritage that constitutes the greatest resource of this nation, I call it the spirit

and character of the American people. We not only cherish freedom and defend it, if we need with our lives, but (we) also recognize the right of other (people) and other nations to share it."

It was not enough, after World War II, to say that the enemy had been defeated, and that what we were against had failed. The scourge of war had cut too deep. The generation that defeated Hitler and won the war in the Pacific was determined to build a foundation of principle and purpose that would last. Together, they designed the institutions and alliances that would one day defeat Communism, promote prosperity and strengthen the rule of law around the world.

To them, and to all those who have fought and sacrificed so that we might be free, we have inherited a duty to history and to ourselves. If we allow the momentum towards democracy to stall, or turn away from our responsibilities, or take for granted the blessings of liberty, we would betray generations past and future, and squander all that is truly precious to ourselves.

The dawn of a new century carries with it no guarantees. It will be our shared task, as diplomats, sailors, marines and just plain citizens to shape a future in which our interests are advanced, our values flourish, our goodwill is understood and our determination and capacity to defend freedom is never in doubt.

Tonight, as I look out at you - the Naval officers and leaders of tomorrow - I have no doubt that in this shared task, we will prevail. Thank you very much.

## 나. B. Atwood, Korea society hunger center 포럼 (97.9.19)

북한분제의 복잡성은 북한의 고립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공산독재하에서 50년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단절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서구민주주의 가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1997년 현재에도 전쟁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이러한 시국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외교적 영역에서는 물론 인도적 처리단계에서조차 이러한 긴장이 반영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개방과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한가지 사실만은 명백하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인 인도적 문제, 외교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명백히 해두고자 한다. 우리는 급박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4자회담에서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그러한 연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도적 원칙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식량위기가 단지 홍수나 가뭄같은 자연적 재해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하에서는 결코 기아를 겪지 않으며 '왜 독재정권과 중앙집권적 경제하에서는 항상 기아에 허덕이는가'라고 하는 명백한 예를 북한에서 보게되었다. 부족한 투자와 기술 그리고 비생산적인 정치에 의하여 북한은 농업생산에서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였다. 북한의 산업생산은 지난 80년대 이래 약 80%로 줄어 들게 되었다.

과거에 국제적 재정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불약속을 고의적으로 파기한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해 새로이 신용을 확대시키려는 기구는 거의 없다. 테러리즘과 도발적인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그리고 한·미와의 전쟁상태 지속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무역규제와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몇몇 국

가와 최소의 수준으로 물물교환이 계속되고 중국이 많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하향곡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실질적인 개혁에 달려있다. 그러한 개혁은 북한의 정치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충분한 식량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규범을 채택할 필요성이 증가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만이 2,300만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의 4자회담에서의 진전은 북한이 유연해지고 변화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의 고무적 징표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농업개혁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으며, 기회가 되면 북한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명백히 북한의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영양실조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으며, 또한 아사에 관한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 국가, 특히 당은 공공분배체제 혹은 식량보급소를 가동하고 있으나, 홍수와 최근의 가뭄으로 정부가 곡물배분량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발표에 의하면 350그램에서 300그램, 300그램에서 250그램으로 변화되고 있다. 현재의 평균적이고 공식적인 분배량은 하루에 한집에도 못미치는 100그램의 곡물이다. 북한의 이러한 평균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속성상 합리적 판단은 어렵게 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알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일부는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곡물을 아끼기 위한 방편으로 가축을 줄이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UN과 북한사이에 1996년초 이래 협의하고 있던 영양평가는 결국 한달전에 시작되었다. 기간과 범위는 북한의 북부지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표본조사를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수정되었으나, 결과는 쓸모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은 넓은 범위의 '위기극복 메커니즘'을 촉진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 졌다. 그들은 최소한 약간씩이라도 모두를 먹여 살리고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대체 식량을 개발해 왔고 더많은 시장개방과 물물교환을 장려해 왔으며 좀더 많은 사유농지를 허용했으며, 다양한 여름채소작물을 재배토록 하였다. 신빙성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까하는 문제는 남는다.

의심할 바없이 식량지원, 특히 WFP의 노력을 통한 식량지원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미국은 올해 177,000톤을 제공했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올해 수확기전 가장 어려운 때에 도착했다. 1995년 7-8월에 걸친 심한 폭우는 북한의 서부와 남부를 강타했다. 경작지중 1백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수확기전에 피해를 입었고 5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995년과 1996년사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긴급식량 지원을 위해 UNICEF와 WFP에 국제재난원조기금으로 2백25만달러를 제공했다. 이 기금은 식량배분과정을 평가하고 있는 해외재난구호사무국으로부터 독립된 식량계획업자며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1996년내내 지속되고 특히 지난 1995년 홍수에 타격을 입은 지역에 또한번의 홍수가 다시 엄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은 가속되었다. 최소 11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3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2백50만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심각한 기근 상황에 빠져 있다.

모두 합쳐 최소 5백20만의 사람들이 홍수피해를 입었고 식량부족을 겪었다. 이에 대해 USAID는 쌀, 옥수수가루, 대두유 등 13,000톤을 제공했는데 이는 거의 6백30만달러에 달하는 양이다. 이러한 물자는 보육원, 고아원, 병원 등지에 보내졌으며, 식량을 모두 잃은 농촌에도 보내어져 새로운 수확기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4월 15일 우리는 식량평화기구를 통해 대략 2백60만에 달하는 6세이하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백만 달러이치의 50,000톤을 추가지원하

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식량지원은 환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은 물론 홍수피해를 받은 경작지 회복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7월15일 우리는 1995년과 1996년의 홍수에 의해 가중된 만성적 식량부족에 대해 100,000톤의 추가 식량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물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취약지역에 식량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미국 PVO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WFP는 실제적인 식량배분에 관련된 업무와 PVO감시단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약 10명에서 15명의 PVO감시단이 8월중순에 북한에 도착하여 11월 중순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이때쯤이면 미국의 식량배분이 완료되고 다음 수확으로부터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북한정부는 우리의 PVO의 이러한 규모를 허가하지 않았다. 5명만이 평양에 있으며, 그들은 3곳의 주요 농촌지역에서 분배감시에 대해 교섭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최소 조건이며 전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관례라는 것을 믿고 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의 식량이 북한군에 지원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국가방위 단위라고 생각하는 200백만을 훨씬 초과하는 정규군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과잉무장된 국가로서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량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토론회자들이 언급하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식량이 군대로 전용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정권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군에 식량이 제공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은 국내 불자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중략)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문제는 단기적 식량지원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만약 기아와 질병의 사이클이 끊어진다면 북한에서의 식량감산의 근본원인은 변화되어

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4자회담에서의 진전은 긍정적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북한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정권에 대해 희망적 견해와 잘못된 낙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식량이 군대에 가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적절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B. Atwood Speech : Korea Society Formm on North Korea('97.9.19)

North Korea's complexity is compounded by its isolation. North Korea has been sharply cut off from most of the world for 50 years under an autocratic communist regime. This experience has left North Korea with a deep suspicion and hostility to the west and democratic values.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see themselves as "at war" even in 1997, and that they publicly describe themselves in this optic, should greatly concern us all. These tensions are reflected in the treatment of visitor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as well as in the realm of diplomacy.

One thing seems clear : North Korea is still far from embarking on a transition to open government and an open market. Moreover, we must recognize that in the medium term, our concerns with regard to North Korea - humanitarian, diplomatic, and yes, even military - are all interrelated.

But let me be clear on this point : We have been careful to maintain a strict separation between our response to an immediate humanitarian crisis and our desire for political progress at the Four Party talks.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have pressed for such a linkage, but we have stuck to basic humanitarian precepts.

However, we have also recognized for some time that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is not the simple resul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or drought. It has long been said that no democracy has ever suffered a famine, and North Korea offers a vivid example of why totalitarian regimes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es have



always been vulnerable to food shortages. There is an inexorable decline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which is being driven by shortages of inputs, inefficient technologies and counterproductive policies.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has contracted by some 80 percent - 80 percent - since the late 1980s.

Past failure to honor international financial commitments means that few institutions are willing to extend new credit to a country that has willfully abrogated repayment. Association with terrorism, the transfer of weapons to rogue states, the continuation of a technical state of war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sulted in trade sanctions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While barter continues at minimal levels with some countries, and while China provides North Korea with much of its imports, a downward economic spiral continues.

The only hope for reversing this decline lies with meaningful reform. Such reform will require policy changes by the North Koreans. There is a clear need to adopt the new practices - technological and economic - necessary for efficient food production. In the long term,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 only way that North Korea can independently feed, clothe and advance the well-being of its 23 million people.

The current progress in the Four Party talks is an encouraging sign the North Koreans can be flexible and can see the benefits of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aid it is ready to support the adoption of agricultural reforms, and when the time comes, we will raise this with the North Koreans directly.

However, in the short term, we face a major humanitarian crisis. Clearly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in severe distress. There have been numerous reports of widespread malnutrition, especially among children and the elderly. There have also been credible reports of deaths. The Government, essentially the party, runs the country's "Public Distribution System," or food dispensary. Floods, and now drought, caused the government to reduce its cereal rationing, which they announce regularly : from 350 grams to 300; from 300 to 250. Now, the average official ration is 100 grams of grains per day, less than a cupful. The average North Korean must augment this ration as best they can.

Ye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akes a reasoned response difficult. We know that there is a sever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We know that a portion of the population suffers from malnutrition. We know that livestock has been depleted in order to conserve grains. But aside from anecdotal reports, we do not know the magnitude of this man-made humanitarian crisis which could help us better ease their pain and suffering. North Korea restricts movement of foreigners. A nutritional assessment, under negotiation since early 1996 between the UN and North Korea, was finally begun a month ago. Even then, the terms and scope were unilaterally modified to preclude statistically valid sampling in the northern sections of the country. Results are just becoming available.

North Korea has been flexible enough to encourage a wide range of "coping mechanisms." They have concentrated on feeding all of their people at least a little, refusing to write off any group. They

have developed alternative foods, encouraged more open markets and barter with China, permitted more small private agricultural plots, and encouraged multiple crops of summer vegetables. In the absence of reliable data, it remains difficult to tell how successful these efforts have been.

Unquestionably food aid, notab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World Food Program, has saved lives. The U.S. this year has contributed 177,000 tons, most of it arriving during the leanest period before this year's harvest. In Unquestionably food aid, notab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World Food Program, has saved lives. The U.S. this year has contributed 177,000 tons, most of it arriving during the leanest period before this year's harvest. In 1995, severe flooding, caused by torrential rains from July to August, swept through the western and northern regions of North Korea. More than 1 million acres of arable land were damaged just before harvest time and 500,000 people were left homeless.

Between September 1995 and February 1996,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released \$2.25 million in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funds to UNICEF and the WFP for emergency health and food assistance. This funding also supported an independent Food Program Observer from our 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 who assessed the food distribution process.

The humanitarian crisis continued in North Korea throughout 1996 and was aggravated by additional floods in late July that ravaged areas that were struck by the 1995 floods. At least 117 people were reportedly killed, 30,000 left homeless and nearly 2.5

million women and children in the north were placed at serious risk of starvation.

In all, North Korea estimated that at least 5.2 million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the floods and ensuing food shortages. In response, USAID's contributed over 13,000 metric tons of rice, corn meal, and corn soya blend valued at nearly \$6.3 million. These commodities went to nurseries and kindergartens, clinics and hospitals. They also went to those farming communities where crops had been wiped out, so that the farmers themselves had food to eat until the new harvest could come in.

On April 15, 1997 we announced we would provide an additional 50,000 metric tons of corn through the Office of Food For Peace valued at nearly \$15 million, to assist the roughly 2.6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in North Korea. This food aid also assisted in the recovery of flood-affected arable land, as well as provided food to hospital patients. On July 15 we announced the provision of an additional 100,000 metric tons of food aid, in response to the country's food crisis due to the chronic food production shortfalls, exacerbated by the 1995 and 1996 floods. This brings total US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ate, to roughly \$60.5 million.

The use of these commodities are being monitored by U.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to ensure that our food reaches additional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The World Food program will oversee logistics related to the actual distribution of food and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PVO monitors. Our hope was that approximately 10 to 15 PVO staff would arrive in country in

mid-August and would stay through Mid-November, when distribution of U.S. food will be completed and food from the next harvest will be available.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permit a presence of this size by our PVO community. Five staff are in Pyongyang, and they have managed to negotiate distribution monitoring in three key agricultural provinces. We believe that full and free access to areas in which our assistance is going is a minimal condition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 practice that is followed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always insisted in providing aid that no U.S. food must go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North Korea provides for an active military in excess of 2 million people, as well as what we would consider national guard units and militia. North Korea is a heavily armed country which spends a great deal of its resources fuel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This in itself creates issue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our panelists will address.

We have no evidence U.S. food has been diverted to the military. In fact, we need to be realistic about this regime and recognize there is little need for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take food aid. We must assume they are fully provisioned from domestic stocks. Also, Chinese food aid is provided without strings, and to the limited extent additional food is necessary, the Chinese food can be a source.

Assuming we can assure adequate monitoring, the U.S. will

provide additional humanitarian food aid to North Korea. We will await a final assessment of need and we will want to review WFP's appeal for assistance before deciding specific amounts. We also need to stress an integrated relief response including food and health care is critical to the ability to maintain the overall health of vulnerable populations.

Most deaths in countries experiencing major food shortages result from diseases that are exacerbated by malnutrition, rather than from starvation. A substantial lack of critical assistance within the health care sector may significantly undermine large-scale food distribution efforts, by failing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and critical micronutrient deficiencies in relief assistance beneficiary groups. As such, attention to health care remains critical in North Korea, as it does in other countries experiencing critical food shortages.

The humanitarian needs of North Korea will not be solved with short term food ai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in North Korea must change if the current cycle of hunger and malnutrition is to be broken. Here again, if North Korea demonstrates it is willing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causes of its crisis, the U.S. will be willing to help, as will other countries.

Recent progress toward Four Party talks is perhaps a positive sign. However, we are experienced enough to know change is difficult and will be especially so in North Korea. We should not indulge in wishful thinking about this regime or false optimism. Nor will we compromise basic precepts that our food will not go to

the military and that it will be adequately monitored to assure it reaches intended beneficiaries. Thank you.

## 다. H. Shelton 합참의장, 한미안보연구회('97.10.24)

오늘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 한반도 안정 유지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한·미동맹의 장기적 유지문제 등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하고 싶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 일련의 북한상황을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많은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내부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소련의 지원을 받은 세계 여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와해, 그들 국가의 고립된 이념과 정치지도자의 사망, 경제적 파산, 그리고 일련의 자연재해는 김정권의 비효율성과 스스로 자초한 고립에 의해 가속됨으로써 현대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으로 된 일련의 자연재해 등이 일어났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이 주시하다시피, 2주전 북한의 지도자는 그의 부친의 직함을 이어받아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하였다. 그러나 북한인민들이 경축분 위기에 있을 때, 세계는 북한이 평화의 새길로 갈것인지 혹은 지금까지와 같은 빈곤한 고립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김정일의 국정방향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선 우리의 계획에서 무장충돌을 포함한 보다 광범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아야 한다. 공공질서의 파괴, 대규모 인도적 지원 필요성, 혹은 대량난민 문제 등이 이들 가운데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시나리오에 더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이며, 위협적인 변수인 백만의 강위력한 조선인민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방위목적에 필요한 이상의, 또한 국가에 의해 지탱되기도 힘든 정도의 무력을 가진 세계 4위의 군대이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조선인민군은 전체인민의 10%까지 확대되어, 일반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무시



해야만하는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능력의 대부분은 DMZ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기와 훈련의 저하 그리고 노후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규모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이외에도, 탄도미사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안정에 새로운 그리고 더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와 사회구조 붕괴라는 시나리오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인민군이 어떤 비합리적 행동에 호소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이러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억제가 공격과 강압을 막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억제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은 한국과의 협조를 통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안보동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이러한 관계는 거의 50년동안 양국을 하나로 묶어왔다. 그것은 신뢰로 형성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의 기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우리 자신의 안보와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개념이다. 한·미는 방위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동반자이다. 한국에 대한 위협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며, 따라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이러한 임무는 한국의 전문적인 무장군인들 옆에 함께 서서 24시간 경계임무를 띠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완전무장된 37,000명의 주한미군을 통해 잘 수행되고 있다.(중략)

한국에서의 미국의 억지력은 이 지역, 특히 주일미군을 통해 증강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지역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총 100,000명의 주둔과 추가적으로 230,000명의 육·해·공군이 대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 역지가 실패하는 불행한 사태와 관련, 나는 한·미의 전쟁수행 능력이 침략자를 빠른 시간내에 물리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방위전략에 대한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2군대의 교전지역에서의 대규모의 광범위한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방위계획 및 최근의 전력구조에 의해 믿을 수 있게 된 이러한 능력이 뜻하는 것은 어디서건 어떠한 범위에서건 개입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의 안보약속을 어기지 않고 계속 지지할 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한·미의 연합능력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의 연합능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상호운용가능성이며, 이것은 전장에서 기술적 장벽이 거의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이점은 완전 무결한 명령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전진배치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호운용의 한계가 발생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스템이 잘 조화되면 될 수록, 우리의 합동방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상호운용에 대한 미국신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한국의 전투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진정한 군사동맹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의 점진적 감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2년 한국의 김동신 장군을 CFC의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부각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상황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한미관계의 성공은 어느때보다 정치·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빈번하고 철저한 협조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한미양국이 군사적 준비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동안 우리의 공동관심사는 우리가 똑같은 열정으로 영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근 많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18개월전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은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제안은 모든 참가국간의 두 번의 예비 회담으로 밝은 전망을 보였다.

그 후 회담은 결렬되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북한은 한국의 방위에서 미국의 역할을 1차회담부터 세부의제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옵션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서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교섭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의한 또다른 비합리적 요구에도 일방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건설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회담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미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수많은 추가제안을 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UNC사령관 Tilelli장군은 38선에서의 44년간 대치상태에 있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UNC와 조선인민군 사이의 장성급 접촉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회담제안의 의미있는 목적은 남북간의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T/S훈련을 상호합의하여 취소한 것은 신뢰 구축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외교로 유도하는 분위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와의 건설적 대화에 우리에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가치있는 목적은 충족되었다고 믿는다.

회담절렬에 관계없이 우리는 북한인민을 기아에서 구출하기 위해 대남보의 지

원을 하였다. 올해 한해에만도 미국은 177,000톤이 넘는 식량을 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한국 또한 97,000톤의 식량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많은 주민은 아마도 추수기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겨울에 대비하여 WFP 호소에 대하여 더많은 식량을 약속했다. Hall의원이 지난주 북한방문 후 전한 바에 의하면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다.(중략)

우리가 북한에서 본 암울한 상황과 극명하게 대립되게 한국은 4,000만 국민의 산업, 상상력, 자유로운 지성으로 얻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중략)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다. 왜 북한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기아, 가난, 공포,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

한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창구를 개방하고 많은 요구를 하였다. 그 후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문제 해결은 한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표명하여 왔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나의 다음 한국 방문시에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H.Shelton's speech : 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luncheon  
address(97.10.24)

I'd like to talk to you today about my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America's Armed Forces in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region, and how we're ensuring the long-term vitality of the U.S.-Republic Of Korea alliance.

As this group knows all too well, recent events in the North attest that the internal situation is extraordinarily precarious, making that troubled country a greater challenge now than at any other time since 1953.

Consider what has happene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sponsored world-wide communist support structure; the death of their country's lone ideological and political leader; economic bankruptcy, and a whole series of natural disasters, exacerbated by the Kim regime's ineffectiveness and self-imposed isolation, leading to the worst famine in their modern history.

Additionally, as you are aware, two weeks ago North Korea's leader assumed his late father's title as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ut while the people of the North celebrated, the rest of the world could only wonder about which direction Kim will take his country : down a new path of peace, or the familiar path of destitute isolation.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we must for the first time in our planning consider a wide range of demanding scenarios in addition

to armed conflict. Among these are loss of public order, a massive ne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r a large number of displaced refugees.

Add to this explosive formula the historically constant, destabilizing factor of the million-person strong Korean People's Army, the fourth largest Army in the world as you are well aware, an Army far larger than is legitimately required for defensive purposes and far more than can be supported by the state. Some reports indicate the KPA has even expanded by up to ten percent, at a cost that must obviously disregard the plight of their general population.

Much of the North's offensive capability is in place right at the edge of the DMZ, and regardless of the poor quality of its morale, its training, and its antiquated equipment, an Army of its size is a formidable threat.

Beyond their conventional capability, the North's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variou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e a new and even greater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Facing a potential scenario in which the government and social structure collapse, we must guard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 KPA will resort to an irrational act, certainly an irrational act from our perspective.

Despite these ever-present threat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believes without reservation that deterrence remains the best means to prevent aggression and

coerc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ur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a vital and enduring security pledge through our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lationship has closely bound our two nations together for nearly five decades. It is a relationship built on trust,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ree will of the people.

A cornerstone of the relationship is the fundamental concept that America's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equally important to our own security and that of the Pacific Region. Our countries are partners not only in defense, but in practicing the core valu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free-market economics. A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a threat to these values, and therefore to America and to all democratic nations.

America's commitment is unmistakably demonstrated by the presence in Korea of thirty-seven-thousand American military men and women, evervigilant, thoroughly trained, and well-equipped as they stand alongside the professional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s armed forces.

America's deterrent forces in country are augmented by forces throughout the region, particularly those stationed in Japan. In all, we have 100,000 men and women in the region and an additional 230,000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fully ready to commit their energies to maintain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or, if necessary, responding to a crisis.

This alliance, of course, is fully prepared to deal decisively with

the full spectrum of military operations, including fighting and winning a major theat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f required. In the unfortunate event that deterrence fails, I am confident that the U.S.-Republic of Korea war-fighting capability is sufficient to defeat rapidly an aggressor. Let there be no mistake: our dedication to deterrence is made possible by our readiness to confront any contingency.

As you heard during our debates on U.S. defense strategy, America remains committed to maintaining sufficient forces to defeat large scale, cross-border aggression in two distant theaters.

This ability, made credible both by our defense planning and our current force structure, means that no matter where and to what foreseeable extent America's Armed Forces are otherwise engaged, we will still possess the means to uphold without interruption our promise of security to the Republic of Korea.

I mentioned how confident I am in the capabilities of the U.S.-Republic of Korea team. A major source of our combined strength is our interoperability, which is our ability to work side-by-side in the field with few technology barriers. This advantage results from our ability to seamlessly command and control our forces and to provide appropriate and timely logistics support to those forces.

As new systems are fielded, we must ensure that a limit on our interoperability is not a by-product. The more compatible our systems are, the stronger is our collective defense.

An essential aspect of America's faith in interoperability is our



faith in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confirmed by the gradual reduction in the US military profile since the early 1990s, which I think reflects the true military partnership.

This initiative was highlighted in 1992 by the appointment of Korean General Kim Dong Shin to command the ground component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But a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becomes more complicated, now more than ever, the success of our relationship depends on frequent and thorough consultations at all levels of political and military activity. Because while both our countries continue to strengthen our military readiness, the ideals we share compel us to pursue with equal vigor the goal of lasting peace. Many initiatives have recently been proposed to help achieve this very important end.

The four-party talks proposed by President Clinton and President Kim at their summit 18 months ago have the potential to reap dramatic results. This initiative showed great promise when all parties attended both preparatory sessions.

Since then, the talks have broken down. As you are aware, North Korea insisted that the U.S. role in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be a specific agenda item for the first plenary session; this, from our standpoint, was simply not an option.

Nor will the United States unilaterally negotiate its role in the Republic of Korea's security, another unreasonable demand made by the North. Nonetheless,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stand ready to continue talks that are general in nature and with the sole goal of establishing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lest we forget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undertaken a number of additional initiatives to ease tension and to enhance relations with the North.

General Tilelli, Commander in 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inues his effort to restart the General Officer talks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KPA to reduce the tension inherent in the 44-year armed standoff at the 38th parallel. A meaningful goal of these proposed talks is the establishment of a crisis management mechanism between the North and the Republic of Korea.

Our mutually agreed cancellation of Team Spirit, the annual combined war fighting exercise, was done as a confidence-building measure and to contribute to an atmosphere conducive to diplomacy. I believe these worthy objectives were satisfied, even if the North chose not to pursue the opportunity to engage us in constructive talks.

Without regard to the breakdown in negotiations, we have contributed immensely to relieve the starv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is year alone, the U.S. has given to the people of the North over 177,000 tons of food;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ributed another 97,000 tons.

Had it not been for this assistance, many people in the North, perhaps hundreds of thousands, may not have lived to the Summer harvest. Looking to the Winter, we have promised to give more

food as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may ask. As Congressman Hall reported last week after his historic trip to North Korea, the suffering continues.

In stark contrast to the dismal state of affairs that we find in the North is the remarkable success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earned by the industry, imagination, and free intellect of your 40 million people.

I challenge this conference with the question : why can't those in the North overcome their ideology and see the better way, the clear path that is free of hunger, rampant poverty, fear, and ignorance?

The Republic of Korea began an earnest quest for peace over twenty-five years ago by opening a dialogue with the North. Since then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inued to demonstrate the realization that the solution for ultimate peace on the peninsula must come from the Korean people.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I look forward to seeing many of you during my upcoming visit to Korea.

I wish you the very best and Godspeed in your pursuit of peace, a worthy goal that can be achieved. Thank you.

## 라. S. Roth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홍콩 세계경제포럼 (’97.10.15)

이처럼 훌륭한 분들과 자리를 같이한 것은 영광이며, 이러한 주제에 이보다 잘 어울리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위를 돌아보고 나는 비교적 얼마되지 않은 과거의 홍콩과 아시아를 회상하며 놀라움을 금치못하였다. 여러분들은 오랜기간의 인도차이나 위기, 전쟁과 전쟁설 등 동남아시아의 “대치상황”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는 이지역이 관심밖이었으며, 외부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 (중략)

이 지역의 더많은 경제, 정치발전은 미국의 장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개혁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이긴 하지만,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이지역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 모든사회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안보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이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자신의 임무는 명백하다. 테러리즘, 이민, 인구과밀 등 환경파괴와 같은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다자간 협력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오스트렐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타이와 상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였다. 대서양 국가이면서 또한 태평양국가로서, 우리가 유럽에서와 같은 그리고 보완적인 수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지역에서 10만명의 전진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어적 미·일 안보관계는 우리정책의 중심적인 지주가 된다. 우리는 일본과 탈냉전시대에 상응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기초적인 동맹구도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침이 1960년의 상호안보조약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이 지침은 양국의 임무와 역할을 명백히 하기 위한 기본적 틀과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현재일본의 헌법을 존중하며, 일본의 지역에서의 전투작전에 일본을 개입시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의 일본과의 안보관계는 어떤 다른 나라를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방어적 개념이며, 전적으로 지역의 안정과 우방들의 안보를 지키도록 짜여져 있다.

우리의 안보동맹을 통한 미국의 역할은 급세기 어느때보다도 아시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왔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에 의해 향유될 자유를 확대할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평화와 부의 시대의 젊은 세대는 최소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전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은 결코 전쟁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맹세한다.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정면으로 대응함으로써만 그들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를 보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중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현대는 현대적인 공포를 만들어 냈다. 대량살상무기는 점차 싸지고, 만들기 쉬워지고, 또한 더욱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오랫동안 관심사였으며, 우리는 선구화학물질 무역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사일을 포함한 운반체계의 불법적 확산과 확대는 반드시 멈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미사일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과 이란의 협력 가능성에 관한 보고에 유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보조를 취하고 있다. 북경은 이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지침과 한계를 지킬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다른 판매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MTCR 완전준수를 기대한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어떠한 통제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미사일문제에 대한 협상으로 북한을 유도하였으며, 차기회담일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긴급한 요구는 우리시대의 특별한 무기인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비핵무기지대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다른 핵무기보유국 및 ASEAN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아시아국가 그리고 비아시아국가들과 접촉하는데 있어, 가장 긴박한 핵위협인 북한 핵계획 대해 조치를 취했다. 기본합의서와 KEDO실립으로써 그 계획은 즉각 동결되었다. 그러

한 이득이 모두에게 돌아간 반면, 책임은 너무 적은 나라에 지워졌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기본합의와 KEDO에 대해 우리 모두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싸워 이겨야하는데 필요한 약 37,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안정을 원한다. 김대통령과 클린턴에 의해 제안된 4자회담은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북한에게 이익없는 대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사망후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던 김정일의 당총비서 승계로 북한이 평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시대에 가장 희망적인 발전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금 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발전, 개방, 그리고 국제적 불을 포용하는 비공격적인 국가로서의 중국의 출현은 아시아와 세계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익인 것처럼 미국에 있어서도 이익인 것이다.

등소평이 지적한 대로 중국의 황금시대였던 당·송은 중세 왕국중 외부세계에 가장 개방적일 때였다.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어질 때, 쇠퇴하였다. 등소평의 시대, 그리고 과거시대에 있어서와 같이, 오늘날 열려진 중국과 닫혀진 중국의 전망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혹자는 오늘날 경제의 신선한 피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다른나라와 접촉할 때 나름대로의 룰을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은 '부강책'이 아니라 스스로 약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현대세계에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세계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을 선택해야만 한다. 세계를 향한 열린 시스템은 중국의 특

유한 자질을 세계적 관점에 접목시킴으로써 진화되고 발전되었다.

중국이 고립되건 아니건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중국을 '억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중국을 기대한다.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이 향후 나타날 세계체제에 통합되고 그 체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경우에만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중국관료들과 한국, 캄보디아, 남아시아 그리고 걸프만 등 공통관심사인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강태민의 방문이 현실화 되면, 우리는 중국과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를 가질 것이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더 이상 다른나라를 조종하거나 스스로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계의 건설적 동반자인 중국을 보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시아에서 우리의 안보목적은 이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친구와 이웃으로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Roth speech : Ensuring Growth and Stability in East Asia('97.10.15)

It is an honor to be here today with such distinguished colleagues. I can think of no location more relevant to this theme. When I look around me, I am amazed to recall the Hong Kong, and the Asia, of the relatively recent past. You will remember the era of the "Confrontation" in Southeast Asia, the long crisis of Indochina, the wars and rumors of war. It was a time when this region was marginalized, and to some degree even written-off, by outside observers.

The spectacular rat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sia have been increasingly associated with a growing regional cooperation, a development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its part. After all, we are not strangers here. The United States is an integral part of the Asia-Pacific region. We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the region, just as other member states are becoming more interconnect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each other. We are all bound together, not just by geography, but by economic, ethnic, and historical links that grow stronger every day. This gives us great opportunities today and equally great responsibilities for tomorrow.

The further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gion is critical to America's future. We believe that lasting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evolution are dependent upon each other. Both are progressing rapidly in the region, albeit at unequal paces in different places. However, neither can be enjoyed without protecting our security, a fundamental duty of every state and



every community of nations.

Our own commitment is clear.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backed proposal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on emerging security concerns such as terrorism, crime and illegal narcotics, migration, overpopul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have supported security dialogue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and the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involving the members of the Asia-Pacific community.

Bilaterally, we reaffirmed and solidified security alliances with Australia, Japan,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iland. As much a Pacific nation as an Atlantic one, we maintain a forward presence of 100,000 troops here as we keep an equal and complementary number in Europe.

In this context, our defensive security relationship with Japan remains a central pillar of our policy. We have worked with the Japanese to keep the alliance relevant to the post-Cold War world. 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build upon the basic alliance structure. They do not change the 1960 Mutual Security Treaty. They do provide a general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to clarify the roles and mission of the two countries. The guidelines respect the present Japanese constitution and do not contemplate Japanese involvement in combat operations outside of Japan. I want to stress that our security relationship with Japan, like our relationships with all of our regional allies, is not aimed at any other country. It is defensive and designed to bolster the security of the partners and the stability of the area as a whole.

The commitment of American honor, or our own sons and daughters, and of our treasure through our security alliances has helped make Asia more stable today than it has been at any time in this century. As a result, Asia has had room to grow economically and expand the freedoms enjoyed by its peoples. In this period of peace and prosperity, younger citizens have not known war; certainly not on the scale that some of us in this room have. We owe it to them to make sure they never do. We can only guarantee their future and our present by squarely facing the dangers that face us. They are serious and cannot be ignored.

The modern age has brought modern horror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ve become cheaper, easier to construct, and more threatening to us all. Chemical weapons have long been a concern and we need to increase our efforts to control trade in precursor chemicals. The illicit spread and proliferation of delivery systems, including missiles, must be stopped. We are concerned by reports of possible Chinese cooperation with Iran on missile-related issues. Nevertheless, the Chinese have taken some positive steps. Beijing has already indicated its adherence to some of the guidelines and parameter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d voluntarily limited other sales. We are encouraging China's full adherence to the MTCR. Unfortunately, the DPRK has not agreed to any controls. The U.S. has engaged the North in negotiations on missile issues, and we are awaiting the North's response to our proposed dates for the next round of talks.

However, perhaps the most pressing need is to control nuclear arms, weapons unique to our age. We support, in principle,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 We, along with other nuclear weapons states, continue to work with the ASEAN countries to find solutions to our concerns which will allow us to sign the protocol to the Zone. In concert with other Asian and non-Asian nations, we have taken measures against the most immediate nuclear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 a result of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establishment of KED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that program is frozen in its tracks. The benefits have flowed to all; the responsibilities are being borne by too few. The Agreed Framework and KEDO need the material support of us all if it is to succeed.

Unfortunately, Korea remains a potentially dangerous place. We have roughly 37,000 troops there, ready to fight and win with our ROK allies should that become necessary. However, we and the ROK seek a permanent peace and lasting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e Four Party talks proposed by Presidents Kim and Clinton are the only practical way to replace the armistice and achieve a durable peace. They also offer the North its best chance to move away from fruitless confrontation. We hope that the official election as General Secretary of Kim Jong-il, who has wielded the real authority in the DPRK since his father's death, will encourage North Korea to fully engage in the peace process.

I cannot conclude without mentioning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peace and stability in Asia. It may also be one of the most hopeful developments of our time. I refer, of course, to the rise of China. The emergence of China as a rapidly

developing, open, and nonaggressive state that embraces the international rules of the road would be profoundly important for Asia and the world. Most of all, of course, this development is in China's interest. It is in America's interests as it is in the interest of other countries.

As Deng Xiaoping pointed out, the most brilliant of China's golden ages, the Sung and the T'ang, occurred when the Middle Kingdom was most open to the outside world. When China isolated itself, it began to decline. As in Deng's time and as in ancient eras, there is tension today between the vision of an open China and that of a closed China. Some voices seem to suggest that China should "protect" its people b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information, the life-blood of today's economy, and operate by its own rules when interacting with other nations. Neither is possible for long and either would do great harm to China's modernization. This sort of policy would not be "self-strengthening," but self-weakening.

If China is to take its rightful place in the modern world, it must choose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that world. Those systems that opened to the world evolved and thrived, adding their unique qualities to the global perspective. Those that did not have fallen behind in every sphere.

Whether China becomes isolated or not is in its own hands. We have neither the desire nor the ability to "contain" China. We have every desire to see a stable, prosperous, peaceful China. This can only happen, as the Chinese people know, if China is integrated into the emerging world system and helps shape that system. For

this reason, we seek opportunities for strategic dialogue with Chinese officials on policy issues of common concern, such as Korea, Cambodia, South Asia and the Persian Gulf. As the upcoming visit of President Jiang will demonstrate, we are committed to a regular and high-level dialogue with China. Our long-range goal is to see a China which is never again the object of others' manipulation and its own fears, but is a constructive participant of the world community.

In short, our security goals in Asia remain the objectives of our friends and neighbors in the region, maintaining and expand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is is what has allowed the area to develop so rapidly. It is essential that we never forget this basic fact.

## 4. 전문가 학술지 기고문

가. M. Noland(진보정책연구소), Foreign Affairs('97.7·8)

### 관료자본주의

지금 북한경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기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약간의 외부지원 혹은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최저수준의 생존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정권은 주체사상을 성공적으로 한 국민족주의와 융합시켰으며, 중부유럽과 달리 북한에는 대중적 불만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다.

나아가 북한은 국내정치와 지정학적 위치에 비취볼 때,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 그리고 아마도 일본과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1980년대의 루마니아처럼 그리저력 연명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외부세계에 덜 종속된다는 것은 김일성의 사상을 顛倒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천 년전의 과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 빠친꼬 송금

북한경제는 다른 중앙계획적 경제와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단지 차이점은 북한의 중앙계획이 주체사상의 지침에 따라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총량에 대한 추정은 자료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차이가 난다 .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한 외국의 관측자들은 1970년대 후반에 북한경제가 자원의 동원을 통한 “외형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일련의 거시경제적 충격은 - 소련의 원조 중단,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동맹국들과의 단절, 농업을 황폐화시킨 기상악화 등 -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경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용성있는 모든 사

회·경제적 통계는 국가비밀로 간주된다. 수많은 단체와 연구자들이 북한의 국가소득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식적 토론에서 인용된 수치는 항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남한의 공식적 추정치일 뿐이다. 이러한 수치는 남한의 정보기관이 산출한 항목별 물적 생산량 수치를 가지고, 각각의 목록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계수를 적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초의 물적 생산량 추정치가 항목화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가격과 부가치 비중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남한정부의 정보기관간 흥정에 종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은행자료를 인용하면, 북한경제의 규모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약 30% 정도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지만, 과도적인 경제에서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소득이 하락한 만큼 가계복지수준도 하락했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회계제도에서 과소평가되고 물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주거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가 물적 생산만큼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소득에 대한 추정이 반드시 실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불만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치를 오차와 수송비용 등을 조정한 후에 각각을 종합하면, 무역과 자본량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3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는 북한은 만성적이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이따 많이 지적되는 바와 같이 무역총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록 적자를 보지만 중국으로부터 우호적인 조건으로 수입을 하고 남한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얻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남한은 암묵적으로 북한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보게 될 적자를 상당부분을 메꾸어주는 것이 된다.

하지만 북한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수익달러가 부족한 형편이다. 수



출 외에 북한이 경화를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아마 재일교포들이 보내주는 송금일 것이다. 송금액의 정도는 일본으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이 그들의 친척에게서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금액, 재일교포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빠칭꼬에서 나오는 수익금액,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수지의 균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송금 추정액도 1년에 수백만 달러 이하에서 20억 달러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아마 1억달러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olas Eberstadt)도 Asian Survey 1996년 5월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남방과 해안지역을 개방한 중국의 선례를 따라 북동쪽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땀질식 처방은 북한내부에서는 정치적 논쟁거리일뿐 경제의 쇠락을 반전시킬 것 같지는 않다.(중략)

### **충격요법과 평화적 방법**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첫째, 북한지도부는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제회복을 위하여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지도부는 체제붕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버텨내기를 시도할 수 있다.

셋째로는 북한 지도부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인 조정으로 그럭저럭 연명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중앙통제가 이완됨으로써 초기에 생산이 감소한 루마니아의 관료자본주의와 같은 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개 혁**

개혁을 선택하면 잠재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기대된다. 북한은 좋은 조건에 있던 경제하락 시기 이전의 수준에서 50% 이상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경험적으로 볼 때, 중앙계획경제를 개혁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성공적이고 아시아적인 점진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적이고 유럽적인 “붕괴”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 국가인 북한은 성공적이며 점진적인 접근을 택할 것이고,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1년에 10%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계획경제의 점진적인 개혁은 중공업부문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가장 좋은 1차적 조건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성공적인 농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나라는 국유 중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나라들은 가격자유화를 택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잉여노동자를 새로 나타나는 비정부 혹은 준개인 중공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급속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부문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북한은 또한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남한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막상 개혁에 나서게 되면, 국가철학 자체가 의분에 싸이게 될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북한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경제일 것이다. 자유화는 생산과 고용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역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무역은 남한과 일본 두 나라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한과의 정치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외부환경이 필요하다. 군부(아마 경제적 가치에 접근하는 데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응집력을 가진 집단일 것이다)는 변화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국가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개혁에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은 남한과 어느 정도의 관계개선을 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붕괴와 통일

북한 정권이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현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 이러한 길이 일시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보장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경제적 궁핍으로 상당수준의 인구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스스로 자초한 기근에서 벗어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은 혁명적인 정권이 아니라 거의 50년 가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습적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권에서는 통치자도 피치자도 혁명적 열기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둘째, 북한은 상대적으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짜낼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셋째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기근은 생산을 저해하는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고, 이러한 정책이 철회됨으로써 바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농업문제는 일시적 정책 실패나 기상악화 때문이 아니라 지난 2세대간에 걸친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의 끝에서 망실인다 하더라도, 통일의 비용은 남한이 감당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클 것이다. 독일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된다. 독일통일은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요구했으며, 투자기간도 오래 걸렸다.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도 동독은 전환에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통일과 불경기로 인한 출생률의 격감과 사망률의 증가는 내전시기나 패전시기를 포함하여 독일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결혼과 출생율의 감소가 일부는 중단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률의 증가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독일보다 더욱 암울한 점도 있다.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음에 비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에 달한다. 동독의 소득수준이 서독의 3분의 1에서 절반수준이었음에 비해,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경제는 동독보다 더욱 왜곡돼 있고, 남한은 서독보다 부유하지 못하다. 하지만 통일된 한국의 인구는 통일된 독일의 인구보다 젊고, 북한의 인구는 동독의 인구보다 젊다. 이러한 점은 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조정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면, 주민의 대량 남하를 막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여야 할 자본으로 정의될 수 있는 통일비용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수치는 10년에서 25년의 기간동안 나누어서 부담한다 해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남한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북한주민의 남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남하하는 북한주민들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남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 선출직 관리들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총을 겨눌 수 있겠는가 - 어려운 반면에 두 번째 선택은 남한의 국내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적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 남한의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외국자본 특히 외국의 사적 자본이 북한과 남한에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한은 외국의 직간접적인 투자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외국자본 투자의 자유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혜택만이 아니라, 통일한국에 대한 사적 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통일 이전에 북한에 투자된 남한의 자본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은 외국 의 직접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필요할 경우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과 함께 이루어지고 남한의 법체계와 제도가 통일된 한국 전역으로 확장되면 국제적 사적 자본을 재빨리 동원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국제 공공기금도 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은 중동에서 점령지역의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가 있다. 북한인구의 규모에 맞게 매년 44억달러를 투자하는 세계은행의 기금중 일부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과 일본사이에는 식민지 배상청구권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65년에 남한과 일본 사이의 타결된 배상금을 현재의 가격수준, 인구성장, 이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일본은 약

120억달러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통일비용 1조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연명하는 방법

극단적인 개혁과 붕괴 사이에 겨우 연명해나가는 길이 있다. 여기서 루마니아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마니아와 북한은 중앙계획경제와 그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소득, 사회적 지표, 그리고 노동력의 부문적 배분 등이 비슷하다. 양국 다 외부세계로부터 상징적 독립과 국내정책의 엄격한 교조를 결합하였다. 양국은 한 가족에 의한 사회주의 통치를 경험하였다. 차우체스쿠는 1971년 평양방문 때 개인숭배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루마니아와 북한은 모두 1970년대에 중앙계획경제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양국은 오일달러를 끌어들이므로써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덜었지만, 누적된 외채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차우체스쿠가 빚을 갚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음에 비해, 김일성은 서방세계의 빚을 갚지 않았다.

외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내소비가 억제된 1980년대 초반 루마니아의 생활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는 에너지 위기에다가 기상악화로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아 일을 해야했으며, 농기계 대신에 농축을 이용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악화되기 시작한지 6년이 되는 1987년까지 대중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거나 경제 악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1989년까지 차우체스쿠 정권은 안정되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경험은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실패 사이의 결정적 연계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쿠바, 이라크, 자이레의 경우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는 외국의 의지를 고려하면, 경제와 정치간의 그러한 연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것이다.

루마니아에서 차우체스쿠가 제거된 것은 진정한 혁명이라기 보다는 쿠데타와

같은 것이다. 그 뒤의 경험은 그리저리 인명해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존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루마니아와 북한은 1985년에 2.5%의 성장률을 경험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북한보다 극심한 경제악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개혁이 시작되자 루마니아 경제는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1993년까지는 약간의 성장도 기록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제적 정치적 과정이 북한에서 일어났는지 모른다. 최근에 집권에 실패한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의 사회민주당에 스며들어 있는 구공산당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루마니아 경제개혁 전략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루마니아에서 막가는 경제에 대하여 지배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힘은 공개적 혹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그룹과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할당한다. 구조조정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혹은 그의 후계자는 정권의 정치적 기반에 만족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루마니아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할 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김정일 그룹, 군부, 그리고 아마 노동당의 상위간부들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중국으로부터의 후원과 물질적 원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루마니아가 가지지 못했던 장점이다.

### **Apparatchik Capitalism**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bad shape, and a famine of unknown magnitude is under way in parts of the country, but it appears that minimum survival requirements can be maintained with little or no external support. Kim Jong Il's regime appears to have been largely successful in fusing *juche*(self-reliance) ideology to Korean nationalism, and unlike the countries of Central Europe, North Korea has no institutions capable of channeling mass discontent into effective political action.

Rather, in light of its domestic politics and geopolitical position, North Korea is likely to muddle through, along the lines of Romania in the 1980s, with support from China and possibly Japan and South Korea, which would like to avoid its collapse. Ironically, the reduction of North Korea to a dependency would represent the inversion of the ideology of its founder, Kim Il Sung, and a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of much of the last millennium.

### **Profits From Pachinko**

The North Korean economy is organized like other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ts distinguishing feature has been the extremes to which central planning has been taken under *juche* ideology. As a result, the economy is shrinking, but the margin of error for estimates of almost all economic aggregates of interest is on the order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Foreign observers, including those from other socialist states, concluded that by the late 1970s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experiencing serious problems when its ability to grow "extensively" through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was reaching its limits. A series of macroeconomic shocks in the late 1980s - including the withdrawal of Soviet aid, economic disengagement with its former socialist allies in the Eastern bloc, and bad weather that worsened the crisis in agriculture - exacerbated those difficulties.

Assessing the degree of economic distress in North Korea with any precision is difficult. Virtually all economic and social data are regarded as state secrets. A numbe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ve attempted to estimate North Korea national income, but figures cited in public discussions are invariably the official South Korean estimates produced by the Bank of Korea. Those figures are apparently derived by taking classified data generated by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on physical output and then applying South Korean prices and value-added coefficients to indexes of physical production. Because the original estimates of physical output are classified, there is little opportunity to check their plausibility, nor is it obvious that South Korean prices and value-added weights are the most appropriate. Furthermore, the final growth rate figure is reportedly subject to interagency bargaining with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se caveats in mind, Bank of Korea data indicate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rank by roughly 30 percent from 1991 to 1996, certainly a significant amount, but not unprecedented for a transitional economy. However, the estimated fall in national in-



come may well overstate the reduction in household welfare, since it is unlikely that such services as housing and education, which are undercounted in the socialist accounting system and are not amenable to physical measurement, have declined as much as manufactured output. These estimates of national income are therefore not necessarily indexes of hardship or political discontent.

Somewhat less uncertainty surrounds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hips. In principle one can obtain estimates of trade and capital flows by aggregating the data reported by North Korea's trade partners after adjusting for misreporting and transportation costs. Three conclusions stand out: North Korea runs large and chronic trade deficits, its trade is concentrated with a few partners, and, most telling, trade volumes are falling. If the deficits that North Korea runs with China - obtaining imports on concessional terms - and the surpluses that it runs with South Korea - generation export revenues - are considered in effect to be politically determined, China and South Korea together implicitly support most of North Korea's trade deficit with the rest of the world.

Still, North Korea appears to confront a financing gap on the order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side from exports, the largest source of hard currency earnings is probably remittances, principally from ethnic Koreans residing in Japan. Remittances have been variously estimated as the amount of currency that visitors from Japan could legally carry on their person, as profits from the pachinko industry, a form of gambling popular in Japan

in which ethnic Koreans play an important role, and as the por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that cannot be explained in other ways. Not surprisingly, given these varied approaches to tallying remittances, estimates of the annual total vary enormously, from the low millions to \$2 billion, typically running in the hundreds of millions. The figure is probably less than \$100 million, an assessment that Nicholas Eberstadt shares in his article in the May 1996 issue of *Asian Survey*.

In response to its current predicament, the regime has begun some modest and hesitant reforms, most notably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modeled after China's southern and coastal provinces, in the far northeast of the country. But such tinkering, however politically contentious within North Korea, is unlikely to reverse the decline of the economy.

### **Between Shock Therapy and The Pacific Wa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aces three broad options: it can adopt fundamental economic reforms in an attempt to reverse the economic decline, recognizing that reform may unleash forces that threaten the character of the political regime; it can stand pat and try to ride out the current crisis, risking collapse; or it can muddle through, making ad hoc adjustments as circumstances dictate. In the end,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follow Romania in a form of apparatchik capitalism in which growth will follow the initial decline in output that results from the relaxation of central control.

Reform

The reform option offers potentially enormous payoffs: North Korea could probably increase its output by more than half its pre-decline level under favorable conditions. However, the reform path would not be easy. A variety of considerations suggest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undertake wide-ranging reforms of its own volition.

Crudely put the conventional wisdom has it that there are two ways to reform a centrally planned economy - the successful, Asian, gradual approach, and the unsuccessful, European, "big bang" approach. According to this view, North Korea is an Asian country, ergo it will adopt the successful, gradual approach and grow ten percent a year upon the commencement of reform. But gradual reform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requires resources to cushion adjustment in the heavy manufacturing sector. Auspicious initial conditions may have benefited successful agrarian countries like China and Vietnam, where the state-owned heavy industry sector was relatively small. Those countries were able to initiate refo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price liberalization spurred rapid efficiency gains, freeing up low-productivity surplus agricultural labor to be absorbed by the emerging non-productivity surplus agricultural labor to be absorbed by the emerging non-state or semi-private light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North Korea also faces the enormous ideological challenge posed by a prosperous, democratic South Korea. Once North Korea begins reforms, the state's *raison d'être* will be called into question. In Vietnam and China, Marxist ideologues were able to manufacture

tortured rationalizations for market-oriented reforms. Maintaining such a façade is likely to be much mor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s. The scale of change that will accompany significant liberalization is also likely to be tremendous. North Korea is probably the most distorted economy in the world. Liberalization would mean hug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output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trade would become far more important, and most of that trade would be conducted with South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with which North Korea maintains problematic political relations.

Finally, it is hard to imagine North Korea undertaking significant reform without a more secure external environment. Although the military - probably the most coherent institution in the society, with privileged access to economic assets - could be a prime beneficiary of change, it may well oppose reforms that it believes endanger the nation's security. Economic reform is therefore unlikely to occur before some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 Collapse and Unification

The regime's second option is to stand firm and do nothing. Although this path promises short-run political stability, if current trends continue, economic distress will eventually put a significant share of the population in peril, if it is not already. Moreover, North Korea differs in some significant ways from other socialist regimes that were able to survive self-inflicted famines earlier in this century. First, the Kim government is not a revolutionary regime, but the dynastic continuation of a leadership that has held power for nearly 50 years. Surely neither this government nor the

governed have the same capacity for enduring hardship that would accompany a period of revolutionary fervor. Second, North Korea is a relatively industrialized, urban society, which curtails both its government's ability to squeeze resources out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populace's coping mechanisms. Third, previous socialist famines have largely been precipitated by the introduction of counterproductive policies and could be solved straightforwardly by their removal. North Korea's current agricultural problems appear to be less a function of bad weather or the sudden introduction of misguided policies than the culmination of two generations of bad policy.

Even if the North Korean regime appeared to be teetering on the verge of collapse, the costs of unification would be so great that the South would try to prevent it. The most obvious point of comparison is German unification, which has involved more protracted and costly transfers than analysts anticipated at the time of unification. Even with that largess, East Germany has gone through a wrenching transformation: unification and the depression that ensued brought a collapse in the birth rate unprecedented in German history, including the interwar years and the period of military defeat, and a dramatic rise in the mortality rate. Although some of the declines in marriages and births presumably represent delay, not permanent reduction, the same cannot be said for the increase in mortality rates.

In some ways Korea presents a gloomier picture than Germany. North Korea's population is about half as large as South Korea's, while East Germany's was one-quarter the size of West Germany's.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is only around one-seventh that of the South; East German incomes were one-third to one-half those of West Germany. North Korea's economy is probably more distorted than East Germany's was, and South Korea is not as rich as West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combined Korean population is younger than the combined German population, an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s younger than the East German population, which should facilitate adjustment with lower social expenditures.

Still, if South Korea were to absorb North Korea, the cost of unification, defined as the capital investment needed in North Korea to choke off the incentive for mass migration, would be on the order of \$1 trillion - a figure so large as to be infeasible, even if spread over a time period of 10 to 25 years.

South Korea can discourage migration in two ways: by maintaining the demilitarized zone as a method of controlling population influx and by encouraging capital investment in the North to lessen the incentives to emigrate. While the former option is fraught with political difficulties - elected officials might hesitate before turning machine guns on a third of the electorate - the alternativ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domestic policy. South Korean policy will strive to minimize the burden imposed on South Korean taxpayers by financing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North. This task will require policies to encourage foreign capital, specifically foreign private capital, to flow into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ly, South Korea has been inhospitable to both foreign direct and portfolio

investment. However, in this case liberalization not only would bring its traditional benefits but would facilitate private capital inflows to unified Korea, or alternatively substitute in South Korea needs to continue to improve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domestic bond markets that are capable of mobilizing large sums of capital when the need arises. The capacity to mobilizing large sums of capital when the need arises. The capacity to mobilize global private capital quickly will be important if economic integration is accompanied by political integration and South Korean laws and institutions are extended throughout unified Korea.

Some international public capital should also be available. The World Bank, for example, maintains a special program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cupied territories in the Middle East. A similar program, scaled to the much larger North Korean population, would imply World Bank investments of \$4.4 billion annually. Furthermore, North Korea and Japan have yet to settle postcolonial claims. Taking the 1965 settl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s a base and adjusting for changes in the price level, population growth, and accrued interest, the Japanese payment would be about \$12 billion. These amounts are small, however, relative to the \$1 trillion that would be required.

### Muddling Through

Between the extremes of reform and collapse lies muddling through. Here the experience of Romania may be instructive. Romania and North Korea are similar in population, per capita income, social indicators,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labor, as well

as central planning and its attendant maladies. Both combined rigid internal orthodoxy with symbolic independence in external affairs. Both experimented with socialism in one family: Nicolae Ceausescu's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cult of personality is said to have been a 1971 visit to Pyongyang.

Romania and North Korea both experienced economic problems in the 1970s as their central planning approaches began to fail. Although they were temporarily papered over by an inflow of recycled petrodollars, the underlying problems eventually manifested themselves in difficulties repaying accumulated external debts. One striking difference is that Ceausescu made the fateful decision to repay the debt, while Kim Il Sung defaulted on his Western creditors.

Romanian living standards began falling in the early 1980s as domestic consumption was compressed to free up resources for debt repayment, and conditions worsened in 1985, when the country was hit by severe weather during an energy crisis. Romanians were forced to live and work in freezing conditions, and draft animals were substituted for agricultural machinery. Nevertheless, mass unrest did not appear until 1987 - six years after living standards began to decline - and it was not until 1989, with other socialist regimes collapsing and the economy going into free fall, that the Ceausescu regime toppled. That sequence of events suggests caution in drawing too deterministic a link between economic hardship and political failure, a caveat reinforced by the contemporary experiences of countries as diverse as Cuba, Iraq, and, until recently, Zaire. With the willingness of foreign powers to



support North Korea's incumbent regime, that link may prove even more tenuous.

In Romania, Ceausescu's removal had more the air a regime-preserving coup than a genuine revolution. Subsequent experience suggests that muddling through may indeed be a viable strategy. Both Romania and North Korea grew at a 2.5 percent rate in 1985. Romania subsequently suffered a sharper contraction in output than North Korea. However, once the reform process was initiated in 1990, the Romanian economy began to stabilize, and registered positive if unspectacular growth by 1993.

Similar economic and even political developments might occur in North Korea.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former Communist Party embodied in Ion Iliescu's recently ousted Social Democratic Party of Romania have strongly influenced that country's economic reform strategy. The state remains the dominant force in the economy. Political power is used to create and allocate excess profits that are channeled to politically influential groups and individuals, either openly or through corruption. Restructuring has proceeded at a slow pace. Kim Jong Il or his successor could well adopt similar policies to deal with economic hardship while satisfying the regime's political base. These favored constituencies would presumably be the Kim clique, the military, and possibly the upper echelon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regime could expect tutelage and material support from China, and advantage the temporizers in Romania did not have.

## 나. N.Eberstadt(하버드대), Foreign Affairs('97.3·4)

북한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다섯 국가는 입장차이를 떠나 모두 다 한반도가 급격히 통일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이들 국가들의 재반 정책에는 제정적 혹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보다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91년 7월 4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우리 국민들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성명이 실렸다. 비록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이 불락하고 그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심스러운 정서는 여전히 한국의 통일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루해야 할 비용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며,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독일의 통일을 보고 한국 국민 대다수가 급작스런 경제 통합이 궁극적으로는 파국을 불러 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이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 기적을 붕괴시키기 보다는 북한이 정치 및 경제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수십년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통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을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에 의해서 통일을 촉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버리면, 한반도 혹은 동북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줄 전략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사실 정치학자 아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가 International Security(1993-94 봄호)에서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고, 자유롭고, 평

화로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도하는 것이 다른 대안들보다 유리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장에 따라 다른 4대 강대국들도 한반도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록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1992년 서울에서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미국의 정책은 그 날이 가까운 장래에 올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1994년에 북한 정부와 체결한 기본합의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계약이 장기적이고 확대되는 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국가들이 북한지역에 2기의 현대식 핵발전소를 건설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핵발전소 건설에는 4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핵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핵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의무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추상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에는 통일을 앞당기려고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내용은 없다. 더욱이 한국에게 염려스러운 점은 한국과의 특수한 안보관계나 한반도에 군사력을 전진배치시키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안보관계가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일본과 러시아도 각각 나름대로의 배경 때문에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치학자 이채진 박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효과적인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한국과의 교역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한 비록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할 지라도 한반도의 즉각적인 정치적 통일을 가속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외 정책은 서구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애매 모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통일한국이 향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국내 문제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그들의 국경지역에서 새로운 힘을 가진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달가와 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의 통일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대체적이나마 내려진 결론이 옳다고 볼 이유는 없다. 20세기의 역사는 대외 정책의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한국전쟁까지도 이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는 무엇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지역적 균형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단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국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의 이면에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남한과 통일을 실현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여진다. 점진적이고 순리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을 도출해 낸다는 희망이 오늘날에 와서는 환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더욱 궁핍해져 가고 군사적으로는 더욱 위협적으로 되어간다. 이런 모든 영향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諸 민족은 물론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세력들까지도 통합은 한시라도 일찍 이루어낼수록 좋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세부 내용들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통일이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문제를 질질 끌어도 되거나 그저 얼렁뚱당 해치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 남북한 격차의 확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 실현되더라도 그것은 심각한 경제적 혼란과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당장 급진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역사적으로 한국의 상류층은 가난과 예기치 못한 물질적 희생을 경험한 적이 없다). 더구나 남북한 간의 소득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는 분단 이후 현재와 같은 불균형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점진적인 통일정책이 현실적으로 통일에 따르는 혼란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한국 국민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의 점진적 통일에 대한 환상은 거창한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런 체제 변화가 수십년간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자유 시장경제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더군다나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북한의 지배층이 경제 자유화 정책이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점진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은 그것이 완전한 몽상의 세계에서 생각이 아니라면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만에 하나 앞으로 북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경제 하락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남북한 간의 개인소득의 상대적, 절대적인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중략)

이와 같은 궤도선상에서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과 북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통일비용은 해가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통일도 지연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남북이 각각의 경제를 운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이 북한에 이전시켜야 하는 비용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중략)

초기에는 빈곤한 상대와의 통일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하급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임금 및 다른 생산비용에 대한 압박을 경감시키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노동력이 융화됨으로써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양측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력이 혁신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경이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들은 금방이라도 해체해버려야 할만큼 낙후된 것이다. 이처럼 쓸모없는 북한의 기간 시설들은 최신의 장비들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후에 일본과 서독이 산업 기반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재건설함으로써 놀라운 만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었다. 이들 국가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노동력의 숙련도를 높이며, 경이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익은 일본과 서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새롭게 통합되는 경제체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유추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의 경제를 현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은 틀림없다.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모험적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 전체의 발전 구조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국제적인 경제발전을 가속시키고, 국내시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수출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개선시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발간된 몇편의 논문에서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분석일 뿐이다. 세계 자본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다. 1995년 한해동안 1조2천억 달러의 국제 차관이 이루어졌고, 3천억 달러의 원조가 해외 직접투자 형태로 공여되었다.(중략)

한반도 통일은 거대한 투자계획에 비유될 수 있다. 만약에 계획 실시의 결과 물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면, 비용문제는 자연적으로 처리되어질 것이다. 반면에 필요한 만큼의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다 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희망없는 과업만은 아니다. 남북한이 신중하고 협력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내는 통일은 비록 그것이 충분한 예고없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군사적인 측면 비교

보다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이루어낸 한반도 통일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전망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며, 정치나 군사전략적인 분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렵고 논쟁적인 문제인데, 특히 한반도 문제가 그렇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하여 북한의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의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군사력 도발로 인한 이 지역에 충격을 완화시켜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한반도에서의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 될 수록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군사력 증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부담 이외에도 서방 각국들은 북한에 경제적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실질적인 원조를 공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는 단지 이러한 공여를 위한 다양한 매카니즘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반도에서 2개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태평양 국가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에 내부적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보조를 늘릴 수밖에 없다.

비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전쟁 체제를 구축하고 1기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핵 선택만이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는 유일한 분야이다. 북한은 이미 신경가스를 포함하여 화학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 시설의 규모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수십년 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은 이미 사거리가 600에서 800마일로 추정되는 로동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사거리가 6,200마일에 달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중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000년대 초에 완성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태평양 4개 국가들 중에서 전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마치 중동의 위협과도 같이 강건너 불구경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통일론(watch-wait strategy)과 조속한 통일론(deliberate preparation)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민주적 단독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역학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 지역에서는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통일한국은 안정과 번영을 지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한반도 통일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 군사적인 측면이 가장 절박하게 다가올 것이다. 현재 분단된 한반도에는 남북한에 걸쳐 2백만명에 달하는 군대가 상호 대치하고 있다. 한반도가 민주적으로 통일된다면 대부분의 군대가 해체될 것이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군 복무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비무장지대 양쪽에 포진하고 있던 군사장비들도 철거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게 된다. 아직까지 군축문제는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으며, 감축



의 대상도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는 군사력 증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냉전이 종식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군대의 본래적 속성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군축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대처해야 할 위협의 본질과 효율적인 국가 방위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더 이상 군비증강의 압력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일고 있는 불길한 징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핵방위 전략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주장들이 점점 세를 얻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한국정부의 선언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종식시킴과 더불어 통일한국은 중국이 은밀한 거래를 통하여 발생시키고 있는 국제적 분열상황도 종식시키는 2차적 효과도 거둘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단일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그동안 지역적인 긴장을 유발시켜 왔던 많은 요인들이 제거될 것이다. 한편으로 통일한국이 태평양 국가들과 맺게 될 동맹관계와 협력관계들이 이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들 간에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 문민통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 통일한국이 대외정책이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은 틀림없다. 이는 오늘날 한국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북방정책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한국이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국제정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건설한 시민사회를 형성한 통일한국은 이웃한 러시아가 안정된 민주제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며, 중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성숙되어지도록 고무시키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주변 지역 국가들과 일련의 협력적 통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산물이다.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이 보여줄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이것이 동북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고 모두 협력하여 보여주는 노력만이 이런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북한 핵문제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한반도가 빠른 시일내에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커다란 제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첫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런 준비를 위하여 협력하여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북한과의 핵사찰 합의서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듯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맺고 있는 안보관계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안보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한반도에 현재의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마땅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북한과는 정치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한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리한 위치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력에 방해되는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현재와 같은 질서체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질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한국, 일본,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군사도발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개입되어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중동의 석유수출이 차단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반에 하나 내일 당장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세계 주요 석유수입국 중의 하나인 중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

이다.

기본합의에는 또다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복잡하게 꾸며진 이 문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컨소시엄이 북한에 재정적, 물질적, 외교적 이익을 확대 공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주로 핵확산금지조약의 준수와 관련되는 몇가지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과의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군사력도 축소시켜야 한다. 양측의 협상대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서는 공식 협정이 아니고 단지 지침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바쳐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합의한 의무조항들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북한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합의가 향후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서방과 북한이 함께 참여하게 될 계획의 범주가 서방의 한반도 통일 전략의 수행을 제약하게 될 내용들이다.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합의에 담겨진 내용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 합의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단지 양측 모두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련식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북한정권의 성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북한정권 그 자체가 바로 북한 핵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의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는 북한정권이 존립하는 그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인 것이다.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북한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서방 국가들이 채택해야 하는 접근방식은 신중하고도 단호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 합의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 한국이 취해야 할 과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이다. 한반도가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성공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이 상호협력 또는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것들인가? 우선 첫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즉각적인 준비작업과 광범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일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선결해야 될 많은 시련들이 있음을 한국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 시련들은 현명한 전략과 화합된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내 개혁임을 한국국민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국내 개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한국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준비들은 한국의 국방정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만약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통일을 진실로 이루어 보겠다면,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한국의 경제의 역동성, 사회의 활발성, 정치적 안정성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비록 한국이 지난 한 세대 동안에 걸쳐서 이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각각의 요인들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중략)

전쟁을 피하고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록 최근 수십년간 한국이 일본과 우호적이고 신뢰깊은 우호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시켜야 할 여지는 매우 많이 남아 있다. 1996년 독도 분쟁을 둘러싸고 야기된 양국간의 설전은 한국이 독도에 병력을 상륙시킴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더구나 한국이 더 이상 북한을 국방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최근에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의 공격대상이 어디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이 잠수함 개발계획에는

잠수함의 공격대상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상징화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최근에 건조된 한국의 잠수함의 이름을 충무호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4백여년전 바다에서 일본을 격파했던 한국의 유명한 해군제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배제해야 할 상대가 아닌 함께 어울려야 할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기념비적인 과업으로 이를 달성하기까지는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이 통일 이후에 모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며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한국의 국민들과 똑같은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안정적인 복음이 될 것이다. 언론 활동은 물론이고 개별적 접촉에서도 남북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친밀감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화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오판하여 어떠한 군사행동을 해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구체화시키는 데 많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수불가결한 방법은 안보영역에서 제어력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과 미국의 안보적 유대가 흔들리는 것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북한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 일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급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외국의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한국 국민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통일 이후에 외국투자가들이 한반도지역에 대한 투자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는 이로 부터 예견되는 위험과 보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해준다면 그만큼 위험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대국이고 동북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책임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엄청난 과업임에는 틀림없지만 1990년 독일 통일에 보여줬던 헌신에 비하면 훨씬 덜 복잡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실효성있는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의문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내내 일본은 한 번도 정상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한 적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침략적 강대국이었고, 패전이후에는 기백없는 절름발이 거인이다. 오늘날까지 일본은 한반도에서조차도 자국의 이익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다.

좋은 실든간에 일본이 국제부대에서 다른 선진국가들과 같이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올바르게 공헌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때가 된다면 일본은 자신들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다자간 협력기구라는 두가지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많은 부분을 양측이 함께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반도 통일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교역량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가들은 지금부터 향후 통일한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게 될 때 얻게 될 상호이익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은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기업은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경제와 더불어 주요 기간시설물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두가지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군사무기나 핵장차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다각적 외교채널을 통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UN의 여러 국가들이 나서서 이러한 구

기들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다면 일본은 매우 설득력있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내에 일본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다른 다자간 개발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이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이들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험들과 재정적 요소들을 동원하도록 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현가능한 제안들과 정책들이 속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요체는 아주 작고 간단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통일한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사실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욱 안락한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금이 태평양 국가들은 물론이고 여타 지역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성공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Pacific powers would like Korea to reunify, but the North is soon likely to implode, its economy deteriorating as its weapons of massdestruction accumulate. Rapid reunification would spur economic growth, as in Germany, and reduce regional tensions. South Korea's liberalization of its own economy and strengthening of its civic institutions will prepare it to assist the North. China and Russia may not go along, but Western governments should stop coddling Pyongyang. America should underwrite a united Korea's security, and Japan its finances.

Whatever their differences, the five governments that must contend most directly with Pyongyang - Seoul, Washington, Beijing, Tokyo, and Moscow - all assume that a rapid reunification of Korea would run contrary to their national interests. Implicitly or explicitly, their policies all posit that a gradual drawing together of the two Koreas would be optimal for financial or geopolitical reasons.

In South Korea, pronouncements about unification have been explicit and detailed. In 1991, according to that year's July 4 Washington Post, then-President Roh Tae Woo declared, "Our people do not wan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Despite his subsequent fall from grace and the perennial disagreements on the point in Seoul, this cautious sentiment continues to guide the South's policy. Studies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Republic of Korea's (ROK) leading quasi-governmental economic think tank, have argued that "the German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national unification involves enormous costs, and, going forward, this is probably the most critical concern for Seoul Korea," and that "the experience of German national unification convinced a large number of South Koreans that sudden economic integration in Korea...will result in disaster." Rather than risk derailing the Seoul Korea economic "miracle," the prevailing consensus in Seoul goes, the South should try to plan for a reintegration with the North over a period of several decades, while the North reforms its polity and transforms its economy.

What are the alternatives? The notion of purposely working to prepare for, and thereby perhaps to hasten, Korea's reunification may seem fraught with risk - and it is. Such a strategy can offer no absolute guarantee that reunification would be peaceful. But in the perilous years ahead, no strategy can promise perpetu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 or northeast Asia, for that matter. Indeed, all of East Asia, as the political scientist Aaron Friedberg said in the Winter 1993-94 International Security, is "ripe for rivalry," and will be for many years to come. Under the circumstances, a policy that prepares for and attempts to expedite the coming of a free, peaceful, and united Korea looks decidedly superior to the alternatives.

Calculations that parallel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ead the four great powers of northeast Asia to a similar evaluation of the merits of a gradual reunification. Although President George Bush declared in Seoul in 1992 that "the day will inevitably come" when

"Korea will be whole again," American policy does not anticipate that day any time soon. On the contrary, the "Agreed Framework" Washington reached with Pyongyang in 1994 outlines a prolonged and expanding American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rokered after the North's refusal to permit inspection of its nuclear sites, the document envisions Western construction of two modern reactors in North Korea at an estimated cost of over \$4 billion in exchange for a freeze on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eventual inspections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ultimate dismantling and removal of the suspect facilities and materials - obligations that are not to be fulfilled for years to come. Although positively disposed to Korean unification in the abstract, American policy includes no concrete designs for hastening it. In addition to Southern anxieties, the U.S. position is shaped by the possibility that Korean unification might mean the end America's special security ties with and forward bases in the South - an arrangement that has, in Washington's estimate, helped stabilize the region and extend American influence in Asia.

China, Japan, and Russia have their own grounds for reluctance about a rapid Korean reunification. As the political scientist Chae-jin Lee has noted, the Chinese believe they "have no compelling reason to push for Korea's immediate political reintegration, even by peaceful means," insofar as they "view North Korea as a useful buffer zone that contributes to their national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enjoy a thriving commercial relationship with Seoul Korea. Japanese foreign policy is more opaque than that of most other westernized countries, but one

ingredient in Japan's approach to the two Korean states is an abiding apprehension that a united Korea would pose greater economic and diplomatic challenges. Russia, for its part, is all but overwhelmed at the moment with its own internal troubles, and in this time of extreme weakness would not welcome a new regional power rising along its border.

Yet rough agreement among many concerned governments about the preferable pace for Korean unification is no guarantee that their judgment is correct. The twentieth century provides repeated examples of shared misperceptions in foreign policy, as the prologues to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even the Korean War attest. Tragic miscalculations about one's own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are more likely in periods when a regional balance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 a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ssumption behind all these prognoses is that the North will gradually become reintegrated with the South. But in fact, the North is more likely to implode. The cherished vision of a gradual and orderly drawing together of the two Koreas is today nothing more than a fantasy. As time goes on, North Korea will only grow economically poorer and militarily more dangerous. For all parties affected, from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to the powers of NATO, the faster reunification takes place, the better. Many details of reunification remain uncertain, but Western powers must begin to consider what a sudden reintegration might mean. The Pacific powers can no longer classify the Korean question as a problem that can be postponed and then muddled through.

## **A Widening Gulf**

Consider the economics. The re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however it ultimately occurs, will involve major economic dislocations and place immediate financial burdens on the working-age population of Seoul Korea (the first cohort of Koreans in recorded history, incidentally, to be unfamiliar with privation and unexpected material sacrifice). Moreover, the equalization of incomes in northern and southern Korea will inevitably be a long process - like the enforced separation that brought about today's disparities. But can a go-slow policy realistically promise to reduce the dislocations and expenses attendant on unification?

The vision of a gradual reintegration of the two Korean economies that many Seoul Koreans so fondly entertain hinges on a big assumption. It implicitly holds that North Korea's government will someday embrace a program of economic liberalization and somehow survive to complete the decades of transformation the program would entail. Yet Pyongyang to date has vigorously opposed any liberalization of economic policies worthy of the name. There is nothing to suggest that North Korea is contemplating any such reorientation. The weight of the evidence, furthermore, indicates that the leadership believes economic liberalization would be lethal for the regime.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meet the conditions that the slow reintegration scenario would demand is remote - if not utterly fanciful.

If the North cleaves to its traditional policy, the most likely outlook is continued economic decline. For the South, on the other hand, the most reasonable prognosis for the decades ahead is steady and perhaps substantial economic growth. Under such

circumstances, both the relative and the absolute gap between the North's and the South's per capita income will continue to widen.

On such a trajectory, the longer the North Korean state survives, the wider the economic chasm that will separate North and South. The cost of unification - the investment needs of North Korea in relation to South Korean output - will likely grow steadily and perhaps swiftly every year reunification is delayed. Whil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could grow faster than the the North's needs, the further apart the two economies get, the greater the cost of bringing the North to parity with the ROK.

In the short run, reunification with a poorer partner could help relieve South Korea's incipient labor shortage, reduce pressures on wages and other production costs, and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Seoul Korean workers may not relish that short-term prospect, a fusion of the two Korean work forces could increase purchasing power and living standards for the great majority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Over the long run, as northern Korea's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capacity are renovated, all of Korea could experience dynamic supply-side effects. The flip side of North Korea's current infrastructural obsolescence - of the likely need to scrap almost all the North's current production facilities - is the coming opportunity to replace decrepit decrepit plants with state-of-the-art equipment embodying the latest technology.

As in postwar Japan and West Germany, wholesale re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base can bring unexpected economic advantages ; it

can lower production costs, stimulate work force skills, dramatically raise productivity, and lay the foundation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Those advantages accrued not only to Japan and West Germany, but also to the economies with which they were integrated. While the analogy is inexact, the modern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offer enormous spillover benefits for southern Korea. Nor would the benefits be limited to Korean nationals. Success in that venture would strengthen the framework for prosperity throughout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it would spur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favorable investment opportunities, an expanded domestic market, and improved quality of exportable goods and services.

Apprehensions expressed in some circles in Russia and China about being crowded out by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a united Korea are almost certainly misplaced. The global capital market is enormous and rapidly growing: in 1995 alone it financed over \$1.2 trillion in international borrowing and facilitated an almost over \$1.2 trillion in international borrowing and facilitated an almost \$300 billion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s reunification can be likened to a gigantic investment project. If the rate of return for that project is high, the costs will take care of themselves. While achieving and maintaining the necessary rates of return will not be easy, it is surely not the hopeless task that some in Seoul think. With prudent and coordinated preparations by the ROK and its allies, the chances that reunification will be an economic success - even if it takes place on very short notice - can be greatly increased.

## The Weapons Ledger

If the economic prospects of a more immediate and deliberate Korean unification are decidedly less menacing than so often depicted, what of its possible political and strategic ramifications? There is sometimes merit in deferring difficult or contentious issues - and the Korean question assuredly qualifies as one of these. But because North Korea's economic circumstances are only likely to worsen even as the lethality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mproves, the shocks to the region that the demise of the North Korean state might trigger are unlikely to be mitigated simply by postponement. In the meantime, the costs of maintaining the unstable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 already nonnegligible for the United States - stand only to rise.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in addition to underwriting military deterrence in Seoul Korea, Western governments now envision substantial outlays to Pyongyang for economic and humanitarian aid. The Agreed Framework is but one of several mechanisms for such transfers. To the extent that the great Pacific powers think about Korean security in a two-state framework, they will be ineluctably drawn to subsidizing the Northern system as its internal crises mount.

Although North Korea's program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 widely thought to be suspended, the DPRK has reportedly established a nuclear warfare command and may have one or more atomic bombs in its possession. The nuclear option, in any case, is only one component of the DPRK's overall program. North Korea has extensive capabilities for manufacturing chemical weapons,

including nerve gas; according to some reports, it may have the world's third-largest inventory of these compounds. And North Korea has been working feverishly for decades on long-range missiles. By the early 1990s, Pyongyang was experimenting with the No Dong class of missiles, with a range estimated at 600 to 800 miles. Today it is developing the Taepo Dong, which when perfected may have a range of up to 6,200 miles; according to some analysts, thi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ould be ready as early as the year 2000.

Although such threats would likely prove most burdensome to the United States, the only one of the four Pacific powers with truly global interests and obligations, all of the others would be affected by the destabilization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 cause in distant venues, such as the Middle East.

### **And What of The Alternatives?**

To appreciate the difference between a watch-and-wait strategy and deliberate preparation, one may begin by imagining how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ould be altered if a single democratic state governed in Korea. Two great imponderables tower over this thought experiment: the evolution of China and the evolution of Russia. Nonetheless, a free and united Korea would be a force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perhaps the most dramatic implications of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would be military. At the moment, nearly two million Korean troops confront each other in that divided land. a free and united Korea could commence a far-reach-



ing demobilization, relea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military personnel for economically productive undertakings, retiring armaments that were once trained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and decommissioning the peninsul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disarmament could still leave Korea as a power to reckon with, but it would also recast the conventional and nuclear logic of the region. It would stand in contradistinction to the arms buildup that has been under way in East Asia since the 1980s and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hile it would not alter the ambitions of other governments - a key factor in any true arms race - disarmament could substantially change the nature of risk perception and defense sufficiency in the region and attenuate pressures for further buildup.

While a continuing division of Korea invites a competitive 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 with the South and Japan, in one reading, eventually opting for nuclear defense to counter ominous tendencies in the North - a united Korea could make good on Seoul's pledge to forswear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o ending the threat from Korea as a possible purveyor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nification would strike a second blow against international proliferation by complicating surreptitious merchandising by China.

Unification would also change the tenor of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ith single democratic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any regional sources of tension would vanish. While a united Korea's chosen alliances and alignments might matter greatly to the powers of the Pacific, they would probably not constitute a

casus belli. With open and accountable governance, civilian rule, and enthusiasm for commercial progress, a united Korea's foreign policy would likely be moderate and pragmatic - as the ROK's foreign policy beyond the peninsula is today. A united Korea's domestic arrangements could also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the example of a solid civil society in Korea would support neighboring Russia's quest for stable civil institutions and encourage their development in China.

The spillover economic benefits of reunification as have a political payoff, integrating the countries of the region in a set of cooperative commercial relationships. The striking point about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is that it would benefit all the populations of northeast Asia. Those dividends are by no means assured, but careful and concerted effort can bring them within reach.

### **North Korea is The Nuclear Problem**

Every government in northeast Asia can help improve the chances for rapid reunification. But two constraints loom large. The first is that neither China nor Russia can be counted on to cooperate in multilateral deliberations about what follows the end of North Korea. The second is that the allies most likely to cooperate in those preparations - the Sou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have already restricted their freedom of maneuver through the Agreed Framework.

For obvious historical reasons, Washington's security relationships with Beijing and Moscow are vastly different from its rel-

ationships with Seoul and Tokyo. For similar reasons, China and Russia can be expected to regard an American design for a new Korea with considerable suspicion. China in particular has reason to appreciate the Korean status quo. Given its close economic and political ties with both Korean governments, the Chinese state now enjoys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Korea than at any point in the past century and a half.

Weighing against the impediments to cooperation, though, is the compelling fact that the current order in Korea cannot last. It is in both China's and Russia's interests to help shape the order that will follow. Moreover, Chinese and Russian interests coincide with the joint interests of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fundamental respects.

If Middle Eastern oil exports were disrupted tomorrow by a crisis involving North Korean-mad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example, China - which is becoming a major global oil importer - would suffer directly.

The Agreed Framework poses a rather different set of problems. This complex document outlines an extended schedule of financial, material, and diplomatic benefits that Pyongyang may obtain from a U.S.-led international consortium if and when the North passes a variety of milestones, mainly concerning compliance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ut also involving such things as détente with South Korea and arms control. As negotiators on both sides have pointed out, the document is not a formal agreement, but a road map. Some, however, have observed that the agreement's ambiguities expos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the

worst of two diplomatic worlds, possibly obliging Washington to behave as if it were bound by treaty while permitting Pyongyang to decide when and whether it will honor its corresponding obligations. The range of envisioned Western-DPRK engagements restricts the range and scope of Western reunification strategies.

If Western governments are not to be ensnared, they must honestly recognize the Agreed Framework for what it is. The document does not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simply permits both sides to settle the matter later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or its part, does not derive from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North's Soviet-style reactors, but rather from the inherent character and intentions of the North Korean state. The North Korean regime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unless its intentions change, which is unlikely, that problem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regime is in place. If Western governments believe they can influence the nature of that state, they should assess their progress - or lack thereof - carefully and unflinchingly. But to allow this document to compromise prepar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would be a grave mistake.

### **Southern Hospitality**

The Western Countries with the greatest prospective influence on Korea's reunification ar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at sorts of things could each of them do,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to improve the odds of a free, peaceful, and successful reunification? As a first but vital step, Seoul should make preparation an immediate national priority and begin to design long-range policies. Political leadership in the South must

increase the South Korean public's awareness of the tests that lie ahead and make the case that these tests can only be successfully surmounted by sensible strategy and concerted collective effort.

As they contemplate the coming trials, South Koreans may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item on the agenda, paradoxically, is domestic reform. In the domestic realm, preparing for reunification mainly means doing what the South should be doing anyway. But such preparation also has a bearing on South Korean defense policy and the posture toward the North. If a free and peaceful reunification is indeed consummated, the subsequent success of the project will depend greatly on the dynamism of the South's economy, the resilience of its society, and the stability of its polity. Despite the South's great strides in these areas over the past generation, there is unfinished business in each of them.

Preventing war and forging a successful reunification will require close cooperation with all the South's allies, including Japan. Although Seoul's ties to Tokyo have been deepening and warming for decades, there is still ample room for improvement. The 1996 squabble over the disputed Tokdo-Takeshima islands, which culminated in a South Korean military landing on those barren rocks, is exactly the sort of distraction that a defense policy for South Korea cannot afford. If deterring North Korea is the objective, moreover, the merit of South Korea's costly current program to develop a submarine fleet is hardly self-evident. Adding insult to injury is the intended symbolism in the program. The most recent addition to the South Korean submarine fleet, for example, was named Chung Un-ho, after a Korean admiral who

directed some successful sea battles against Japan four hundred years ago.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South must begin to think not only about deterrence but about reconciliation. Healing the wounds of divided Korea promises to be a monumental task - one that may take generations to complete. But the process can begin now. Committing the South to a "malice toward none" policy after Korean unification, and to guaranteeing ordinary northerners the same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southerners, would send an important and stabilizing message. Working to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expand people-to-people contacts could increase familiarity and reduce misunderstandings on both sides. South Korea society today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any attempts Pyongyang might make to manipulate such overtures; Seoul would be wise to capitalize on that strength.

The United States can shape the prospects for Korea's reunification through diverse instruments, but its unique and indispensable contribution is in the realm of security. Just as the U.S. military commitment to the South has been the sine qua non of deterrence on the peninsula, a vibrant U.S.-South Korean security relationship in a united Korea will be critical to the success of reunification. Rebuilding the economy of northern Korea will be an expensive undertaking that will proceed more rapidly, and place less of a burden on Korean taxpayers, if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an be harnessed. The attractiveness of post-unification Korea for overseas investors will depend on perceptions of risks and rewards: an American security commitment would lower risk

premiums.

For Washington, however, preparing for Korean reunification will mean more than thinking about bases and places. As the world's predominant economy, and as the presumptive leader of any strategic Western initiative in northeast Asia or other regions of the globe, responsibilities for coordinating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Korean unification will almost naturally devolve on the United States. Managing such an effort wisely and effectively will be a tremendous task - no less taxing or delicate than the historic endeavor that united Germany in 1990.

To consider Japan's prospective influence on Korean unification is to beg the question of Japan's role in the world. In this century, Japan has never had a "normal" foreign policy: before World War II, it was an insatiable and revisionist power; after its terrible defeat, it has been a meek, one-legged giant. To this day, it is difficult for the Japanese to discuss their national interests - even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ose interests are so directly and dramatically affected.

For better or worse, until Japan can play a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the same manner as other industrial democracies, its contributions to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are most likely to be made through the two diplomatic channels that Tokyo is most comfortable with: international finance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Fortunately, much can be done through both. If Korean reunification is to succeed, it will presage a significant expansion of trade and require substantial commitments of foreign capital. Japan's government and the Japanese business community

can begin now to focus on the potential of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in a united Korea and on the problems that must be avoided or solved if such cooperation is to bear fruit. Japanese business is well placed to participate in the major infrastructural development projects that could draw together the economies of northern Korea, China, and Russia.

Much can also be done in multinational forums. Preventing North Korean sale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nuclear-capable missiles, for example, is an immediate problem that can be addressed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Japan could be a persuasive lobbyist for a resolution empowering U.N. members to interdict the transfer of such materials to violators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n the years ahead, Japan could use its growing influence at the World Bank and othe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o encourage those institutions to devot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financial resources to meeting the challenges that Korea's reunification would entail.

The list of possible initiatives and policies could be extended and elaborated. The point, however, is short and simple. Northeast Asia can live with a united Korea - in fact, it could be considerably more comfortable with a single free Korea than with the present arrangement. It is time for statesmen in the Pacific and beyond to think about how to make Korean reunification a success - because success or no, reunification is coming.



## 5. 기타 언론기고문 등

## 가. J. Hoagland, 워싱턴 포스트('97.4.10)

미행정부내에서 논란을 일으켜온 미정보당국의 비밀문건에 의하면 다음 4개월 동안에 북한주민중 100,000명이 기아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성의 국방정보국에 의해 취합된 이 평가서는 미행정부로 하여금 가장 꺼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 즉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수년동안 북한을 억제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의깊게 계산한 외교전략이 불현 듯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최근 워싱턴은 북한정권이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는데, 이러한 점이 북한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에 기반을 둔 '소프트 랜딩' 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여전히 작용한다.

그러나 이달초 북한관리들이 방북중인 미상원의원들과의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정권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놀라게 했다. 또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를 거절한 한 미국 관리는 최근 당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한 암살기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한다.

오늘 서울에서 시작된 코헨 국방장관과 남한 지도자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붕괴 위험이 주로 논의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전쟁촉발 가능성과 대량난민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가장 호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정권이 사라지기를 희망하지만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국경의 한 공산주의 완충국이 계속 생존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함께 세 동맹국은 최고의 대안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사석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인도적인 구호물자와 연료를 지원하면 2년간의 홍수로 인해 야기된 북한의 식량부족상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

시켜 왔다. 보도에 따르면 비 CIA에 해당하는 중국기관의 낙관적인 평가보고서는 국방성의 기아희생자 추산 등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의 폐쇄성으로 인해 비록 더 많은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내의 식량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한 내용을 외부세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믿을만한 정보의 부족과 해석을 둘러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소프트랜딩 정책에 대한 주요한 재평가를 어렵게 해왔다.

소프트랜딩 정책의 핵심은 Foreign Affairs지에 시사문제로 게재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글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 글에서 남한당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한 후, 즉 수십년 동안의 장기적인 재통합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남한내에서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미 기업연구소와 하바드에 관여된 연구자인 에버스타트는 이러한 전망이 오늘날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도발적인 논쟁을 전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단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더욱 위험할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NATO의 강국에 이르기까지 관련 당사국들에게는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퇴보와 남한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남북한의 개인별 국민소득면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 지날수록 한국에게 있어서 통일비용은 점점증한다는 것을 그는 설득력있게 주장한다.

더욱이 계속적인 한반도의 분단은 경쟁적인 군비확산, 즉 동북아에서의 핵, 생화학무기 확산과 일본의 핵방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대부분과 같이 에버스타트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보다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데 능숙하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한국이 이제 연대하여 진지하게 한반도의 화해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고 남한은 통일국가에서 북한인들의 지위 보장책들을 공개적으로 적시할 수 있다고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미국은 독일통일을 위해 기울인 것과 같이 분명하고도 지속된 외교적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들이 큰 사건의 쇄도로 외교전략이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조속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질주의 보조와 방향은 나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J. Hoagland, Rush for Unification('97.4.10, Washington Post)

As many as 100,000 North Koreans may die from starvation and related diseases in the next four months, according to classified U.S. intelligence estimates that have provoked a heated debate inside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 estimates, assembled by the Pentagon'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should force official Washington to do what governments do most reluctantly and least successfully: to think the unthinkable. Carefully calibrated diplomatic strategies for containing and bringing change to North Korea over a period of years suddenly may become worthless.

Doubts about the ability of the isolated communist regime to survive this crisis have risen in recent days in Washington, which is still committed to supporting a "soft landing" policy based on peaceful, gradual change in North Korea.

But North Korean officials startled visiting U.S. senators by hinting openly at conflicts within the regime in conversations earlier this month. And reports of a recent failed attempt on the life of party leader Kim Jong Il are termed "credible" by one U.S. official, who declined to provide details.

The specter of turmoil or collapse in North Korea dominates the agenda of the talks that Defense Secretary William S. Cohen begins in Seoul today with South Korea's leaders. Seoul fears that a sudden collapse in Pyongyang could trigger war or an economically devastating flood of refugees from the north.

Washington, Seoul and Tokyo are trapped in the unenviable position of hoping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world's most belligerent, irrational dictatorship - but wanting their wish not to be granted just yet. Along with China, which has a direct interest in promoting the survival of a communist-ruled buffer state on its border, the three allies are taking steps to bolster Kim Jong Il's rule as the best alternative to the unknown.

In private exchanges, China has assured the United States that with humanitarian relief and fuel aid North Korea can ride out the food shortages caused by devastation from two years of floods. The sanguine estimates of the Chinese parallel those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ich reportedly argues that the Pentagon's projections of starvation victims are alarmist.

The paucity of reliable information - Pyongyang blocks the outside world from getting a clear picture of how serious the country's food shortages are, even as it appeals for more emergency aid - and the internal divisions over analysis have blocked any major reassessment of the soft-landing policy.

The core of that policy is to support what Nicholas Eberstadt, writing in the current issue of *Foreign Affairs* magazine, calls "the prevailing consensus in Seoul: The South should try to plan for a reintegration with the North over a period of several decades, while the North reforms its polity and transforms its economy."

Eberstadt, a researcher connected with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Harvard, makes a provocative argument that "this vision is today nothing more than a fantasy. As time goes on,

North Korea will only grow economically poorer and militarily more dangerous. For all parties affected, from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to the powers of NATO, the faster reunification takes place, the better."

The North's political and economic backwardness and the South's economic dynamism mean that "both the relative and the absolute gap between the North's and South's per capital income will continue to widen." The cost of unification to Seoul will grow every year, he argues persuasively:

Moreover, "a continuing division of Korea intites a competitive proliferation" of atomic,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northeast Asia and invites Japan to opt for nuclear defense. The costs to the united States of guarding against this nightmare scenario will grow every year and be less likely to succeed, Eberstadt continues.

Like most of us, Eberstadt is better at describing the problem than at providing its solution. He does not claim to have a silber bullet.

But he does cogently suggest that Washington and Seoul begin thinking seriously and jointly about Korean reconciliation now: Seoul could publicly spell out the guarantees that could be provided to northerners about their place in a united future. Washington should plan for the kind of clear, sustained diplomatic effort the United States waged for German reunification.

These steps are officially unthinkable now because they implicitly acknowledge that diplomatic strategy is being overtaken by the

rush of events. But the pace and direction of that rush - toward quick Korean reunification - become more apparent every day.



## 나. S. Harrison(우두르윌슨연구소), 헤럴드 트리뷴('97.5.14)

북한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평양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3백만톤의 식량을 제공과 서울을 사정거리로 하는 공격포대의 후퇴를 교환하는 '식량-평화' 일괄타결의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서 굶주림과 정치적 불안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본에 도착하려는 - 거대한 난민 - 보트피플의 발생을 조려하거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미군이 휘말리기 전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적정한 조사기구와 상호 이전배치 동의는 쉽게 협상될 수 없는 것이며, 평양은 장거리 포대와 로켓기지를 지하에 숨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나방의 전진배치 무기들은 지상위에 있어 미국 위성이 관찰할 수 있다. 이 전진배치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단계적 계획들로 한국의 안보성은 증가될 것이며 3백만톤의 식량은 그러한 전진의 대가로는 적은 것이다 생각한다.

서울은 북한의 포대와 로켓기지의 전방으로부터 5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때는 공격무기의 이전을 위한 협상에 북한이 나설 것을 촉구해왔으나 계속해서 거절당해왔다.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은 한미·일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진배치 무기의 이전을 스스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은 최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4자회담 제의에 동참하는 대가로서 식량지원 약속을 얻기 위한 최근의 협상에서 실패해왔다.

워싱턴과 서울은 비록 평양이 평화회담을 위한 날짜를 잡는데 동의하였어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식량이 어느 정도이며, 언제 제공될 것인지 북한에 말해주는 것을 거절해 왔다.

북한의 온건성향의 고위급 외교관들은 UN의 공식적 외교차원에서 궁지에 처하게 됨에 따라 최근의 평양의 자시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안을 타진해 보고 있다. 만약 워싱턴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은 구체적인 후방배치 계획을 미국정부에 알려줄 것이다.

평양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금부터 9월까지 60만톤의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1997년에 150만톤, 1998년 1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평양은 서울에 대해 위협적인 포대와 다연장 로켓기지 뿐만 아니라 기타 전방배치 공격무기들의 후방배치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서 양보 협상을 할 것이다.

평양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무기를 얼마의 거리에 이전배치하고자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무장된 군부의 강경론자들은 일괄타결의 진전을 추구하는 군부와 외교부의 실용주의론자들에 의해 예견되는 광범한 양보를 수용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해답을 얻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능한한 공식적 회담에 빠르게 참여하는 것이다.

외교적 차원의 합의모색과 함께 미국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미북간 장성급접촉을 위한 북한의 계속된 제의를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접촉은 '식량-평화 일괄타결'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뿐 아니라 김정일정권의 군 핵심인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식량지원계획에 대한 합의는 비무장지대 무기의 후속배치를 위한 계획의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신뢰회복의 척도와 관련된다. 한미의 목적은 서울과 근접해 있는 포대와 로켓기지의 의미있는 양의 단계적 후속배치와 처음 60만톤의 식량지원에 상응하여 의미있는 후속배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협상의 일부로서 한미는 같은 지점에서의 후속배치와 얼마간의 미공군의 재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워싱턴은 미북간 군사회담은 한국이 옵지비로서 참석하고 남북군사위원회와 병행하여 접촉하는데 대한 북한의 동의를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실제 합의 이전에 워싱턴과 서울은 후속배치를 감독할 3자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식량-평화 일괄타결’의 또다른 핵심부분은 3백만톤의 식량제공과 함께 북송 일본인치의 고향방문 허용을 협상문제로 제시하는 북한의 태도이다. 동경의 태도가 대규모 식량지원의 관건이다.

S. Harnson: Food for peace package deal(Herald Tribune, '97.5.14)

As famine spreads in North Korea, Pyong-yang is signaling readiness to negotiate a momentous 'Food for Peace' package deal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provide 3 million tons of grain in exchange for significant pullbacks of North Korean offensive weaponry now deployed within artillery range of Seoul.

The Clinton administration should urgently seize this opportunity before an uncontrollable cycle of hunger political unrest in the North triggers a large-scale refugee exodus, 'boat people' attempting to enter Japan, and possible North-South military clashes that could embroil American forces.

Skeptics will argue that a mutual redeployment agreement with adequate inspection machinery cannot be negotiated quickly, and that Pyong-yang has hidden long-range artillery and rocket launchers underground.

But large numbers of forward-deployed weapons are above ground and readily visible to American satellites. A timetable for steps to reduce these deployments would greatly increase South Korean security and 3 million tons of food would be a small price to pay for such a breakthrough.

Since Seoul is just 50 kilometers away from front-line North Korean artillery and rocket launcher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urged Pyong-yang to negotiate pullbacks of offensive weaponry, but have been repeatedly rebuffed. Now faced with its food crisis, North Korea is proposing pullbacks on its own

initiative to overcome U.S., South Korean and Japanese reluctance to large-scale food aid.

Pyong-yang has attempted unsuccessfully in recent negotiations to get food aid commitments as a quid pro quo for participation in a proposed four-power peace conference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Washington and Seoul have refused to tell North Korean negotiators how much food aid they would be prepared to provide, and how soon, if Pyong-yang agreed to set a date for peace talks.

Faced with a stalemate at the formal diplomatic level, high-ranking North Korean diplomats at the United Nations, identified with moderate elements 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re floating new proposals reflecting their latest signals from Pyong-yang. If Washington shows interest, they say a specific pullback plan will be conveyed to the U.S. government.

Pyong-yang want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set a firm schedule for the delivery of 1.5 million tons of food aid during 1997 and another 1.5 million during 1998, starting with 600,000 tons from now to September.

In return, I was told, Pyong-yang would negotiate concessions on a variety of issues of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cluding pullbacks covering not only heavy artillery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but also other forward-deployed weaponry that constitutes a threat to Seoul

How much of its weaponry would Pyong-yang be prepared to pull-

back, and how far? Will hard-line elements in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go along with the extensive concessions envisaged by the more pragmatic elements in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armed forces who are seeking to promote a package deal?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move as quickly as possible to formal negotiations.

In addition to exploring an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pt a long-standing North Korean proposal for a meeting between U.S. and North Korean generals at the Demilitarized Zone. Such a meeting would not only be the most direct route to the "Food for Peace" deal but would have the political advantage of opening up contacts with military leaders who are key players in the Kim Jong Il regime.

Agreement on a firm schedule for food aid should be linked directly to a companion agreement on a timetable for redeployment of weaponry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and relat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U.S.-South Korean goal should be phased pullback of a substantial number of the North's artillery and rocket launchers to a distance out of reach of Seoul, beginning with significant pullbacks simultaneous with the first 600,000 tons of food aid.

As part of such a deal,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pullbacks of their own at some point, and for possible relocation of some American air power.

Washington should condition U.S.-North Korean, Military dialogue on the presence of South Korean generals as observers.

and on North Korean agreement to parallel meetings of the North-South Military Commission. Before actually concluding an agreement, Washington and Seoul could insis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ilateral mechanism to oversee the pullback process.

Another Key part of a "Food for Peace" deal would be North Korean gestures to Japan on disputed issues such as permission for Japanese wives of North Koreans to visit Japan. With 3 million tons of surplus food in storage, Tokyo is the key to large-scale food aid.

다. M. O'hlanon(브루킹스연구소), 워싱턴 타임즈  
(97.9.26)

한국과 미국은 평화회담을 하다 보면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별안간 진지해지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정치적 대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동의하리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 군사주의정권이 스스로 주요 양보를 해줄 것 같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에서 채택해온 참을성 있는 접근방식에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반도 대결의 점진적 완화조치를 취하면 그 대가로 북한에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등 종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제안을 시도해볼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주요 군축에 동의하고 관계정상화를 해오면 그들에게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해줄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해주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믿을 만한 동맹국이 아니지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협정의 옵서버이자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같은 일괄제안은 북한으로서는 당장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안은 통일이러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좀더 실용적이고 단기적 효용성이 있는 선명하고 구체적 목표를 유도할 것이다. 이에 북한당국도 관심을 가질 법하다. 그들은 1994년 원자로협상 때 이미 대담한 계획을 고려할 용의를 보여준 바 있다. 그때 합의로 북한은 좀더 안심할 만한 핵발전소 보유의 길이 열렸고 단기적으로는 중유를 얻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군사력이 압박한 위협도 한 요인으로 계산에 넣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요핵심은 북한당국이 그들의 중요한 이익과 상관있는 진지한 제의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추가식량원조를 제공하고 농업 및 공중보건을 돕는 주민지원 노력말고도 일정한 액수의 자금-5년에 걸쳐 10억달러 정도라든가-을 제



공해서 중국 서남부지역 경우처럼 특별경제구역을 북한에도 만들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외국자금을 제공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시스템 일부를 유지함으로써 체면을 잃지 않는 가운데 도로건설, 항구 개량도 하고 북한경제발전을 촉발케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에도 길을 터줄 것이다.

다만 북한은 그런 원조를 받기 전에 서울과 그밖에 한국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제레식 군사위협을 감축을 게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포대는 후퇴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전차 포대, 그밖의 주요 전투장비를 한미 양국 보유수준과 맞먹게 감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법에서의 CFE조약체제와 비슷하게 된다.

Michael O'Hanlon, Negotiating a new North Korea  
(The Washington Times '97.9.26)

Seoul and Washington seem to be hoping that, at some point in these peace talks, North Korea will suddenly get religion and agree to de-escalate the military and political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But its militarist regime is unlikely to offer up major concessions on its own.

Given these conditions, the patient approach that Seoul and Washington have adopted in talks with Pyongyang to date needs to be changed. A much more sweeping proposal that promises North Korea large benefits in return for steps to de-escalate the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should be attempted.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offer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aid and firm commitments to guarantee North Korea's security in exchange for a major arms control agreement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China, though no longer the reliable ally of North Korea that it once was, could act as an observer and monitor of the agreement to give North Korea confidence.

Clearly, this package might not be acceptable to North Korea right away. But it would introduce a clear and concrete goal, of more practical and near-term utility than the ultimate objective of Korean reunification.

And Pyongyang might well be interested. It has already demonstrated its willingness to consider bold plans for the 1994 nuclear reactor deal. That agreement is providing North Korea access to more reliable nuclear power plants, and some heavy oil

in the short term. U.S. military threats also undoubtedly factored into its calculations then. But the main point is that Pyongyang has already shown itself capable of responding to serious appeals to its core interests.

In addition to more food aid and grassroots efforts to help with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public health, Seoul and Washington could offer a specific amount of money--say \$1 billion over five years - to undertake more ambitious projects in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those in southeastern China. Foreign funds could help build roads, improve ports and otherwise pave the way to private investment that could kick-start the North Korean economy - while allowing Pyongyang to save face by holding onto at least part of its "Juche" system of self-reliance.

Before receiving the aid, however, North Korea would have to start reducing it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to Seoul and other parts of South Korea. Its long-range artillery that is within range of Seoul would have to be pulled back. Also, overall levels of tanks, artillery and other major combat items should be reduced to roughly the same total as combined U.S.-South Korean forces maintain on the peninsula--akin to the CFE Treaty in Europe.

## 라. K. Quinones(평화문제연구소), 문화일보('97.12.8)

워싱턴의 11월은 한국의 달이었다. 10월은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의 방미로 인해 중국의 달이었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장주석이 미국을 떠난 뒤 한반도로 관심을 돌렸다.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워싱턴포스트지는 평소와는 다르게 북한과 한국에 관해 수많은 기사를 실었다. 또 거의 매일 한국에 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민간 연구소와 대학에서 열렸다. 대부분의 관심사는 북한이었으나, 한국 또한 대통령 선거와 경제위기로 인해 적지않은 주목을 끌고 있다.

### 미 지원에 북 정권 지탱할 듯

워싱턴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의 행동을 극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는 또 미국외교의 기본인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존경을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북한처럼 전쟁발발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일하는 동맹으로 인식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정부의 붕괴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정권을 그럭저럭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 등 물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관측통들은 말한다. 또 중국도 평양에 생필품을 원조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북한의 전쟁 도발 능력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나옴직하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폐쇄성을 들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렸다고 여긴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지도부는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원조식량 군 전용 기미 없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식량이 북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AID)직원들이 지난달 초 북한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돌아왔을 때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내년에 1백50만~2백만t의 식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현재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초점은 미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원조해야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식량위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다. 클린턴 행정부의 비평가들은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으로 하여금 전문 요원들을 북한에 많이 파견토록 해 식량 배급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한 WFP와 미정부가 북한의 원조식량 배급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WFP, 한국의 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들로부터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의 군수물자로 전용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드물다.

한편, 오랜만에 한국이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가 표면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선거문제가 단연 미국 언론의 화제였다. 워싱턴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인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대신 미국인들은 진심어린 기대감을 갖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정치의 전반적인 경향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타파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 동맹인 한국 경제난 도울 것

워싱턴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같은 경제 문제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서울과 도쿄(東京)의 경제위기가 긴장한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움이 생겨났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도울 것이라는 점이다. 왜 그러한가. 미국인들

은 기독교의 정신적 가치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하곤 한다.

그들은 선한 친구들을 즐겨 돕고 나쁜 친구들에 대해선 벌을 준다. 서울은 좋은 친구다.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국제 법질서를 존중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즘 워싱턴에는 한국을 돕는데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한국을 돕느냐는 것이다.

인내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도움이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미국의 좋은 우방인 것이다.

## 제2장    일    본

# 1. 정책 보고서



## 가. 일미안전보장공동선언('96.4.17, 동경)

### 지역정세

냉전종결후,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수년간 이지역의 여러나라 사이에 정치 및 안전보장관련 대화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원칙이 점차 존중되어가고 있다. 역사상 유래없는 번영이 꽃피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력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지역은 여전히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이 여전히 대량으로 집중되어 있다. 미해결된 영토문제, 잠재적인 지역분쟁,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모두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 일미동맹관계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미정부는 이지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일미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전보장 과제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총리와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과의 사이의 동맹관계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양자는 「일본과 아메리카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하, 일미방위조약)을 기반으로하는 양국간의 안전보장면에서의 관계가 공통의 안전보장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적으로 번영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기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총리와 대통령은 냉전후의 안전보장정세하에서 일본의 방위력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1995년 11월 책정된 신방위계획대강

에서 명기된 일본 방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치는 일미간의 긴밀한 방위협력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 협력은 자위대의 적절한 방위능력과 일미안보체제의 조화에 기초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일미안전보장의 근거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2)총리와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불가결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두 정상은 일미간의 안전보장면에서의 관계는 이지역에있어 미국의 긍정적 개입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주의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일본방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임무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냉전 종결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비군전략에 대해 일정한 조정이 행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엄밀한 평가에 기초해 현재의 안전보장정세하에서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이지역에서 약 10만명의 전방전개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병력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 일본은 이지역에 있어서 안정적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를 환영했다. 일본은 일본에서 미군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이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한 시설 및 구역의 제공 및 접수국지지 등을 통한 직접한 기여를 계속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기여를 평가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신 특별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 일미간 안전보장 관계에 기초한 양국간 협력

일미는 이와같은 매우중요한 안보면에서의 관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 했다.

(1)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긴밀한 방위협력이 미일 동맹관계의 중심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국제정세,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보다 강화한다. 동시에 국제안보정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정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위정책 및 일본에서의 미군 병력 구성을 포함한 군사태세에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2) 양국정부는 일미간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계 증진을 위해 1978년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정부는 일본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경우 미일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미일간의 정책조정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3) 양국정부는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간의 후방지원,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한 일미정부간 협정」이 1996년 4월 15일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이 일미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촉진하게되기를 기대한다.

(4) 양국정부는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의 모든측면에 있어서 상호운영의 중요성에 유의, 차세대 지원전투기(F-2) 등의 장비에 대한 일미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한 기술과 장비분야에서의 상호교류에 충실한다.

(5) 양국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은 양국공통의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했다. 양국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함께 행동해가며, 이미 진행중인 탄도미사일방위에 관한 연구에 계속 협력한다.

양국정부는 일미안보체제의 중핵적 요소인 미군의 원활한 주둔에 광범한 일본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불가결하다고 인식, 양국정부는 미군의 존재와 지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미군 시설 및 구역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대해 일미 정부는 일미안보조약 목적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정리하고 축소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정부는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통해 얻어진 진전에 만족을 나타내면서 1996년 11월까지 SACO 작업이 성공리에 끝낼 수있도록 확고한 약속을 하였다.

### 지역에서의 협력

양국정부는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위해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양국정상은 일미간의 안보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정상은 이지역에서의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정상은 이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 중국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금 깊이해나가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에서 진행중인 개혁과정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를 계속하여 중용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정상은 또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동경선언에 기초한 일러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일미관계에 있어 극히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를위해 양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해나기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정상은 ASEAN지역포럼과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에 관한 대화 및 협력의 틀을 더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혹은 지역내의 다른나라와 함께 작업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다.

### 지구적규모에서의 협력

일미은 일미안보조약이 일미동맹관계의 중핵이며,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일미협력의 기반인 상호신뢰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일미은 양국정부가 평화유지활동이라든가 인도적인 국제구호활동 등을 통해 유엔, 기타 국제기구를 지원하기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양국관계는 전면적핵실험금지조약(CTBT)교섭의 촉진 및 대량파괴무기 및 그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포함하여, 군비관리 및 군축 문제에 대한 정책조정과 협력을 한다. 일미은, 유엔 및 APEC에서의 협력과 북한의 핵개발문제, 중동평화과정 및 구유고에서의 평화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이 공유한 이익과 기본적가치가 보다 확실히 확보된 세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 결어

마지막으로 일미은 안전보장, 정치 및 경제라고하는 일미관계의 3가지 기축은 모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관 및 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일미안보조약에 의해 나타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일미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시기에 성공을 거두어온 안전보장협력의 역사위에서서 행동할 것이라는 강한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96.4.17, 東京)

### 地域情勢

冷戦の終結以来、世界的な規模の武力紛争が生起する可能性は遠いのである。ここ数年來、この地域の諸國の間で政治及び安全保障についての對話が擴大してきている。民主主義の諸原則が益々尊重されてきている。歴史上かつてないほど繁榮が廣がり、アジア太平洋という地域社會が出現しつつある。アジア太平洋地域は、今や世界で最も活力ある地域となっている。

しかし同時に、この地域には依然として不安定性および不確實性が存在する。朝鮮半島における緊張は續いている。核兵器を含む軍事力が依然大量に集中している。未解決の領土問題、潜在的な地域紛争、大量破壊兵器及びその運搬手段の擴散は全て地域の不安定化をもたらす要因である。

### 日米同盟關係と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條約

總理大臣と大統領は、この地域の安定を促進し、日米兩國が直面する安全保障上の課題に對處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た。これに關連して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本と米國との間の同盟關係が持つ重要な價値を再確認した。兩者は、「日本國とアメリカ合衆國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條約」(以下、日米防衛條約)を基盤とする兩國間の安全保障面の關係が、共通の安全保障上の目標を達成するとともに、21世紀に向けて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安定的で繁榮した情勢を維持するための基礎であり、續けることを再確認した。

(1)總理大臣は、冷戦後の安全保障情勢の下で日本の防衛力が適切な役割を果たすべきことを強調する1995年11月策定の新防衛計劃大綱において明記された日本

の防衛のための最も効果的な取組みは、日米兩國間の緊密な防衛協力であるとの点で意見が一致した。この協力は、自衛隊の適切な防衛能力と日米安保体制の組みあわせに基づくものである。両首脳は、日米安全保障の據り所であることを改めて確認した。

(2) 総理大臣と大統領は、米國が引き続き軍事的プレゼンスを維持すること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維持のためにも不可欠であ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両首脳は、日米間の安全保障面の関係は、この地域における米國の肯定的な関与を支える極めて重要な柱の一つとなっているとの認識を共有した。大統領は、日本の防衛及び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対する米國のコミットメントを強調した。大統領は、冷戦の終結以来、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米軍戦力について一定の調整が行われたことに言及した。米國は、周到な評価に基づき、現在の安全保障情勢の下で米國のコミットメントを守るためには、日本におけるほぼ現在の水準を含め、この地域において、約10万人の前方展開軍事要員からなる現在の兵力構成を維持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た。

(3) 総理大臣は、この地域において安定的な存在であり続けるとの米國の決意を歓迎した。総理大臣は、日本における米軍の維持のために、日本が、日米安保條約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の提供及びに接受國支援等を通じ適切な寄与を繼續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大統領は、米國は日本の寄与を評價することを表明し、日本に駐留する米軍に対し財政的支援を提供する新特別協定が締結されたことを歓迎した。

#### 日米間の安全保障面の関係に基づく二國間協力

総理大臣と大統領は、この極めて重要な安全保障面での関係の信頼性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以下の分野での協力を前進させるために努力を拂う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1) 兩國政府は、兩國間の緊密な防衛協力が日米同盟關係の中心的要所であることを認識した上で、緊密な協議を繼續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兩國政府は國際情勢、とりわけアジア太平洋地域についての情報および意見の交換を一層強化する。同時に國際的な安全保障情勢において起こりうる變化に対応して、兩國政府の必要性を最も良く満たすような防衛政策並びに日本における米軍の兵力構成を含む軍事態勢について引き続き緊密に協議する。

(2) 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本と米國との間に既に構築されている緊密な協力關係を増進するため、1978年の「日米防衛協力をための指針」の見直しを開始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兩首腦は、日本周辺地域において發生しうる事態で日本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場合における日米間の協力に關する研究をはじめ、日米間の政策調整を促進する必要性につき意見が一致した。

(3) 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本國の自衛隊とアメリカ合衆國軍隊との間の後方支援、物品又は役務の相互の提供に關する日本國政府とアメリカ合衆國政府との間の協定」が1996年4月15日署名されたことを歓迎し、この協定が日米間の協力關係を一層促進するものとなるよう期待を表明した。

(4) 兩國政府は、自衛隊と米軍との協力のあらゆる側面における相互運用性の重要性に留意し、次期支援戦闘機(F-2)等の裝備に關する日米共同研究開發をはじめとする技術と裝備の分野における相互交流を充實する。

(5) 兩國國民は、大量破壊兵器及び運搬手段の擴散は、兩國の共通の安全保障にとり重要な意味合いを有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認識した。兩國政府は、擴散を防止するため共に行動していくとともに、既に進行中の彈道ミサイル防衛に關する研究において引き続き協力を行う。



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米安保体制の中核的要素である米軍の圓滑な日本駐留にとり、廣範な日本國民の支持と理解が不可欠であることを認識した。 兩首腦は、兩國政府が米軍の存在と地位に關連する諸問題に對應するためあらゆる努力を行う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特に、米軍の施設及び區域が高度に集中している沖繩について、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米安保條約の目的との調和を図りつつ、米軍の施設及び區域を整理し、縮小するために必要な方策を実施する決意を再確認した。 このような觀點から、兩首腦は、「沖繩に關する特別行動委員會(SACO)」を通じて得られた重要な進展に満足の意を表するとともに、1996.11までに、SACOの作業を成功裡に結實させるとの確固たるコミットメントを表明した。

#### 地域における協力

總理大臣と大統領は、兩國政府が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情勢をより平和的で安定的なものとするため、共同でも、個別でも努力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これに關連して、兩首腦は、日米間の安全保障面の關係に支えられたこの地域への米國の關與が、こうした努力の基盤とな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た。 兩首腦は、この地域における諸問題の平和的解決の重要性を強調した。 兩首腦は、この地域の安定と繁榮にとり、中國が肯定的かつ建設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を強調し、この關連で、兩國は中國との協力を更に深めていくことに關心を有することを強調した。 ロシアにおいて進行中の改革のプロセスは、地域及び世界の安定に寄与するものであり、引き続き慫慂し、協力するに足るものである。 兩首腦は、ま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り、東京宣言に基づく日露關係の完全な正常化が重要であるとのべた。 兩者は、朝鮮半島の安定が日米關係にとり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にも留意し、そのために兩國が、韓國と緊密に協力しつつ、引き続きあらゆる努力を拂っていくことを再確認した。

總理大臣と大統領は、ASEAN地域フォーラムや、将来的には、北東アジアに関する安全保障對話のような、多数國間の地域的安全保障についての對話および協力の仕組みを更に發展させるため、兩國政府が共同して、及び地域内の他の國々と共に、作業を繼續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

### 地球的規模での協力

總理大臣と大統領は、日米安保條約が日米同盟關係の中核であり、地球的規模の問題についての日米協力の基盤たる相互信賴關係の土臺とな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た。總理大臣と大統領は、兩國政府が平和維持活動や人道的な國際救護活動等を通じ、國際聯合その他の國際機構を支援するための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兩國關係は、全面的核實驗禁止條約(CTBT)交渉の促進並びに大量破壊兵器及びその運搬手段の擴散の防止を含め、軍備管理及び軍縮等の問題についての政策調整および協力を行う。兩首腦は、國連及びAPECにおける協力や北朝鮮の核開發問題、中東平和プロセス及び舊ユーゴにおける和平執行プロセス等の問題についての協力を行うことが、兩國が共有する利益及び基本的價値が一層確保されるような世界を構築する一助となるとの点で意見が一致した。

### 結語

最後に、總理大臣と大統領は、安全保障、政治及び經濟という日米關係の3本柱は全て兩國の共有する價値觀および利益に基づいており、また、日米安保條約により體現された相互信賴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との点で意見が一致した。總理大臣と大統領は、21世紀を目前に控え、成功を収めてきた安全保障協力の歴史の上に立って、行動していくとの強い決意を再確認した。

## 나. '97년도 외교청서(관련부분)

### 1. 일본의 안전 확보

냉전후 국제사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유동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둘러싼 아태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하여 정치적·사회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있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와 다수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확충·근대화,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계속 등 여전히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

이러한 안전보장환경중 일본은 1) 미·일안보체제의 견지, 2) 적절한 방위력의 정비, 3)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3가지 안전보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미·일안보체제(2.참조)

#### 2) 방위력 정비

일본은 헌법하에서 전수방위에 전념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질도있는 방위력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95.11.28 「방위계획의 대강」이 19년만에 개정되어, 신방위계획대강이 안전보장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3) 국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노력

국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안정과 번영은 아태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전체의 평화 및 번영과 불가분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a)개개의 분쟁·대립의 해결을 도모하고, b)아태지역에 있어서 상호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안보 대화 및 협력, c)역내 각국의 경제발전 지원·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증대라고 하는 다양

한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양자 대화로서는 94년부터 일·중안보대화가 개최되었고, 96년 1월에 3번째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을 중심으로하는 협력이 있지만, 앞으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화에 대해서는 ASEAN지역포럼에서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평화유지 활동(PKO) 등에 의한 지역분쟁에 대한 대처, 군비관리·군축, 불확산에 대한 노력, 구주와의 안전보장면에서의 대화·협력 등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안정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견지에서 중요하다.

## (2) 일미안전보장체제

### ① 「일미안보체제」의 의의

일본은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정책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한 미국의 억지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미안보체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광범한 일미협력관계의 정치적기반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요인으로서 미국의 주둔을 확보하고 이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위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 ② 「일미안전보장공동선언」

이러한 인식하에 일미안보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안전보장면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미간 긴밀한 대화와 의견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10년이상에 걸친 이러한 긴밀한 대화의 성과로서 4월 클린턴대통령 방일시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대통령에 의한 일미안전보장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일미안보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일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내외에 밝혔다는 의미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③ 「일미방위협력지침」 개정

1978에 만들어진 현행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이 처음으로 시사된 것은

일미안보공동선언에서이다. 이 「지침」개정작업은 95년 11월에 결정된 신방위대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며 냉전후의 새로운 안전보장정세하에 일미간의 방위협력을 보다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6월에는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하부기관인 방위협력소위원회를 개편하여 이 개정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체제를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9월의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지침」개정작업의 진척상황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이 작업을 97년가을에 종료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개정작업에는 일미안보공동선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 미일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작업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틀내에서 일미동맹관계의 기본적 틀을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양국에서 국내 및 주변국의 이해를 증진하기위해 개정작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 '97 外交青書

### 1. 日本の安全の確保

#### 総論 一 日本の安全保障政策の三つの支柱

冷戦後の国際社会には、依然として様々な流動的要素が存在している。また、日本を取り巻くアジア太平洋地域は、高い経済成長をも背景に、政治的・社会的な安定性を高めつつあるものの、核戦力を含む大規模な軍事力の存在や、多数の国による軍事力の拡充・近代化、朝鮮半島における緊張の継続など、依然として不透明・不確実な要素が残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安全保障環境の中、日本は、(イ)日米安全保障体制の堅持、(ロ)適切な防衛力の整備、(ハ)国際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外交努力、という三つの柱からなる安全保障政策を推進している。

(イ) 日米安保体制（下記（2）参照）

(ロ) 防衛力整備

日本は、日本国憲法の下、遵守防衛に徹し、他國に脅威を与えるような軍事大國にならないとの基本理念に従い、節度ある防衛力の整備に努めている。この基本方針に則り、95年11月、「防衛計画の大綱」（76年10月29日国防會議・閣議決定）が19年振りに見直され、「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新防衛計画人綱）が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にて決定された。

(ハ) 国際の平和と安定を確保するための外交努力

國際的な相互依存が深まりつつある今日、日本の安定と繁榮は、アジア太平洋地域、ひいては世界全体の平和と繁榮と不可分一体に結びついてい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日本の安全と地域の平和と安定を確保していくためには、米軍の存在

を前提としつつ、(a) 個々の紛争・対立の解決を図り、地域の安定を図っていくための二国間ないし関係国間の対話と協力、(b) アジア太平洋全域における、お互いの政策透明性と安心感を高めるための政治・安全保障対話及び協力、(c) 域内各国の経済発展への支援・協力を通じた地域の政治的安定性の増大といった、様々なレベルでの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北東アジアにおける二国間対話としては、94年より日中安全保障対話が開催された。また、この地域の関係国間の協力としては、北朝鮮の核問題解決のための日米韓を中心とする協力があるが、今後は中長期的観点から北東アジア地域の安定に全域的政治・安保対話については、ASEAN地域フォーラムにおける対話が進められている(ARFについては、第1章2.(2)参照)。以上に加え、平和維持活動(PKO)などによる地域紛争への取組、軍備管理・軍縮、不拡散への努力、欧州との安全保障面での対話・協力なども、日本を含めた世界の安定の確保に貢献するという見地から重要である。

## (2) 日米安全保障体制

### ①〔日米安保体制の意義〕

日本が、必要最小限の防衛力を保持するとの政策の下、平和と繁栄を享受していくためには、今後とも日米安保条約に基づく米国の抑止力が必要である。また、日米安保体制は、国際社会における広範闊大な日米協力関係の政治的基盤となっており、さら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定要因として米国の存在を確保し、この地域の平和と繁栄を促進するためにますますその重要性を高めてきている。

### ②〔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

この様な認識の下、日米安保体制を効果的に運用し、安全保障面での協力を進めていくため、日米間では、密接な対話と意見交換が重ねられている。過去1年以上にわたるこのような緊密な対話の成果として4月のクリントン大統領訪日時に、橋本総理大臣とクリントン大統領により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が発出された。この宣言は日米安保体制の重要な役割を改めて確認するとともに、21世紀に向け

た日米同盟關係のあり方につき内外に明らかにしていくという意味で極めて重要な意義を有する。

### ③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

1978年に策定された現行の「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の開始も、日米安保共同宣言において表明された。この「指針」見直し作業は、95年11月に決定された新防衛大綱の内容と調和を保ちつつ、冷戦後の新たな安全保障情勢の中で、日米間の防衛協力を一層増進するために行われるものである。6月には、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の下部機構である防衛協力小委員會を改組し、この見直し作業を効果的に行うための体制を整備し、作業に着手した。そして、9月の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において「指針」見直し作業の進捗状況報告が出され、この作業が97年秋に終了することを目途に行われ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

この見直し作業においては、日米安保共同宣言において示されたとおり、日本周辺地域において発生し得る事態で日本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場合における日米間の協力に関する研究を始めとする検討が行われているが、この作業はあくまでも日本國憲法の枠内で、日米同盟關係の基本的な枠組みを更更することなく行われるものである。また、兩國の國內及び近隣諸國にあける理解を増進するため、見直し作業の透明性を保つよう配慮する方針である。



## 다. '97 국방백서(관련부분)

### 제1장 국제 군사정세

#### 제4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정세

##### 〈한반도의 군사정세〉

한반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 한반도에 서는 현재 한국과 북한을 합쳐 150만명정도의 지상군이 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냉전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김정일서기는 제도상으로는 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 있지만 국가주석, 당총서기라는 국가·당의 최고지위는 공석인 채로 있다. 외교면에서는 과거부터 북한을 지지해왔던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변화가 보여진다.

북한은 4대군사노선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북한은 경제부문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군사면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군사력의 근대화를 도모, 즉응태세의 유지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개발의혹 및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위해 개발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 제2장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의 구축에 대한 일본의 공헌

### 제1절 기본입장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안정적 안보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양자 동맹, 우호관계와 미군의 존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일본헌법아래서 외교노력의 추진 및 내정의 안정에 의한 안전보장기반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전수방위에 철지를 기하는 한편,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고 문민통제를 확보하며, 비핵3원칙을 준수하여 절도있는 방위를 자주적으로 정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방위력의 정비와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구주와는 다른 아태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의 구축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하고 있다.

## 제3장 일본의 방위정책

### 제1절 일본방위의 기본입장

#### 1. 일본의 안전보장

일본의 번영은 국민의 애지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자유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전후 반세기 가까이 걸쳐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나라의 안전을 보전해 왔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본의 안전과 번영은 세계의 안전·번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반면 현재의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의 활동을 비롯하여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침략의 위협이 완전히 없는 진정한 안전보장환경의 확립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일본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수단으로서는 국제정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노력, 내정의 안정에 의한 안전보장기반의 확립, 스스로의 방위노력 및 일미안보체제의 견지를 들 수 있다.

외교와 내정분야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실력을 동반한 침략을 반드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경우 이를 물리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전을 담보하는 적절한 방위체제를 견지하고, 그 신뢰성을 높여 조그만 틈도 없는 방위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 '97年度 国防白書

## 第1章 国際軍事情勢

### 第4節 アジア太平洋地域の軍事情勢

#### 1 全般情勢

冷戦終結後、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は、軍事情勢に些変化が見られる。極東ロシア軍は、90年以降、量的に縮小傾向にあるとともに、即応態勢も低下していると思われる。また、韓国とソ連、韓国と中国との間の国交樹立、米國とヴェトナムの関係正常化、さらには、長年対立関係にあった中露間の大幅な関係改善など、外交関係にも変化が見られる。

しかし、この地域には、依然として核戦力を含む大規模な軍事力が存在し、世界で最も著しい経済成長を背景に、多くの國々が国防費の増額や新装備の導入など軍事力の拡充・近代化を図っている。また、この地域には、我が國の北方領土や竹島、朝鮮半島、南沙群島などの諸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下、米國を中心とする二國間の同盟・友好関係とこれに基づく米軍の存在が、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引き続き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が、近年、この地域においても、域内の政治・安全保障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ており、二國間の軍事交流の機會の増加が見られるほか、ARFのような地域的な安全保障に関する多國間の對話の努力も定着しつつあるところである。

#### 2 朝鮮半島

##### (1) 全般状況

朝鮮半島は、地理的、歴史的に我が國と密接な関係にある。まだ、朝鮮半島

の平和と安定は、我が國を含む東アジア全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重要である。

朝鮮半島においては、現在、韓国と北朝鮮を合わせて150万人程度の地上軍がDMZを挟んで對峙している。このような軍事的對峙の状況は、朝鮮戦争終了以降續いており、冷戦終結後も基本的に変化していない。

## (2) 北朝鮮の状況

1. 北朝鮮は、長期にわたる經濟不振が續いており、特に食糧事情についてはかなり深刻な状況にあるものと見られる。また、金正日書記は、制度上は軍を完全に掌握する立場にあるものの、國家主権、當總書記という國家・黨の最高ポストは空席のままである。外交面では、かつて北朝鮮を支えてきたロシアなどとの關係に変化が見られる。

2. 北朝鮮は、4大軍事路線に基づいて軍事力を強化してきた。北朝鮮は、經濟不振が深刻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現在も依然として軍事面に資源を重点的に配分し、軍事力の近代化を図り、即応態勢の維持強化に力を注いでいると見られる。

さらに、北朝鮮は、核兵器開發疑惑を持たれているほか、弾道ミサイルの長射程化のための開發研究を行っていると見られ、北朝鮮のこのような動きは朝鮮半島の軍事的緊張を高めており、我が國を含む東アジア全域の安全保障にとって重大な不安定要因となっている。

## 第2章 より安定した安全保障環境の構築への我が國の貢獻

### 第1節 考え方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は、安定的な安全保障環境が構築されるには至っておらず、米國を中心とする二國間同盟・友好關係と米軍の存在が、地域の平和と安定に重要な役割を果している。

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我が國は、日本國憲法の下外交努力の推進及び内政の

安定による安全保障基盤の確立を図りつつ、専守防衛に徹し、他國に脅威を与えるような軍事大國とならないという基本理念に従い、日米安保体制を堅持し、文民統制を確保し、非核三原則を守りつつ、節度ある防衛上を自主的に整備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る。

そこで、我が國は、そ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適切な防衛力の整備や日米安保体制の信頼性向上に努める一方、これらの努力を補完するものとして、歐州とは異なるアジア太平洋地域の状況を踏まえつつ、日米間の緊密な協力関係を基盤に、より安定した安保環境の構築に向けて、さまざまな貢献を行っている。

### 第3章 我が國の防衛政策

#### 第1節 我が國防衛の基本的考え方

##### 1. 我が國の安全保障

我が國の今日の繁榮は、國民の叡知と努力の賜物であるが、その背景には、自由主義國家の一員として、戦後半世紀近くにわたり、外國からの侵略を受けることもなく、國の安全が保たれてきたことがある。

我が國の安全と繁榮は世界の安全と繁榮と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他方、今日の國際社會においては、國連の活動を始めとして、より安定した國際秩序の確立を目指してさまざまな努力が續けられているが、侵略のおそれの全くない眞に平和な安全保障環境の確立には至っていないのが現實である。

平和や安全を得るためには、國際社會の現状に照らし、我が國の環境に則して適切な手段を講ずることが必要である。その手段としては國際政治の安定を確保するための外交努力、内政の安定による安全保障基盤の確立、自らの防衛努力及び日米安保体制の堅持がある。

外交や内政の分野の努力のみでは、外國からの實力をもってする侵略を必ずし

も未然に防止することはできず、また、萬一侵略を受けた場合に、これを排除することもできない。

このため、我が國は、その安全を擔保すべく、自ら適切な規模体制を堅持し、その信頼性を向上させて隙のない防衛態勢を構築することにより侵略を未然に防止し、萬一侵略を受けた場合にはこれを排除すること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努力は、我が國の安全を確保する上での必須の要件であるのみならず、アジアひいては世界の平和と安全にも資することとなる。

## 2. 행정부인사 연설문



## 가. 橋本 총리대신, 국회 소신표명연설('97.9.29)

미소 대립의 종언으로 정치, 경제 양면에 걸쳐 세계는 일체화 되었지만 국지적인 지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 우리나라의 안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외교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나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외교기축인 일·미관계 그리고 근간이 되는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작년 4월 클린턴대통령과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하고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미안전조약 및 그 관련 규정 밑에 권리의무 및 일·미 동맹관계의 기존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이 지침의 전제라는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 새로운 지침의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주변 이웃나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사태 대응책의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검토의 성과 또한 포함하여 새로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법적 측면을 포함해서 검토한 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구주에서는 NATO, EU를 중심으로 안전보장, 경제분야에서 보다 많은 안정과 번영을 위한 틀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움직임에 시야에 넣으면서 소위 태평양에서 볼 때 「유라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신뢰의 끈을 강화하고 보다 넓고, 보다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관

계의 안전한 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6월의 덴버-정상회담에서 엘친대통령에 대해 동경선언을 착실히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11월에 나시 동 대통령과 만나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시점」이라는 3가지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일·러관계 진전의 초석으로 하고자 한다.

올해보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일·중국교정상대화로부터 정확히 25년, 내일은 일·중평화우호조약의 체결에서 20주년이 된다. 이번에 나는 중국을 방문, 중국 요인과 의견교환을 하고, 계속하여 이번 가을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정상방일 기회에 안전보장분야를 필두로 여러 수준에서 대화를 깊게 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함과 함께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의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일·중우호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이 기본이다. 현재 일·북간에는 국교정상화교섭 재개문제와 일·북한간 현안에 관한 회담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한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양국간 관계와 아울러 아태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바람직한 사이클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APEC, ASEAN 지역포럼과 같은 지역적인 틀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지역분쟁, 군축·불확산, 테러, 개발, 환경, 에너지 등 냉전 후의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가함과 동시에 특히, 유엔에서의 국제협력에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 등 유엔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유엔이 시대의 요청에 적절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입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유엔개혁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가운데 지구온난화문제는 전세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12월 교토에서 열릴 「기후변동에 관한 조약체약국회의」에서 지구온난화방지에 의미있고 균형있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합의될 수 있도록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에 있어서는 산업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민생, 운수부문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생활태도의 변경을 비롯한 가능한한 협력을 부탁드린다.

#### ※ 「유라시아 외교」

하시모토 수상이 「세계외교의 초점은 대서양·구주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하여 유라시아대륙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용어.

특히 일본에 인접한 러시아, 중국의 귀추가 「향후 국제질서 형성의 열쇠가 된다」고 함으로써 지난 여름 양국과의 외교에 관한 신 방침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대러외교는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이라는 3원칙을, 대중외교는 상호이해, 대화의 강화, 협력관계의 확대, 공통의 질서형성이라는 4원칙을 각각 내걸었다.

## 141回 國會における 橋本 總理大臣の 所信表明演説

### (外交)

米ソ對立の終焉は政治、 經濟の兩面にわたり世界を一体化させることとなりましたが、 局地的な地域紛争が生じる可能性は依然として残っております。 こうした情勢の下で、 わが國の安全、 そ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全をどう實現するかはわが國が當面する外交上の最も重要な課題であります。

私は、 この課題に応えるために、 わが國外交の機軸である日米關係、 そしてその根幹である日米安全保障体制の信頼性を高めたいと考え、 昨年四月、 クリントン大統領と「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を見直すことに合意し、 今般、 新たな指針が取りまとめられました。 わが國が専守防衛に徹し、 日本國憲法の範圍内で役割を果たすこと、 そして日米安保條約及びその關連取極下での權利義務並びに日米同盟關係の基本的枠組みを変更しないことが この指針の前提であることは當然であります。 今後、 新たな指針の内容について國民の皆様、 そして近隣諸國の理解を得るよう努力いたします。 同時に、 政府は、 わが國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態に對応できるよう、 緊急事態對心策の検討などを進めております。 今後これらの検討の成果をも踏まえながら、 新たな指針の實效性を確報する作業を急ぎ、 法的側面を含めて検討の上必要な措置を講じてまいります。

歐州では、 NATO、 EUを中心として安全保障、 經濟の分野で一層の安定と繁榮を目指した枠組みの構築が進められております。 私は、 アジア東の端に位置するわが國が、 こうした動きを視野に入れながら、 いわば太平洋から見た「ユーラシア外交」ともいふべき新たな外交構想し、 實行していく好機が到來してい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ロシア、 中國、 韓國などとの信頼の絆を強め、 より廣く、 より深い協力關係を構築するより努力いたします。

ロシアとの間では、 北方領土問題を解決し、 平和條約を締結して兩國關係の安全な正常化を達成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 私は、 六月のデンヴァー・サミッ

トにおいて、 エリツイン大統領に對し、 東京宣言を着實に前進させ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強調しましたが、 十一月に再び同大統領とお會いし、「信頼」、「相互利益」、「長期的な視点」という三つの原則に沿って、 新たな日露關係の展望を開く基礎とした と考えております。

本年、 より正確に言えば本日は、 日中國交正常化からちょうど二十五年、 明日は日中平和友好條約の締結から二十周年に当たります。 私は中國を訪問し、 中國要人と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 これに續き、 この秋 豫定される中國首腦の來日の機會をとらえ、 安全保障の分野をはじめとして様々なレベルで對話を深め、 信頼關係を強化するとともに、 アジア太平洋、 ひいては世界の發展に共に寄与していけるような日中友好關係を確立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朝鮮半島に關しては、 韓國との友好協力關係の増進が基本であります。 現在、 日朝間では國交正常化交渉の再開問題や日朝間の諸懸案に關する話合に一定の前進が見られます。 今後とも、 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向け、 韓國など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對處いたします。

これらの二國關係に加え、 アジア太平洋地域の經濟的繁榮と政治的安定の好ましい循環を更に發展させるために、 APEC、 ASEAN地域フォーラムのような地域的な枠組みの強化に努めます。

わが國は、 本年から明年末までの間、 國連安全保障理事會の非常任理事國を務めており、 地域紛争、 軍縮、 開發、 環境、 エネルギー等の冷戦後の國際社會が共通して直面する課題の克服に積極的に参与するとともに、 特に、 國連における國際協力の誠實に努力してまいります。 同時に、 國連事務總長の提案など國連改革の動きが活潑になっている現在國連が時代の要請に適合した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るよう、 わが國の安保理常任理事國入りの問題を含め、 全体として均衡のとれた形での國連改革の實現に努力いたします。

國際和合が直面する課題のなかでも地球温暖化問題は、 全世界的な對応が求められる極めて重要な問題です。

十二月に京都で開催される「気候変動枠組条約三回締約国会議」において、地球温暖化防止に、意味があり、衡平で、実現可能性の目標が合意されるよう、わが国は開催国として最大限努力いたします。同時に、国内においては、産業部門は言うまでもなく、民生、運輸部門においてもできる限り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民の皆様には、この問題の大切さをご理解いただき、ライフスタイルの変更をはじめ、できる限りの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 ※「ユーラシア外交」

橋本龍太郎首相が「世界外交の焦点は、大西洋・欧州から、アジア大陸に移った」との認識に基づき、ユーラシア大陸との外交に積極的に取り組む姿勢を示すためにつくった標語。

特に日本に隣接するロシア、中国の歸すうが「今後の国際秩序形成のカギとなる」として、今夏兩國との外交に關して相次いで新方針を提唱した。

對口外交は信頼、相互利益、長期的觀點の原則を、對中外交は相互理解對話の強化、協力關係の擴大、共通の秩序形成という4原則をそれぞれ掲げている。

## 나. 하시모토 총리대신 미국콜럼비아대학 강연('97.6.23)

### - 미·일관계 : 21세기의 파트너십

미·일 파트너십은 21세기에 있어서도 양국민의 안정과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평화와 진보의 혜택을 세계에 미치게 할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미·일관계의 3가지 축, 즉 안전보장, 경제, 세계적인 협력에 대해 본인이 그리는 새로운 시대의 미·일 관계의 모습을 기술하고자 한다.

#### 1) 안전보장관계

첫 번째 축은 미·일안보체제이다. 새롭게 말할 필요도 없이, 냉전후에 있어서도 미·일안보체제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불가결하다. 본인은 많은 아시아 정상과 대화를 나눌 때면, 미·일안보체제가 이 지역의 나라나라마다 어떻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낀다. 한편,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일안보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었다. 또한 미·일안보체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온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인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미·일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작년 4월 본인과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은 미·일안보체제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미·일방위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을 살리는 것, 즉 이 선언에 따라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미·일안보체제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일간의 협력체제와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현재,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작업중이며, 이번달 7일에는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미·일안보조약의 기본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한 헌법의 틀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본이 어떻게 책임있는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일동맹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인은 이를 극히 중시하고 있다. 본인은 총리취임이래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다행이 지금까지 양국의 공동작업에 의해 후텐마 비행장을 비롯한 11개 시설·구역의 반환에 대해 합의하였다. 일본국민의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광범한 지지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지만,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한다.(중략)

### 3) 지구차원의 협력

미·일관계의 제3의 축은 지구차원의 협력이다. 예컨대 여러분은 미·일양국이 서태평양지역에서 소아마비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2000년까지 소아마비의 근절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그리고 파라오 등의 산호초 보전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일은 이미 보어나온 지구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많은 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간장 등 여전히 많은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존재는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21세기를 향해, 또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미·중간, 일·중간 수뇌급의 상호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한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이다. 본인은 이러한 계기를 살려 중국의 WTO가입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가능한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주일 후에는 홍콩반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본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홍콩의 계속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항구적 평화달성을 위해 4자회담이 제안되었다. 본인은 본회담의 실현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북한이 조기에 이를 수용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한국과 함께 설립한 KEDO의 활동은 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준비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미·일협력은 아·태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동, 보스니아, 중남미, 아프리카에도 미치고 있다. 이와같이 국제무대 뒤에서 일본이 관여하는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고,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본인은, 전지구적 협력이라고 하는 미·일관계의 3번째 축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미·일협력의 성과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본인은 클린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느꼈다. 우리의 화제는 항상 양국관계를 넘어 세계문제에 미치고 있다.

#### 4) 끝으로

오늘은 미·일관계의 3가지 축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하였지만, 이러한 축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양국국민의 상호이해이다. 오늘날도 미·일간에는 비즈니스 맨, 저널리스트, 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교류와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젊은이들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여러분이 21세기의 파트너임을 책임질 분들이다.

전후에 발족한 「플브라이트·프로그램」로 많은 일본인은 미국에서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올해부터 일본정부는 「플브라이트·기념 프로그램」을 발족시켜, 우선 금년은 500명의 미국교원이 일본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면에서도 맨스필드 대사의 이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따라, 미국의 행정관이 일본의 관청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의 여러분들과 함께, 미·일 동반자 관계를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우리를 위해, 또한 후세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이것을 키워나갈 결의를 다시금 하고자 한다.

## 橋本総理の ユロンビア大学における講演('97.6.23)

日米パートナーシップは、21世紀において、両國民に安定と繁榮の恩恵をもたらすとともに、平和と進歩の恵みを世界中に及ぼすことができる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観点から、本日は、日米關係の3本柱、即ち、安全保障、經濟、グローバルな協力について、私の描く新時代の日米關係の姿を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 ① 安全保障關係

第一の柱は、日米安保体制です。改めて述べるまでもなく、冷戦後においても、日米安保体制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全の維持に不可欠です。私は、多くのアジアの首脳と話す時、日米安保体制がこの地域の國々に如何に安心感を与えているかをしみじみと感じるのです。他方、緊急事態が発生した際、日米安保体制が効果的に機能するののかという問題は常に問われてきました。日米安保体制に大きな試練を与えた沖縄の基地問題は依然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

私は、新時代に對応したより信賴できる日米安保体制を構築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昨年4月、私とクリントン大統領が発表した「日米安保共同宣言」は、日米安保体制の意義を再確認し、新じ時代における日米防衛協力の方向性を示しました。この宣言に命を吹き込むこと、即ち、この宣言に沿った協力を具体化させることこそが新時代に對応した日米安保体制の構築であると考えます。

中でも、緊急時代が生じた際の日米間の協力体制と役割分擔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は最重要課題の一つです。このため、兩國政府は、現在、「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取り組んでおり、今月7日には中間取まとめを公表しました。

この作業は、日米安保條約の枠組みを変更することなく、また憲法の枠内で行うものですが、例えば、日本周邊地域において、日本の平和と安全に重要な影

響を与える事態が生じた際に、日本がいかに責任ある対応をするかは日米同盟の本質に係わることであり、私は極めて重視しております。

私は、総理就任以来、國政の最重要課題の一つとして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幸いこれまでの兩國の共同作業により普天間飛行場をはじめとするりの施設・区域の返還が合意されました。日本國民の日米安保体制に対する幅広い支持にはいささかの揺るぎもありませんが、沖縄の基地問題は、地域住民の理解と協力を得て、日米安保体制の信頼性を高めていくうえで今後とも極めて重要です。引き続き米國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 ② 經濟問題(중략)

## ③ グローバルな協力

日米關係の第3の柱はグローバルな協力です。皆様は、例えば、日米兩國が西太平洋地域でポリオの駆逐に成功し、2000年までにポリオを根絶すべく協力の輪を擴げていること、そしてパラオ等の珊瑚礁保全においても協力していることをご存じでしょうか。このように日米は、既に、より良い地球社會を創造するための協力を積極的に進めているのです。

アジア太平洋地域では、多くの國々が經濟的繁榮を享受する一方、朝鮮半島における緊張など依然として多くの不安定要因が存在します。また、中國の存在感は今後一層大きなものとなるでしょう。21世紀に向けて、この地域の安定と繁榮をいかに確保するかは、兩國の將來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重要な課題です。そして現在、我々は大切な時期を迎えています。

本年から來年にかけて、米中間及び日中間で首腦レベルの相互訪問が豫定されています。これは、中國との建設的な協力關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のまたとない好機です。私は、このモメンタムを活かし、中國のWTO加盟を含めた諸課題について出来るだけ實質的な成果をあげていくことが必要と考えます。また、1

週間後には香港返還という歴史的瞬間を迎えます。私は、自由で開かれた制度の維持を通じた香港の継続的發展を強く期待しています。

朝鮮半島については、永續的な和平達成のための4者會合が提案されています。私は、本會合實現に向けた米國の努力を高く評價するとともに、北朝鮮が早期にこれを受け入れることを強く希望します。また、北朝鮮の核兵器開發問題に對處するため、日米が韓國とともに設立したKEDOの活動は着實に進展しており、北朝鮮において輕水爐建設のための準備工事がまさに始まろうとしています。

日米協力は、アジア太平洋に止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中東、ボスニア、中南米、アフリカにも及んでいるのです。このように國際場裏において日本が關与する領域は大きく擴がっております。

日本は國連安保理の常任理事國となつて、グローバルな問題につき一層積極的に責任を果た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私は、「グローバルな協力」 という日米關係の3本目の柱こそが、21世紀に向けて日米協力の成果を最も發揮できる分野と思うのです。このことを私はクリントン大統領と話す時、特に感じます。我々の話題は、常に二國關係を超えて世界中に及ぶのです。

### おわりに

本日は、日米關係の3つの柱について私の考えを述べましたが、これらの柱をしっかりと支える土臺は、言うまでもなく兩國民間の相互理解です。今日も日米間では、ビジネスマン、ジャーナリスト學者等益々多くの人々が交流と相互理解を深めています。そして、何より、兩國の若い方々の交流が一層活潑になっていること心強く思います。本日は、ご列席の皆様の中に、若い方々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擔い手です。

戦後まもなく發足した「フルブライト・プログラム」は多數の日本人にアメリカで學ぶ機會を与えました。本年度から日本政府は、「フルブライト・メモリアル

・プログラム』を發足させ、まず今年は500人の米國の教員が日本で學ぶ機會を持てるようにしました。行政の世界でさえも、昨年よりマンスフィールド大使の名前で推進されている計劃の下、米國の行政官が日本の官廳で研修を行っています。

最後に、ご列席の皆様とともに、日米パートナーシップの重みを改めてかみしめ、次なる世紀に向けて、我々のため、子供や孫の世代のため、そして世界のため、これを更に育てていく決意を新たにしたいと思います。

## 다. 池田 외무장관, 국회 외교연설('97.1.20)

### 〈국제사회 상호의존 심화와 일본의 외교〉

일본외교의 기본목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있으며, 국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일본은 보다 바람직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주체적인 외교를 전개해 갈 것이다.

### 〈미국 및 그외 지역과의 협력관계 추진〉

미국을 비롯한 주요제국과의 관계강화는 일본외교의 기본이다. 미·일관계는 일본외교의 기축이며,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계이다.

작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미·일 안보체제는 미·일관계의 근간이며 이의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키나와현에서의 미군시설·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합의한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SACO)최종 보고내용을 착실히 실시하면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적극 대처해 가고 있다.

또한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재검토 작업 등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항공 등 남아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WTO 및 APEC에서의 협력이나 Common Agenda를 비롯한 지구규모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추진해 가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현안은 있지만,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

요한 양국관계이므로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양호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가는 것은 양국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금년은 국교정상화 25주년을 맞아 긴밀한 대화와 각종 교류를 통해서 일·중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가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지원 및 중국의 WTO조기가입을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일·중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구일본군이 중국에 유기한 구일본군의 화학무기 문제를 포함하여 일·중간 모든 현안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년 7월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도 홍콩의 번영을 유지하게 하는 '법의 지배'하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모든 제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일·미·중 3개국의 안정적인 관계는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미·중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양국간의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 갈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이번 주말의 김영삼대통령 방일로 이러한 한·일 우호협력관계가 더한층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동향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일·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2차 대전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두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대처해 가고자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계속 지지해 가고자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갈 생각이다.



또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의 취지에 철저히 입각하여 협정이 조기에 체결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중략)

올해는 아세안 창설 30주년이 되며, 연두에 하시모토 총리도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역할을 증진시키고 있는 아세안 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갈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제자유화를 기초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두고 있는 인도 등 서남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도 증진시킬 것이다.

일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주요 양국관계 강화와 병행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지역내의 번영의 확보와 신뢰관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APEC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달성을 위한 개별계획을 착실히 진행시킴과 동시에 그 개선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경제·기술협력 분야의 강화와 민간부문과의 연휴 강화 등을 포함해 APEC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안전보장면에서는 ARF가 이 지역의 신뢰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7월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조치를 착실히 실시하고 그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중략)

### 〈국제적인 노력〉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각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지역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전체가 대처해야만 하는 공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다.

(유엔)

일본은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다.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갈 것이다. 유엔개혁에 대해서는 유엔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안보리, 재정, 경제·사회 분야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숭선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일본은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하에 많은 국가들의 찬성을 얻어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유엔총회 등에서 표명할 것이다.(중략)

#### (대량파괴 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

일본은 핵군축 및 비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하였다. 작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성립은 역사적인 첫발이며, 일본은 조기발효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또한 감축조약협상의 조기개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의 핵비확산조약 제3집토회의를 향한 준비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관계국간의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족한 새로운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를 통해 앞으로도 과도한 이전과 축적의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향해 계속 노력함과 동시에 지뢰의 제거 및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3월에 「대인지뢰에 관한 동경회의」를 개최하였다.(후략)

## 池田外相の國會における演説(97.1.20)

### 〈國際社會の相互依存の深化とわが國の外交〉

わが國の外交の基本目標は、言うまでもなく、わが國の安全と繁榮の確保にあります。國際的な相互依存が深まっている現在、これは國際社會の安定と繁榮なしたは實現できません。わが國としては、そのためのより好ましい國際環境を醸成していくため、これまで以上に主体的な外交を展開してまいります。

### 〈米國その他諸國及び地域との協力關係の推進〉

米國を始めとする主要諸國との關係の強化は、わが國外交の基本であります。日米關係は日本外交の基軸であり、ま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榮の要であるのみならず、世界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關係であります。昨年四月の日米首腦會談で示された方向に沿い、今後とも幅広い分野における協力關係の進展に努めてまいります。

特に、日米安保体制は日米關係の根幹であり、その一層圓滑かつ効果的な運用に努める必要があります。沖縄縣における米軍施設・區域の問題については、先月合意された沖縄縣に関する特別行動委員會(SACO)最終報告の内容を着實に實施しつつ、今後とも最重要課題の一つとして眞剣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また、「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などの作業を精力的に推進いたします。經濟分野でも、航空などの残された問題の解決に向けて引き続き努力いたします。また、WTOやAPECにおける協力やコモン・アジェンダを始めとする地球規模の問題についての協力も一層推進してまいります。

地理的に近く、また歴史的に関わりの深い中國や韓國との關係は、隣國である故に生じる種々の懸案はありますが、いずれもわが國にとり最重要な二國間關係であり、懸案の解決に向け努力しつつ良好な關係を維持・發展させていくことは、お互いの國のみならず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り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中國との間で本年は國交正常化二十五周年にあたり、緊密な對話と様々な交流を通じて日中關係の一層の發展のため發展に努めてまいります。また、中國が國際社會において建設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鑑み、中國の改革・開放政策を引き續き支援し、WTO早期加盟を支持していくと同時に、國際社會の様々な課題への取組において日中間の協力を強化いたします。さらに、舊日本軍が中國に遺棄した化學兵器の問題を含め、日中間の諸懸案の解決に努めてまいります。また、本年七月には香港が中國に返還されますが、香港の繁榮を支える「法の支配」の下での自由で關かれた諸制度が返還後も維持され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なお、アジア太平洋の平和と繁榮により、日米中三ヶ國の安定的な關係は極めて重要であり、こうした観点から、米中關係の進展を歓迎いたします。

韓國との間では、二國間の種々の問題に適切に對處しつつ、良好な關係を推進するとともに、國際社會の中で日韓兩國が協力していく重要性がますます高まっております。私は、先週訪韓し、柳宗夏（ユ・ジョンハ）外務部長官に對し改めてかかる考え方を伝え、意見の一致を見ました。また、今週末の金永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の訪日がこうした日韓友好協力關係を一層發展させることと確信しております。北朝鮮情勢については、今後ともその動向を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が、日朝關係については、第二次世界大戰後の不正常的な關係を正すとともに、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とするとの二つの観点を踏まえ、韓國など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對處いたします。また、米韓兩國が提案した四者會合を引き續き支持してまいります。北朝鮮の核兵器開發問題については、今後とも米國及び韓國と緊密に協力しつつ、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發機構(KEDO)の活動に積極的に取り組む所存です。

また、中國及び韓國との間では、現在、新たな漁業協定を締結すべく協議を行っております。國連海洋法條約の趣旨を十分に踏まえた協定が早期に締結されるよう鋭議努めます。

本年はASEAN創設三十周年にあたり、年頭に橋本總理大臣もこの地域を訪問さ

れたところでもあります。わが國は、アジア太平洋において役割を増しているASEAN諸國を中心として、今後とも東南アジアとの協力関係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さらに、近年の經濟の自由化を基礎に著しい發展を遂げつつあるインドなど、南西アジア諸國との関係も推進いたします。

わが國としては、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主要二國間関係の強化と並行して地域協力を推進し、もって域内の繁榮の確保と信頼関係の向上に努めてまいります。

APECについては、本年のカナダ會合に向けて、自由で開かれた貿易と投資の達成のための個別行動計画を着實に実施するとともに、そのさらなる改善を図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わが國としては、經濟・技術協力分野の強化や民間部門との連携強化などへの取組を含め、APECの更なる發展に貢献してまいります。

安全保障の面では、アセアン地域フォーラム（ARF）がこの地域の信頼醸成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ます。昨年七月の閣僚會合において合意された協力措置を着實に実施し、その活動を發展させるため、わが國としても貢献してまいります。

統合を強めつつある歐州地域は、國際社會において引き続き重要な地位を占めております。わが國は、歐州との對話の枠組みを強化するとともに、具体的な協力を着實に進めてまいります。また、昨年始まったアジア歐州會合（ASEM）については、本年二月にシンガポールで外相會合が、九月にはわが國で經濟閣僚會合などが豫定されており、明年の第二回會合に向けてその發展に貢献いたします。

#### 〈國際的な取組に對する協力〉

以上述べたように、各國との二國間関係を強化し、地域協力を推進すると同時に、國際社會全体として取り組むべき共通の課題の克服に向けた努力にも積極的に協力してまいります。

## (國連)

わが國は、本年より二年間安保理非常任理事國を務めます。選出にあたり國際社會より示された期待にも鑑み、一層積極的な役割を擔ってまいります。國連改革については、國連の機能強化を目指して、安保理、財政、經濟社會の分野を含め全体として均衡のとれた改革を進めるよう、率先して取んでまいります。わが國は、憲法が禁ずる武力の行使は行わないという基本的な考え方の下で、多くの國々の賛同を得て、安保理常任理事國として責任を果たす用意があることにつき、これまでも國連總會等の場において表明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以下、國際社會が直面するいくつかの主要課題とこれに對するわが國の取組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 (大量破壊兵器及び通常兵器の軍縮と不擴散)

わが國は、核軍縮及び不擴散に眞剣に取り組むよう一貫して訴えてまいりました。昨年の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の成立は歴史的な一歩であり、わが國は、その早期發效に向けて努力を續けます。さらに、カットオフ條約交渉の早期開始のために最大限努力いたします。また、二〇〇〇年の核不擴散條約再檢討會議に向けた準備プロセスが圓滑に進展し、關係國間で建設的な議論が行われるよう努めます。

通常兵器に關しては、昨年發足した新たな國際的輸出管理体制を通じて、今後ともその過度の移轉と蓄積の防止に努めます。また、對人地雷の全面禁止に向けた努力を斷續するとともに、地雷の除去や犠牲者に對する支援などについての國際協力を強化するため、本年三月に「對人地雷に關する東京會議」を開催いたします。

## (地域紛争)

地域紛争への對處に關しては、國連平和維持活動や人道的な國際救援活動に引

き續き人的、物的な貢獻を行うとともに、地域紛争の豫防、解決、復興支援のための協力を續けてまいります。難民の急増は、深刻な人道問題であるとともに世界の大きな不安定要因であり、特に、近年、大量の難民が発生している中部アフリカ地域に対しては、國連難民高等弁務官（UNHCR）やアフリカ統一機構（OAU）などの取組を支援していく所存です。

中東和平プロセスは依然樂觀を許しません、國際社會と協力し、各當事者に對し和平プロセスの促進を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ゴラン高原における國連兵力引き離し監視隊（UNDOF）への自衛隊部隊などの派遣の斷續やパレスチナ支援及び多國間協議への參劃などの努力も斷續いたします。まだ、灣岸地域の安定を確保するため、灣岸諸國との對話と協力の擴充に努めてまいります。

舊ユーゴー和平に關しても、これまでの和平努力の成果を一層進展させるため、人道・難民支援及び復舊・復興支援などの分野で適切な貢獻を續けてまいります。

#### （開發）

開發途上國の安定と發展は、國際社會全体の平和と繁榮にとり不可欠であり、政府開發援助は、このためにわが國がなし得る貢獻の中核であります。政府開發援助を通じて途上國の開發問題に取り組むことは、國際社會に大きく依存するわが國自身の利益にも資するものであり、今後とも、その效率的・效果的な実施と一層の充實に努めます。

わが國は、途上國の主体性の重視及び先進國と途上國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中心的な理念とする「新たな開發戰略」を提唱しておりますが、その考え方に基づき、開發の成果を上げるさう努めてまいります。特に、アフリカの安定と開發に關して、明年を目途に「第二回アフリカ開發會議」を、本年その準備會合をわが國で開催いたします。

#### （世界經濟の持続的な發展とわが國の政策努力）

日本經濟の繁榮のためには世界經濟の持続的な發展が不可欠であります。わが

國は、經濟のグローバル化が生み出している機會を積極的に活用すべく、これまで以上の思い切った規制緩和、競争政策の徹底、市場アクセスの改善などの經濟構造改革の努力を行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こうした施策を通じ、世界經濟の活性化にもさらに貢献してまいります。

同時に、經濟のグローバル化の進展に伴って生じつつある新たな諸課題に対応する多角的な貿易・投資の枠組みの整備も重要です。わが國としては、第一回WTO閣僚會議の成果を踏まえ、新たな分野でのルール作りなど多角的貿易体制の一層の強化に取り組むとともに、OECDにおける多數國間投資協定交渉を本年のOECD閣僚理事會までに終結すべく努力し、多角的で公正・透明なルールに立脚した國際經濟システムの強化に引き続き努めます。また、主要先進國首腦會議などの場を活用し、引き続き先進諸國間の政策協調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 （より良い地球社會の實現に向けた課題）

わが國は、より良い地球社會の實現に向け、人口、環境、福祉、食料、エネルギー、原子力安全などの諸課題や、テロ、國際犯罪、麻薬問題など、市民社會への挑戦と言える諸課題の克服に向けた國際協力に積極的に参画してまいります。また、民主化の促進及び人権の擁護にも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てまいります。

特に、環境問題については、本年六月に開催される國連特別總會が所期の成果をあげるよう、協力してまいります。また、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は、本年十二月に京都市において氣候変動枠組條約第三回締約國會合が開催されますが、この會議は二〇〇〇年以降の國際的取組に関する枠組を定める重要な機會であり、その成功に向けて開催國として全力を盡くしてまいります。

また、安定した國際關係に不可欠な國民レベルの相互理解と協力の視野を広げるための努力も斷續いたします。そのため、文化交流の分野においても、二國間にとどまらず、多國間の對話と交流や政府と民間の活動の連携を重視し、文化遺産の保存も積極的に協力いたします。また、海外廣告活動の一層の充實や査証手續の簡素化にも努めてまいります。



の訪日を、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米関係の意義を確認し、以上のような幅広い分野における日米協力を總括する機会として重視しており、今後、米國政府と協力して、大統領訪日を成功させるべく準備を進めて参ります。以上のような考えの下、私は18日より訪米し、クリントン大統領、ゴア副大統領、クリストファー一國務長官、ペリー一國防長官に對し、日米関係を最重視するとの橋本内閣の考え方を傳え、日米関係をさらに發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いて意見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す。

共通の價值觀を有し安全保障上等の利害をともにする韓國との友好協力關係は、兩國のみならず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重要であり、また、アジア太平洋やグローバルな問題にも一層協力して取り組むべく、引き続き關係を強化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北朝鮮情勢については、今後ともその動向を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が、日朝關係については、第二次世界大戰後の日朝間の不正常的な關係を正すとともに、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との二つの觀點を踏まえ、韓國等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對応して参ります。北朝鮮の核兵器開發問題については、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發機構（KEDO）と北朝鮮との間で輕水爐供与のための供給取極が締結されたことを受け、今後とも米國及び韓國と緊密に協力しKEDOに對する積極的な貢獻を行って参ります。

中國との間では、友好・協力關係を維持・發展させ、また、國際社會において共に協力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我が國としては、今後新しい未來指向の日中協力の時代を築いていく考えであり、中國の改革・開放政策を引き続き支援するとともに、様々な分野において協力關係を一層めて参ります。また、舊日本軍が中國に遺棄した化學兵器の問題については、政府として、先般批准した化學兵器禁止條約の精神を踏まえつつ、誠實に對応していく所存であります。

(後略)

## 라. 池田 외무장관, 국회외교연설('96.1.22)

### 〈국제정세인식과 일본외교의 기본방침〉

국제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며 앞길은 불투명하지만 냉전종결후 수년이 지나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조금씩 이긴하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유고, 중동에서는 지역분쟁의 해결을 향해 진전이 보이고 있다. 아테지역에서도,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국제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바람직한 움직임을 확고한 흐름으로 변화시켜, 냉전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하에서 일본외교의 진로를 생각해보면, 본인은 우선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과 번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행동여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향한 창조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 〈주요한 정책과제〉

다음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가는 위에서 중요한 몇가지 정책과제와 일본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지역분쟁의 평화적해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분쟁의 해결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가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가운데에는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으나, 국제사회전체의 틀 구축에 관계된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협력을 해갈 필요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구유고와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화의 기운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하기위해 협력해 가고자 한다.

구유고분쟁에 있어서 일본은 작년 12월 런던평화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당사자에 대해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총액 약20억엔의 난민지원을 비롯하여 평화이행에 협력해갈 자세를 표명하였다. 일본으로서 계속하여 평화이행운영위원회 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갈 것이며, 예방외교의 관점에서 주변국에 대한 지원도 계속 실시해 갈 생각이다.

중동에 있어서는 라빈수상암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기초한 노력이 계속되고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계속 지원해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팔레스타인 평화선거를 위한 국제감시단에서의 참가와 물자제공을 포함하여, 파레스타인 잠정자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것이며, 고란고원에서 유엔병력 분리감시단(UNDOF)에 대한 자위대의 파견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일본으로서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외교노력과 인도·부흥원조 등의 노력과 함께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유엔의 활동에 인적, 재정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공헌을 해갈것이다.

#### (군축·불확산의 추진)

두 번째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군축과 불확산, 재래식무기의 이전억제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 일본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군축에 관한 결의안 중에서 15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며, 특히 4개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실질,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하였다.

핵군축에 관해서는 작년 5월 핵불확산조약 무기연장결정에 따라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위해 모든 핵무기국이 핵군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에서 일본은 공동제안국으로서 제출한 「핵병기의 궁극적 폐기를 위한 군축결의」 및 「핵실험중지요구결의」가 다수국의 지지를 얻어 채택된 것은 이러한 외교노력의 성과의 하나이다. 일본은 모든나라가 핵실험중지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핵

실험을 하지않게 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또한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교섭이 올해 봄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가을에는 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레식 무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공동제안국으로서 제출한 「소화기에 관한 결의」가 유엔에서 채택, 소화기의 과잉축적과 이전방지에 관한 정부전문가 보고서가 제52회 총회에 제출되게 되었다. 또한 작년12월에는 제레식무기 및 범용품·기술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수출관리체제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일본은 앞으로도 제레식무기의 과도한 이전과 축적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중략)

#### 〈국제협조의 추진〉

이러한 제과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국제협조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때 양국간의 협력관계,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유엔이나 WTO를 축으로하는 세계적인 협력을 각각 강화해 갈 뿐아니라 3개의 동심원으로서 상호관계지으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주요 양국관계)

각국과 양호한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외교의 기초일 뿐아니라 세계적인 협력, 지역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양국간 관계에 있어 미일관계는 일본외교의 기축이며, 미일간의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안보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이며, 일미협력관계의 정치적기반을 구성하고 있을 뿐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를위해 일본으로서는 미일안보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에 노력해 갈 것이다. 반면,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시설·구역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각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은 오키나와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가능한한 배려해가고자한다. 그런의미에서 오키나와의 미군시설·구역의 정리

· 통합·축소 및 관련된 제문제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의 목적달성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작년 11월에 설치된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 위원회」에서 1년이내를 목표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하여 노력해 갈 것이다. 일미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미일포괄경제협정의 결정내용을 미일 쌍방이 착실히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미일양국이 지역규모문제에 공동으로 노력해갈 틀인 common agenda의 확대·심화 등에 의해 미일간의 협력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 4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방일하는바, 일본으로서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미일관계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상과 같은 광범한 분야에서의 미일협력을 총괄할 기회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정부와 협력하여 대통령 방일을 성공시키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본인은 18일 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대통령, 고어부통령, 크리스토퍼국부장관, 페리국방장관에 대해 미일관계를 최중시하는 것이 하시모토내각의 기본생각이라는 점을 전하고 미일관계를 보다 발전시켜가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안전보장상 등 이해를 같이하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는 양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바, 아태지역, 세계적인 문제에도 일층 협력해 갈것이며, 계속해서 관계를 강화해갈 생각이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동향을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제2차세계대전후의 북일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2개의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경수로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이 체결된데 따라 앞으로도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협력, KEDO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헌해 갈것이다.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일중협력의 시대를 구축해갈 생각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구일본군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문제에 대해 정부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성실히 대응해 갈 것이다.

## 池田外務大臣外交演説('96.1.22)

### 〈国際情勢認識と日本外交の基本方針〉

国際情勢は依然として流動的であり、その先行きは不透明であります。冷戦終結後数年が経ち、国際社会の努力が、少しずつではありますが成果をあげてきております。舊ユーゴ、中東では地域紛争の解決に向けて注目すべき前進が見られております。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も、北朝鮮の核問題解決に向けた動きがでてきております。国際社会の課題は、こうした好ましい動きを確固とした流れに変え、冷戦後の新しい枠組みを確立していくことでもあります。

このような国際情勢の下で我が国外交の進路を考える時、私は、まず、国家間の相互依存関係が深まる中、我が国の安全と繁栄は、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があってはじめて可能であることを改めて強調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我が国の行動如何が世界の平和と安定に大きな影響を持つことも認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こうした点を踏まえ、我が国が新たな国際秩序の構築に向け創造的役割を果たすべく、全力を傾注する決意であります。

### 〈主要な政策課題〉

次に、新たな国際秩序を構築していく上で重要ないくつかの政策課題と我が国の取り組み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います。

#### (地域紛争の平和的解決)

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確保するためには、地域紛争の解決に努めるとともに未然に防止する努力を行っ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これらの紛争の中には、地理的には日本から遠い地域のものもありますが、国際社会全体の枠組みの構築にかかわるグローバルな問題でもあり、我が国はその解決に積極的に関与し、適切な協力を行っ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その意味で舊ユーゴや中東で生じている平和の気運を一層確かなものとするに協力し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

舊ユーゴー紛争について、我が國は、昨年12月のロンドン和平合意の誠實な履行を當事者に對し強く求めるとともに、總額約20億圓の難民支援をはじめ和平の履行に協力していく姿勢を表明致しました。我が國としては、引き続き和平履行運営委員會の一員として、國際社會の努力に積極的に参畫していくとともに、豫防外交の観点から、周辺國に對する支援も引き続き実施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中東においては、ラビン首相の暗殺という悲劇的な事件にも抱わらず、當事者の平和への確固たる意志に基づく努力が續けられており、國際社會は、これを引き続き支援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我が國は、パレスチナ評議會選舉のための國際監視團への参加や物資供与を含め、引き続きパレスチナ暫定自治に對する支援に積極的に取り組むとともに、ゴラン高原における國連兵力引き離し監視隊(UNDOF)に對する自衛隊部隊等の派遣を行います。

我が國としては、地域紛争の解決のため、外交努力や人道・復興援助等の協力とともに、平和維持活動を含む國連の活動に人的な面や財政面で引き続き積極的に貢献して参ります。

#### (軍縮・不擴散の一層の推進)

第二に、核兵器をはじめとする大量破壊兵器の軍縮と不擴散、通常兵器の移轉抑制についての取組が重要であります。我が國は昨年の國連總會において、軍縮に關する決議案の内、十五の決議案の共同提案國となりましたが、特に、四本の決議案については實質的に主導して作成するなど、積極的にイニシアテイヴを發揮しております。

核軍縮に關しては、昨年5月の核不擴散條約無期限延長の決定を受け、我が國は、唯一の被爆國として、核兵器の究極的な廢絶に向けて、全ての核兵器國が核軍縮に眞剣に取り組むよう訴えて参りました。國連で、我が國が共同提案國として提出した「核兵器の究極的廢絶に向けた核軍縮決意」及び「核實驗の停止を求める決議」が多數の國の支持を得て採擇されたことは、こうした外交努力の成果の



一つであります。我が國は、すべての國がこの核実験停止決議に示された國際社會の意思を眞摯に受け止め、核実験を行わないよう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きます。また、全面核実験禁止條約(CTBT)交渉が本年の春に實質的に妥結され、秋には署名されるよう最大限の努力を行って参ります。

通常兵器に関しては、同じく我が國が共同提案國として提出した「小火器に関する決議」が國連で採擇され、小火器の過剰な蓄積と移轉の防止に関する政府専門家による報告書が第52回總會に提出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また、昨年12月には通常兵器及び関連汎用品・技術についての新たな國際的輸出管理体制の設立が決定されました。我が國は今後とも通常兵器の過度の移轉と蓄積の防止のため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参ります。

#### (世界經濟の持続的発展の確保)

第三に、我が國は世界經濟の持続的発展の確保に主要な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經濟の相互依存の深化に伴い、我が國の經濟の動向や政策は、各國の經濟と強い相關關係に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我が國として世界經濟の安定的運営に貢献するためにも、思い切った規制緩和をはじめとした經濟の更なる活性化を図るとともに、國際社會と調和のとれた經濟社會の實現を引き続き目指して参ります。

世界經濟の持続的発展を確保するために、世界貿易機關(WTO)の發足を踏まえ、多角的自由貿易体制の強化にも一層の努力を拂う所存であります。WTOにおいては、本年12月に豫定されているシンガポールでの第1回の閣僚會議に向け、ウルグアイ・ラウンド合意の着實な實施、サービス分野での繼續交渉の期限内の妥結、いわゆる「ウルグアイ・ラウンド後の新しい課題」への取組、紛争解決手續の強化といった面で、實質的成果を達成すべく積極的役割を果たす所存であります。また、昨年秋以降、經濟協力開發機構(OECD)において多數國間投資協定交渉が開始されましたが、その成功に向けて積極的に取り組んで参ります。

#### (開発途上国及び移行期にある諸国との協力)

第四に、開発問題への取組であります。アフリカ諸国をはじめ多くの開発途上国は、依然として貧困や飢餓に悩み、アジア太平洋や中南米の諸国も経済成長過程に伴う新たな課題を抱えております。また、舊ソ連諸国や中東欧諸国は市場経済への移行の途上で様々な困難に直面しております。これらの諸国の個々の状況に応じて、その経済的・社会的発展を促し、民主的制度作りに協力し、国際社会に組み込んでいくことは、国際秩序の安定を導くものであります。その一方で、多くの援助国においては、いわゆる「援助疲れ」が見られております。こうした状況に鑑み、我が国は、新たに長期的な開発戦略を策定する必要性を強調し、国連における「開発のための課題」に関する議論に積極的に貢献する姿勢を明らかにして参りました。我が国としては、今後とも政府開発援助大綱に基づき、政府開発援助の効果的・効率的な実施及びその拡充に努めて参る所存であります。同時に、開発戦略が早期にまとまるよう、積極的に知恵を出し、議論を促進して参りたいと考えます。

#### (地域規模問題の解決)

第五に、環境、人口、人権、難民、麻薬、テロなどの問題は、国際社会が一致して取り組むべき地球規模の問題であり、我が国の国際貢献の最も重要な柱の一つであります。今後とも我が国の知識や経験を生かし、国際社会と協力して問題解決に取り組んで参ります。我が国は、第四回世界女性会議において諸国の関心の高かった女性に対する暴力の問題に関する決議案を、昨年12月、国連総会に提出し採択されました。

また、我が国は、海洋国家として、新たな海洋の法的秩序の確立に積極的に貢献し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国連海洋法条約は海洋の法的秩序に関し包括的に定めておりますが、政府としては、この条約を早期に締結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次国会に提出することを目指して準備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 〈国際協調の推進〉

これらの諸課題に取り組んで行くにあたっては、国際協調の強化が不可欠であります。その際、二國間の協力関係、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協力、國連やWTOを軸とするグローバルな協力を、それぞれ強化していくとともに、三つの同心圓として相互に関連づけながら、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 （主要二國間関係）

各國と良好な二國間関係を築き上げていくことは、我が國外交の基礎であるとともにグローバルな協力、地域協力を進める上でも重要であります。

二國間関係の中で日米関係は、日本外交の基軸であり、日米間の幅広い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を引き続き強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特に日米安保体制は、我が國の安全保障政策の主要な柱の一つであり、日米協力関係の政治的基盤をなしているのみならず、アジア太平洋の平和と繁榮を維持する上で重要であります。このため我が國としては、日米安保体制を堅持するとともに、引き続きその圓滑かつ効果的運用に努めて参ります。他方、沖縄県においては、米軍の施設・區域が集中していることから種々の問題が生じております。私は沖縄県の方々のこれまでの御苦に思いを致しながら、関係者の気持ちにも出来るだけ配慮していく考えです。その意味で、沖縄における米軍施設・區域の整理・統合・縮小および關聯する諸問題については、日米安保條約の目的達成との調和を図りつつ、昨年11月設置された「沖縄における施設及び區域に關する特別行動委員會」において一年以内を目途に目に見える具体的な成果を上げるよう米側と協力して努力して参る所存であります。日米經濟關係については、まず、日米包括經濟協議の下での決着内容を日米雙方が着實に實施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同時に、日米兩國が地域規模問題へ共同して取り組む枠組みであるコモン・アジェンダの擴大・深化を図ることなどにより、日米間の協力を推進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本年4月にはクリントン大統領が訪日されますが、我が國としては、こ

の訪日を、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米関係の意義を確認し、以上のような幅広い分野における日米協力を總括する機会として重視しており、今後、米國政府と協力して、大統領訪日を成功させるべく準備を進めて参ります。以上のような考えの下、私は18日より訪米し、クリントン大統領、ゴア副大統領、クリストファー・國務長官、ペリー國防長官に對し、日米関係を最重視するとの橋本内閣の考え方を伝え、日米関係をさらに發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いて意見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す。

共通の價值觀を有し安全保障上等の利害をともにする韓國との友好協力關係は、兩國のみならず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重要であり、また、アジア太平洋やグローバルな問題にも一層協力して取り組むべく、引き続き關係を強化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北朝鮮情勢については、今後ともその動向を注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が、日朝關係については、第二次世界大戰後の日朝間の不正常的な關係を正すとともに、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との二つの觀點を踏まえ、韓國等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對応して参ります。北朝鮮の核兵器開發問題については、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發機構（KEDO）と北朝鮮との間で輕水爐供与のための供給取極が締結されたことを受け、今後とも米國及び韓國と緊密に協力しKEDOに對する積極的な貢獻を行って参ります。

中國との間では、友好・協力關係を維持・發展させ、また、國際社會において共に協力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我が國としては、今後新しい未來指向の日中協力の時代を築いていく考えであり、中國の改革・開放政策を引き続き支援するとともに、様々な分野において協力關係を一層めて参ります。また、舊日本軍が中國に遺棄した化學兵器の問題については、政府として、先般批准した化學兵器禁止條約の精神を踏まえつつ、誠實に對応していく所存であります。

(後略)

## 마. 하시모토수상, 국회소신표명연설('96.11.29)

많은 나라가 민주화와 경제개방을 기초로한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본인은 이러한 흐름을 보다 확고히 하여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등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갈 것이다.

미·일관계는 우리나라 외교의 기축이며, 또한 정치·경제·지구규모의 과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요체이다. 특히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바, "일·미방위협력지침"의 재검토 등을 위해 더한층 충실히 노력해 갈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시설·구역의 안정적인 사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그 중의 약 25%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시설·구역의 정리·통합·축소와 관련, 미·일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작업을 성공리에 종결시켜,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 등 그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이다.

나아가 그 문제는 내각의 가장 중요과제 중의 하나로서 일·미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지가 있는 시·정·촌을 포함, 오키나와가 지역경제로서 자립하여 고용이 확보되고, 현민생활이 향상되어 일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정비되도록 오키나와현과 함께 오키나와 진흥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내각차원에서 이를 추진해 갈 것이다.

미·일관계와 함께 일본이 속한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이 바람직한 형태로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ARF·APEC 등 지역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다.

특히 APEC에 있어서는 금번 필리핀 회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위한 개별행동 계획이 매듭지어져, 비전의 단계로부터 행동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다. 또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와 보조를 맞추어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해 간다는 것, 민간활동과 연계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것 등에 합의한 것도 매우 유의하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상호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큰 과제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11.24 일·중 정상회담시 양국관계가 양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서는 세계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위에서 일·중관계의 일층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에 일치하였다. 일·중 양국민이 내년 국교정상화 25주년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금년 가을에는 구주제국을 중심으로 많은 외빈들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금년 3월에는 ASEM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등 아시아와 유럽과의 관계도 새로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3극을 구성하는 유럽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심화에 노력할 것이다.

지역분쟁, 군비관리·군축, 인구, 개발, 환경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공헌 및 정부개발원조를 실시하는 등, 해결을 향해 주체적으로 공헌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발판으로 유엔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일층 공헌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유엔개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문제는 유엔개혁의 진척상황 및 아시아 지역의 나라를 비롯,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적 이해를 토대로 대처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한 국가들과 함께 조약의 조기발효에 노력, 조약 및 관계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발전은 자유롭고 차별없는 무역과 투자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일본이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분야이다.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WTO 각료회의의 성공에 공헌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다각적인 틀의 유지,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이다.

본인은 일본의 기술 및 경험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제안, 그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다. 리용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세계복지구상”은 상호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인류복지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의 구체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사회보장담당 각료회의”를 내주 오키나와에서 개최할 것이다.

## 橋本総理所信表明演説(’96.11.29)

### (世界の平和と繁榮のための積極的外交)

多くの國が民主化と經濟開放を基礎とした國づくりを進めている今日、私は、この流れを一層確固たるものとし、國際社會が平和と繁榮を成す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自由、民主主義、市場經濟体制など同じ價値や理念を共有する諸國とともに積極的な外交を展開してまいります。

日米關係はわが國外交の基軸であり、また、政治、經濟、地球規模の課題など幅広い分野における協力關係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榮の要であります。なかでも日米安全保障体制は、わが國の安全にとって必要不可欠であるとともに、この地球の平和と安定に大きな意義をもっており、「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など、その一層の充實に努めます。日米安保條約の目的の達成するためには、美軍の施設、區域の安定的な使用を確保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その約25%が集中している沖縄における施設・區域の整理・統合・縮小に關しては、日米特別行動委員會(SACO)の作業を成功裡に終結させ、普天間飛行場の返還などその合意内容を實現するために最大限努力してまいります。

さらに、この問題については、内容の最重要課題の一つとして引き続き日米間で協議を行ってまいります。

また、基地所在市町村を含む沖縄が地域經濟として自立し、雇用が確保され、縣民生活が向上するよう、そしてわが國の發展に寄与する地域として整備されるよう、沖縄縣とともに沖縄振興を眞剣に検討し、内閣を舉げてこれを推進します。

日米關係と並び、わが國が\*するアジアの諸國との關係も極めて重要です。政治の安定と經濟の發展が好ましい形で循環している狀況が一層發展するよう、アジア諸國との友好協力關係の強化に努めるとともに、ASEAN地域フォーラム、APECなどの地域的枠組みに積極的に貢獻します。



特にAPECについては、今回のフィリピン會合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貿易と投資のための個別行動計画が取りまとめられ、ビジョンの段階から行動の段階に移行できたことは大きな成果でした。また、共通の未来のために経済・技術協力を貿易・投資の自由化・円滑化と並ぶ車の両輪として推進していくこと、民間活動との連携によるビジネスに役立つ成果をあげるよう行動することに合意できたことも極めて有意義であったと考えます。

中國はわが國の隣國であり、相互信賴に基づく関係を強化することはわが國外交の大きな課題であります。

中國との関係では、24日の日中首脳會談の際に、日中関係は、兩國はもとより、アジア太平洋、さらには世界全体の平和と繁榮のために重要であり、この共に努力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日中兩國民が明年の國交正常化25周年を心から祝福できるよう力を盡くします。

また、朝鮮半島においては韓國との関係を基本としており、その関係を一層強化するとともに、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向け、引き続き積極的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この秋には、歐州諸國を中心に多くの賓客がわが國を訪問されました。本年3月にはアジア歐州會合が初めて開催されるなど、アジアと歐州との関係も新しい展開を遂げております。世界の3極を構成する歐州諸國との友好協力関係の深化に努めます。

地域紛争、軍備管理・軍縮、人口、開発、環境など國際社會が抱える問題に關しては、國連平和維持活動への貢獻や政府開發援助の實施を含め、解決に向けて主体的に貢獻します。また、わが國は、明年1月から安保理常任理事國となることを踏まえ、國連がこれらの問題の解決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けるよう一層の貢獻を行うとともに、全体として均衡のとれた國連改革の實現に努めます。

安保理常任理事國入りの問題については、國連改革の進捗状況やアジア近隣諸

國をはじめ国際社会の支持と一層の国民的理解を踏えて対処します。わが國が目標とする核兵器のない世界を實現する上で、包括的核実験禁止條約が採擇され、わが國を含む多くの國が署名したことは歴史的な一歩です。條約に署名した諸國とともに條約の早期發效に努力し、條約及び關係法案を早期に國會に提出いたします。

世界經濟の發展は、自由で無差別な貿易と投資に多くを依存しております。これを確保することは資源を持たないわが國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政策であるとともに、わが國が積極的なリーダーシップを發揮することができる分野です。來月シンガポールで開催される第1回WTO閣僚會議の成功に貢獻するなどこの分野における多角的枠組みの維持、強化に向けて最大限努力してまいります。

私は、わが國の技術や經驗が世界に貢獻できる分野では積極的に提案し、その實現に努力します。リヨン・サミットで提案した「世界福祉構想」は、お互いの知識と經驗を分かち合い、持続可能な社會保障制度を確立することが、人類の福祉の向上につなが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あり、その具体化のために「東アジア社會保障擔當閣僚會議」を來周沖繩で開催します。

### 3. 언론 기고문

## 가. 伊豆見元 시즈오카 현립대학교수, 世界週報('97 신춘특대호)

### 남북한의 대립 고착화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의 한국침투 사건발생 시 남북의 당국자가 합의한 기구를 통해 협의·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시종 대립함으로써 한반도가 아직 「準戰時」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깊게 해주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일촉즉발 분위기가 대규모 군사충돌로 발전되지 않은 것은 최악의 사태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한반도에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회피 메커니즘」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40년 이상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간에 체결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관해서 한국과의 협정체결을 기피하면서 미국만을 교섭상대로 하는데 금번 잠수함 침투사건을 보아도 금후 평양의 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도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북한이 한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96.4 제안한 「4자회담」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4자회담」 수락여부를 공식 표명치 않고 있으나 동 회담 수락이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이끌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은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한·미양국의 강경자세로 사전 식량지원없

이 「4자회담」 관련 설명회참석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정도까지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한다 해도 그것이 직접 남북대화 재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자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단순히 4자회담 지속만을 노릴 경우에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격화에 대비한 방책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바 우선 고려할 것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면적 또는 한정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재발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므로 일본도 당사자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선행조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 북한에 일정량의 식량지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바 이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 안보상 견지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즉 북한을 기아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단 중의 하나로 식량지원책을 유효한 수단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대북한 식량지원을 제기하기전 우선 한국을 설득하여 한국이 포함된 다각적인 식량지원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반도내 군사충동 제발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북 식량지원시 전제조건으로 첫째 북한이 식량부족 상황에 대해 투

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현재 어느정도 식량이 부족하고 그 중 몇 퍼센트를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뢰할 것인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된 식량을 어떤 형태로 일반국민에 배급할 것인가. 만일 일본이 식량원조를 한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배급경로 등을 일본에 상세히 보여줄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로 일본의 식량지원 규모는 북한이 농업방식의 실패를 인정, 농업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까지는 식량부족분의 전부가 아닌 일정규모에 그쳐야 하는 점과 전술한 조건을 북한이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일본은 식량지원을 중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 점진적 관계정상화 노력이 긴요

이러한 조건부 대북지원은 북한군부의 입지강화와 김정일체제의 연명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역으로 북한이 동 조건부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북한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으로서는 쌀지원을 단념하고 북한이 모험행위로 나갈 위험성에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또한 일본이 이 정도의 각오하에 대북 식량지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한국측이 반대를 표명해도 식량지원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일 3국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 진전이 미·북, 일·북간 관계개선에 우선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 남북대화를 촉진키 위해 오히려 미·북, 미·북관계를 우선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미·북, 일·북간 관계개선이 곧바로 남북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적이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이 미·일 양국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식량지원 문제를 비롯 미·북, 일·북관계 진전이 적은 성과라도 거둔다면 그만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동 지렛대를 행사하여 북한을 남북대화로 인도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 체계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伊豆見元，世界週報('97新春 特大號)

**危機回復のメカニズムは定着している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朝鮮)の潜水艦が韓国に潜入し、その後、上陸して逃亡を図る北朝鮮の搭乗員と彼ら捕えようとする韓国軍との間で銃撃戦が展開された事件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がいかに貧弱な基盤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かを、今さらながら強く知らしめることになった。

われわれの記憶から次第に薄れつつあるが、實は南北朝鮮の間には、1991年に調印され92年に発効した「南北間の和解と不可侵および交流協力に関する合意書」(南北基本合意書)という取り決めが存在する。その附屬合意書によれば、今回のような際には、南北雙方の「軍事當局者が合意する機構を通じて協議解決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うした約束事は、今回全く守られなかった。むしろ、韓国と北朝鮮は、「南北基本合意書」の存在を頭から無視するかのようになり、もっぱら激烈な非難攻撃の相互応酬に終結してきたのである。

過去二カ月半にも及ぶ南北間のやり取りは、朝鮮半島が依然として「準戦時下」にあることを改めて印象付けたが、それにしても、一觸即発の霧圍氣すら漂わせた過剰とも言えるレトリックの応酬ぶりを見ていると、今回の事件が大規模な軍事的衝突へと発展しなかったことが不思議に思えるほどだ。もちろん、これまでも、朝鮮半島は戦争再発の危機にまで近づいた危険を、それこそぎりぎりのところで幾度となく替り抜けてきた。そうした過去の経緯を振り返ると、最悪の事態に至る一歩手前で危険を回避するメカニズムが、即ち朝鮮半島には根を下ろしてい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よう。

しかし、いかに「危機管理のメカニズム」が稼動しているにせよ、それだけで



は朝鮮半島に安定的でかつ恒久的な平和を保障することはできない。40年以上にわたり、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切り替えられるず、朝鮮戦争に完全な終止符をいまだ打ち得ないままにあることは、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の制度化が、いかに容易ならざる作業であるかを十分に物語っている。

もとより、事態を困難なものとしている最大理由は、北朝鮮が恒久的平和を制度化するための交渉相手を韓国ではなくアメリカに求めている点にある。筋論から言えば、朝鮮半島での平和協定は南北朝鮮間で締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こそが、当事者としての韓国と北朝鮮の責任でもあろう。「南北基本合意書」にも、「南と北は現在の休戦状態を平和状態に轉換するために適切な対策を講究する」と講われている。だが北朝鮮は、一貫して韓国との間で平和協定を結ぶことを忌避してきた。今回の潜水艦潜入事件を見ている、その点に関して今後ピョンヤンの姿勢に大きな変化が生じる可能性は認められない。

### 朝鮮半島の平和は日本も「当事者」

そうだとするならば、それを前提に、われわれは当面の対策を講じるしかないだろう。その点で、昨年4月に米韓兩國が提案した南北朝鮮と米中兩國による「4者協議」は、北朝鮮が韓国との平和協定締結に後ろ向きな姿勢をとっている状況下では、朝鮮半島の恒久的平和を目指す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えるものだと考えられる。もちろん、今のところ、北朝鮮は「4者協議」に對して、まだ「受諾する」とも「拒否する」とも言っておらず、公式の態度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だが筆者は、北朝鮮が最終的には「4者協議」を受諾すると見ている。それ以外に、國際社會から十分な食糧援助を引き出す方法がピョンヤンにはないからだ。

これまで、北朝鮮は「4者協議」への態度をハッキリさせる前に、米韓側からの食糧援助が行われることを強く求めてきた。しかし、そうした要求は、韓国はもとよりアメリカの受け入れるところともなっていない。北朝鮮も、ようやく米

韓兩國の「壁の厚さ」に気がついたようであり、潜水艦潜入事件が発覚してからは、事前に食糧支援を得られなくとも「4者協議」に関する米韓兩國のブリーフィング・セッションを受け入れるところまで、態度を軟化させつつある。

もちろん、たとえピョンヤンが「4者協議」開催に応じることになったにせよ、それが直ちに南北對話の再開に結びつくとは、期待しない方がよいだろう。また、北朝鮮が韓国との間に平和協定を結ぶ方向に、大きく姿勢を変えてくるとも思えない。北朝鮮は、特に成果を上げることなく、ただ単に4者協議が持続することだけを目的として臨んでくる可能性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

だが、そうであったにせよ、仮に北朝鮮がそのような方向に歩みを進めてきたならば、われわれは、一方で朝鮮半島における軍事的緊張の激化に対応する方策を怠りなく準備しつつも、對北朝鮮支援について積極的な考慮を加える必要があろう。その際、まずもって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ことは、ピョンヤンが韓国に對する全面的あるいは限定的攻撃を加えないよう、それを未然に防止することである。朝鮮戦争の再発は、韓国に悲劇をもたらすだけでなく日本をはじめとする周辺大國にも非常に深刻な打撃と損害を与えることになる。

従って、日本もまた、朝鮮半島における戦闘の防止に関しては当事者の一人であると言ってよい。日本は、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得る資格を有していることを前提に、この問題に取組む必要がある。

### **北への食糧支援を實行する條件**

戦争の危険性を減少させるための具体的な方策としては、当面のところ、北朝鮮にある一定程度の食糧支援を行うことが、まず第一に検討されるべきだ。もちろん、それは「人道的観点」のわくを超えて、「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考慮され

る食糧支援である。北朝鮮を飢餓状態に追い込むことは、たとえいかに小さな確率であれ、韓国への軍事力行使の可能性を高めることにつながりかねない。われわれは、そうした危険性を回避すべく、あらゆる手段を講じる必要があるし、その点で食糧支援は有効な手段となり得るであろう。

もっとも、日本が對北朝鮮食糧支援を提起しても、恐らく、韓国はそれに対して消極的な態度をとるものと豫想される。そうだとするならば、まず日本は韓国の説得に努め、韓国も含めた形の多角的な北朝鮮への食糧支援策の構築を追求すべきだと思われる。北朝鮮に對處する際、韓国との協力が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は、今さら斷るまでもない。韓国と共同で食糧支援に当たることは、最も望ましい形の政策になるはずだ。

しかし、仮にそうした試みが功を奏さず、韓国の姿勢が極めてネガティブであり続ける場合には、日本が率先して北朝鮮への食糧支援に踏み切ることを検討すべきであろう。先にも述べたように、朝鮮半島における軍事衝突再發の防止は、日本にとっても最優先課題の一つと位置づけられるからである。ただし、食糧支援を実施する際には、以下の事柄を前提とする旨を、ピョンヤンに對して事前に明確に示しておく必要がある。

(1) 北朝鮮は、自國の食糧不足状況について「透明性」を確立する。つまり、次のような点を北朝鮮は明らか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①現在どれだけ食糧が實際に不足しており、そのうちの何割を國際社會の支援に頼ろうとしているか、②不足分を補うべく、北朝鮮はいかなる努力をしているのか、③國際社會から受け取った食糧を、どのような形で一般國民に給付しているのか、④仮に今後、日本から食糧支援を得ることになった際、一般國民への給付経路を日本に細かく「モニター」させる用意があるのか否かと いった点である。

(2) 日本の食糧支援は、現在、北朝鮮が必要とする不足分を、全部ではなく

ある程度充足するにとどまる。それ以上の規模の食糧援助は、すくなくともピョンヤンがこれまでの農業方式の失敗を認め、農業改革に乗り出すまでは、検討にすらならない。

(3) 前述の二つの条件を北朝鮮が拒否するのであれば、日本は食糧支援が実行に移された後、北朝鮮がそうした行為に打って出る場合には、その時点で日本は食糧支援を中止する。

### 限定的改善でも強力なテコに

以上のような条件付きの對北朝鮮支援は、一部に憂慮されている「北朝鮮國民には何らのプラスもなく、ただただ軍部の強化や金正日体制の延命に結びつくだけ」という懸念を沈静化する効果ももたらすであろう。もちろん、逆の観点からすれば、そうした条件付きの支援は北朝鮮にとって受け入れ難いものとなる可能性がある。だが、北朝鮮が条件を受け入れられなければ、われわれは支援を断念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ピョンヤンが冒險的行動に打って出でくる危険性に改めて向き合うことになるしかない。そこまでの覚悟を決めた上で北朝鮮への食糧支援を考慮することになる以上、韓国側がたとえ反対しても、日本は食糧支援を實行すべきだと筆者は考えている。

ところで今、日米韓三國がとっている基本的立場は、南北關係の進展が米朝間の關係改善に優先するか、あるいは悪くとも同時並行的に進む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ものである。しかし、当面のところ北朝鮮が南北對話の再開に應ず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見なさざるを得ない。そうだとするならば、南北對話を促すために、むしろまず米朝關係や日朝關係を優先させて動かしていこうとする方法が、眞剣に検討されるべき時期が到來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もとより、その際、米朝間の關係改善が直ちに正常化へと結びつくことは全く

想定されない。いわば「限定的」で「漸進的」な関係改善が、日米兩國の目指すものとなる。だが、たとえその程度のものであっても、食糧支援に加えて米朝関係や日朝関係が進展することは、それだけ北朝鮮の国際社会に対する依存度を増加させることにつながるはずだ。つまり、われわれはピョンヤンに対して、強力な「レバレッジ」を持つことになる。そのレバレッジを行使して北朝鮮を南北対話へと導くことの方が、現時点ではより現実的なアプローチであると思われる。北朝鮮が「4者協議」開催に応じてくるのであれば、日本としても、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再開に前向きに取り組むべきであろう。

## 나. 加藤清隆 세계주보 특파원, 세계주보('97.6.17)

미국은 냉전이후 핵전쟁의 공포가 줄어들면서 한반도, 인도지방, 독일을 잇는 라인에 배치되어 있던 전방전개병력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걸프지역이나 보스니아 등 지역내 분쟁 발발과 아시아 지역 내 북한 핵의혹 및 중국의 군확 등이 계속됨에 따라 아시아와 걸프지역에 미군의 주력부대를 중점 배치하는 태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89년 이후부터 단계적인 병력 재검토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① 90.4 아태전략보고서(EASI-I)에서 병력의 단계적 삭감을 결정하고 ② 93.9 Bottom up Review(BUR)에서 총병력을 89년의 3/4으로 삭감키로 한 데 이어 ③ 95.2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에서 아시아 주둔군 10만명 유지를 천명했으며 ④ 96.4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는 아시아 10만병력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번에 발표된 QDR에 의하면 구주와 아시아의 각 10만 전방전개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 145만명의 병력을 2003년 142만명까지 일단 삭감한 후 최종적으로는 136만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국방예산 대폭삭감에 따라 최저 2개소 이상의 기지폐쇄, 예비역(29%) 및 국방부 관계직원(42%) 감축, 장비비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장래 주요 전략의 하나로서 탄도 미사일 방위(BMD)개발예산을 대폭 증액, 군비의 하이테크화를 진행하는 등 「21세기 미국방위」의 모습을 제시했다.

### 유사주둔론이 확대될 가능성

QDR에서는 아시아 지역내 10만명의 미군병력 주둔 이유에 대해 “아태지역의 안정화 요인으로서 계속 개입함으로써 역내 불안정 요인인 군확경쟁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억지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오끼나와 해병대는 유지한다”(「크루락」미 해병대사령관)는 현장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안보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위원회(NDP)는 구주와 아시아내 각 10만병력 주둔 유지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향후 해외기지 의존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그 이유로서 ① 미군의 해외 시설이용이 주둔국 사정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있고 ② 해외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도 병력 투입이 가능하며 ③ 미사일 기술이나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따라 미군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점 등을 들었다.

또한 NDP의 일원인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도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다면 병력 삭감도 가능”하다면서 장래 아시아 10만명 주둔체제가 변경이 가능함을 최근 강조하면서 “자위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가 관건으로서 일본측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어느정도까지 협조하는가가 미군병력 삭감에 연관된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삭감에 관해 미·일 양국의 전문가간에는 당면 삭감은 없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나 최근 미국내 국방문제에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건부 삭감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주일 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10만 병력 유지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 부르크스 연구소의 「모치즈키」 연구원 등은 아시아내 10만명의 미군 병력 주둔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관여정책에 따른 「정치적 메시지」에 의한 것이라 보고 현재 약 1만 7,000명의 오키나와 주둔해병대가 3,000-5,000명을 남기고 대부분 미본토로 철수한다 해도 한반도 유사시 긴급 전개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 조건으로서 ① 사세보기지에 배치되는 상륙함을 현 3척에서 6척으로 증가, ② 1만명분의 장비 사전집적, ③ 해병대 장비 사전 집적선의 일본모항화 등을 들었다. 이전에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던 이러한 유사주둔론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 **일본측에 BMD개발 공동연구 요청**

QDR에서 밝힌 주요내용 중 하나는 장비의 하이테크화로 특히 15-20년후를 겨냥한 「본토 미사일방위」(NMD)의 연구개발비로서 향후 5년간 20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측에 대해 「탄도미사일 방위」(BMD)의 공동연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방계획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작업과 함께 일본의 향후 방위태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일본유사시 대응으로서 ① 분쟁지에 인원 및 보급품 수송 ② 일본영해 및 공해에서의 수색과 구난 등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중에는 기뢰소해나 공해상에서의 무기, 연료, 탄약의 보급 등 헌법해석상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항목이 다수 있으며 이들 항목은 미·일 양국간 조정이라기 보다는 일 외무·방위 양 성청과 내각법제국 등 일 국내 의견조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같은 의미로 볼 때 일본이 미군에만 의지해왔던 일본주변안보에 관해서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加藤清隆 世界週報('97.6.17)

### 兵力の量を削減

### ハイテク化推進

米國は1989年の冷戦體制の終焉を受け、①90年4月にアジア太平洋の戦略的わくぐみ(EASI-1)で兵力の段階的削減、②93年9月のバトムアップレビューで總兵力を89年の3/4に削減、③95年2月の東アジア戦略報告でアジア10万人の兵力維持、④96年4月の日米安保共同宣言でアジア10万人を確認---と段階的な見直しを行ってきた。

冷戦期は共産圏封じ込め政策によって、朝鮮半島、インドシナ、ドイツを結ぶラインに前方展開兵力が配置されていたが、冷戦崩壊に伴い核戦争の恐怖が薄らぎこのラインを下げることは可能になった。しかし逆に灣岸地域やボスニアなどでの地域紛争の発生を招き、アジアではひそかに核爆弾製造を試みてい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朝鮮)や中國の軍擴もあり、アジアと灣岸地域を主眼に米軍の主力部隊を重點配置する態勢に変更されている。

今回のQDRは歐洲とアジアの10万人の前方展開兵力を維持するとともに、145万人の現行兵力を2003年に142万人までいったん削減、その後さらに6万人減らし、1365万人にする計画を示めている。また國防豫算の大幅削減に伴って、最低二カ所以上の基地閉鎖、豫備役29%減、裝備費カットなどで対応する一方で、將來の戦略の柱の一つとして彈道ミサイル防衛開發に伴う豫算を大幅に増額、軍備のハイテク化を進めるという「21世紀の米國防衛」の姿を追求したものとなった。

### “有事駐屯論”が勢いを増す可能性も

こうした情勢認識からQDRではアジアでの10万人兵力維持の理由について「ア

ジア太平洋地域の安定化要因として関与を継続し、地域の不安定要因となる軍拡競争を沮止し、朝鮮半島における抑止力となる」と説明。結果的に「朝鮮半島が統一されても沖縄海兵隊は維持する」との現場の主張が全面的に受け入れる形になったと言えよう。

しかし、アーミテージ元国防次官補らコーエン国防長官から任命された安全保障専門家で構成する国防委員会(NDP)はこのほど、海外の米軍施設は適性国家の攻撃目標になりかねないことなどを理由に、将来は海外基地への依存を減らすよう長官に勧告した。同委員会は欧州とアジアで各10万人を維持しながらも「米軍は前方基地を長期にわたり使用できると想定できない」と指摘。その理由として、①米軍の施設利用が受け入れ国のさまざまな事情で拒否される可能性がある、②海外施設が十分でない地域に兵力を投入することも得る、③ミサイル技術や大量破壊兵器の拡散により、地域的な無法国家ですら米軍施設への攻撃可能性が高まった-などを挙げている。

また、アーミテージ氏自身もインタビューなどに答え「安保をめぐる環境が変われば、兵力の削減もその逆もあり得る」と、将来、アジアでの10万人態勢は変更があり得ることを繰り返し強調している。同氏はその際のカギとして「自衛隊がどのような役割を擔うかだ」と強調。現在、日米兩國が作業を續けている「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見直しに日本側がどの程度まで踏み込むことができるかが、将来の米軍兵力削減を可能とするかにつながるとの見方だ。

沖縄駐留の米海兵隊の削減については地元からの要望が強いものの、日米兩國の専門家の間では、「沖縄がアジアの要石」として、当面削減はないとの見方が今のところ大勢を占めている。ただ以前と多少環境が異なるのは、先のアーミテージ氏のような米國の國防に大きな影響力を持つ専門家の間でも削減の可能性が言及されるほどである。

米ブルッキングズ研究所のマイク・モチヅキ上級研究員らはアジアでの10万人の米軍兵力維持が厳密な計算によるものではなく、米國のアジアへの關与政策に伴なう「政治的メッセージ」とみている。その結果、現在約17,000人の沖繩駐留海兵隊は3,000-5,000人を残し、大部分を米本土に引き揚げても、朝鮮半島有事の際の緊急展開には支障をきたさないと主張している。ただし条件として、①佐世保基地に配備させている揚陸艦を現在3隻から6隻に増やす、②1万人分の裝備を事前集積する、③海兵隊の事前集積船の日本母港化-などが必要としている。以前は少数意見にすぎなかったこうした“有事駐屯論”が今後勢いを増やすことは十分想定されている。

### **BMD開發で日本に共同研究求める**

QDRで述べられている柱の一つは裝備費の削減と武器のハイテク化であろう。空軍の次期主力戦闘機の購入計画を当初の438機から339機へと約100機削減したほか、海軍のF/A18戦闘攻撃機も当初計画の1000機から新型機の開發によっては785機まで削減する。また海軍艦艇も12の航母機動部隊はこれまでどおり維持するものの、その他の水上艦艇は128隻から116隻に削減、攻撃型潜水艦も23隻減して50隻体制となる。この結果年間約150億ドルの國防豫算節約が見込まれるという。

その一方でQDRは15-20年後もにらみ、米本土ミサイル防衛の開發に強い意慾を示し、開發研究費として今後5年間に20億ドルを投入するとしている。この面で米國は日本との弾道ミサイル防衛の共同研究を強く求め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日米防衛協力ガイドラインの見直しと併せて、米國の國防の在り方に強くリンク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われる。

日米ガイドライン見直しは6月上旬に中間報告が公表される豫定だが、その中には日本周辺有事の対応として、①被害地への人員、補給品の輸送、②日本領海、公海での搜索、救難などの國際協力-など「廣く國民に論議の材料を提供する」(日

本政府筋)ため、40項目が盛り込まれる見通しだ。しかし、この中には機雷掃海や公海上での武器、燃料、弾薬の補給など、憲法解釈で行使が禁止されている「集団的自衛権」に抵触する恐れがある項目が多数含まれている。これらは日米兩國間の調整というよりは外務、防衛兩省廳と内閣法制局など國內的意見調整が重要なポイントで、その意味では米軍に頼る一方だった日本周辺の安全保障について、初めて日本自身が考えなければならぬ時期にきたと言えう。

## 다. 内田明憲, 요미우리 특파원, 요미우리 신문('97.12.10)

미국방위원회는 미군의 동아시아 10만명 주둔의 기초가 되는 「win-win전략」의 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근거에는 국방예산의 억제기조하에서 군의 근대화를 서두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퇴역군인과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는 미국방위원회(필립 오딘 위원장)는 연방의회의 필요성에 따라 작년에 발족하였다. 정부와는 별도의 입장에서 냉전 후 장기적인 미국의 안보전략, 정책을 제언한다.

「변화하는 방위-21세기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제목의 이번의 보고서는 앞으로 재래식 병기에 의한 종래와 같은 지역분쟁만이 아니고 생물·화학병기에 의한 테러·게릴라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2020년을 향한 미군의 합리화·근대화를 위하여 ①육해공군 통합사령부의 창설, ②미국내 기지의 통폐합추진, ③년간 5억-10억달러의 신병기·전략개발예산 계상, ④테러공격에 대한 「조국방위」의 중시 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냉전 후의 전력기준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2개의 대규모지역분쟁(2MRC)에 대처하는 미군의 「Win-Win전략」의 개정이다. 한반도와 중동을 염두에 둔 Win-Win전략은 냉전 후에 필요한 미군의 전력규모·구성을 결정하는 기본이 된다는 사고에서 클린턴 정권이 부시 정권에 서부터 계속해서 '93년 9월의 전력개정 「BUR」로 확인했다. 금년 5월 국방성의 4년마다의 국방계획 개정(QDR)에서도 유지할 방침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윈-윈전략을 「현재의 전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가능성이 낮은 긴급사태에 대비해 귀중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 안전보장에 위협성을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전략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미군을 보다 기동성을 높여 정확하고 광범한 공격력을 가진 부대로 변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모든 면에서의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는 발상이다.

미국방예산은 90년도 약 2,930억 달러에서 97년도에 약 2,430억달러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방성은 조직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앞으로는 4년간 문관 약 28,000명 삭감 등의 합리화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가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과 연대강화에 더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미국자신의 비용부담 경감이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 10만명 체제는 유지

물론, 이번 보고서가 주일미군을 포함한 10만명 체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견으로 국방위원회도 「미군의 전방전개는 중요하며, 동맹국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 약속과 지역의 안정제가 되고 있다.」(오딘 위원장)는 것으로서 당면하여는 10만명 체제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 한반도와 미·중, 중·대만관계 등의 국제정세와 군사기술의 진전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의 전투능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 미국의 인식도 당연히 변해갈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이러한 미측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국의 안보전략의 방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米軍の「二正面同時対応戦略」見直し報告(12.10.)

### 豫算削減ふまえ近代化を狙う

米国防委員会は、米軍の東アジア十万人展開の基礎となる「二正面同時対応戦略」の見直しを求める報告書をまとめた。根底には、国防豫算の抑制基調の下で、軍の近代化を急ごうとする狙いがある。

退役軍人や民間有識者計九人で構成する米国防委員会（フィリップ・オディーン委員長）は、連邦議会の意向で昨年發足した。政府とは別の立場から、冷戦後の長期的な米國の安保全略・政策を提言する。

「変質する防衛 — 二十一世紀の國家安全保障」と題する今回の報告書は、今後は、通常兵器による従來型の地域紛争だけでなく、生物・化學兵器によるテロ・ゲリラ攻撃など、新たな脅威への対応がより重要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そのうえで、二〇二〇年に向けての米軍の合理化・近代化を推進するため、①陸海空軍の統合軍司令部の創設②米國內基地の統廢合推進③毎年五億～十億ドルの新兵器・戰略開發豫算の計上④テロ攻撃に対する「祖國防衛」の重視などを「今から始めるべきだ」と提案している。

### 冷戦後の戦力基準

中でも、日本にとって注目されるのが、世界でほぼ同時に起きる二つの大規模地域分争（2MRC）に對處する米美軍の「二正面同時対応戦略」の見直しだ。

朝鮮半島と中東を念頭にした二正面戰略は、冷戦後に必要な米軍の戦力規模・構成を決定する基本となる考え方で、クリントン政権がブッシュ政権から引き継いで九三年九月の戦力見直し「ボトム・アップ・レビュー(BUR)」で確認。今年五月の國防總省の四年ごとの國防計劃見直し(QDR)でも、維持する方針を明示した。

しかし、今回の報告書は、二正面戰略を「現在の戦力構成を正当化する手段」と位置つけたうえ、「可能性の低い緊扱事態に備えて貴重な資源を集中するのは、

むしろ長期的安全保障に危険をもたらす」と批判し、戦略の変更を求めている。

新しい軍事技術を積極的に取り入れ、米軍をより機動力が高く、正確で廣範な攻撃力を持つ部隊に変革することを最優先するには、あらゆる面での豫算節減が不可欠との發想からだ。

米軍防豫算が九〇年度の約二千九百三十億ドルから九七年度には約二千四百三十億ドルに減少する中、国防總省は組織のスリム化に全力を擧げており、先月十日には、今後四年間で文官約二萬八千人の削減などの合理化案を發表している。

また、報告書が、日本、韓國などの同盟國との連携強化に加え、中國、ロシア、インドなどとの協力を強調しているのも、アジアの安全保障における米國自身の負擔軽減の狙いがうかがえる。

### **10萬人体制は支持**

もちろん今回の報告書が、在日米軍を含む十萬人体制に直ちに影響するというのは早計で、國防委も「米軍の前方展開は重要で、同盟國への明確な支持の早束と地域の安定劑となっている」(オディーン委員長)として、当面は十萬人体制の支持を表明している。

ただ、朝鮮半島や米中、中臺關係などの國際情勢や軍事技術の進展に伴い、海外駐留米軍の戦闘能力に大きな変化が生じれば、現在の米國の認識も当然変わってくるはずだ。

日本としても、こうした米側の動きを踏まえつつ、長期的視点からの自國の安全保障戦略や防衛力のあり方の検討に取り組むことが必要だろう。



---

---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자료집

발행일 : 1997 년 12 월 31 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인쇄처 : 문 성 인 쇄 주 식 회 사

---

---